현대불교

제 80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음력 9월 20일 · 불기 2554년 · 주간)





“한중일 3국 불교사 같이쓰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한중일대회서 제안

중국 강소성 무석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대회에서 10월 18~19일 중국 강소성 무석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대회에서 한중일 공동불교사를 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10월 19일 중국 무석 범궁에서 열린 한중일 대회 학술강연회에서 주제발표 ‘한류(韓流) 중류(中流) 일류(日流) 그리고 불류(佛流)’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스님은 “현재의 한중일 상생 시대는 3국을 동시에 광장화(廣場化)하는 문화시장으로 단일화되어 넓혀지고 있다. 한류와 중류, 일류가 서로 이웃지역을 마음껏 넘나들면서 공류(公流)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철 스님은 “동아시아가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간에 동류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리학적 동일체라는 의식 위에 불교를 통한 문화적인 동류의식이 함께 부여된다면 동아시아 삼국인들은 결코 서로가 서로를 남남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불교는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며 동아시아를 통합시킬 수 있는 두터운 문화적 토양이며,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은 동아시아 미래에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원철 스님은 “불교사의 공유적 시각을 통해 한중일의 황금유대는 한중일 불교도의 전체적인 교류로 넓혀가야 한다. 3개국 청소년이 교류하고, 청년과 대학생이 교류하고, 재가의 불교활동가들이 교류하고 마침내 모든 사부대중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동아시아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통일의 기틀을 닦도록 하자”며 한중일 공동불교사 간행을 제안했다.

스님은 2005년 한중일 시민단체와 역사학자가 펴낸 중학교용 공동 역사교과서인 〈미래를 여는 역사〉를 예로 들었다. 중학교용에 이어 2011년에는 고졸 이상 성인 대상의 역사 교재 출간을 앞두고 있다. 또, 책은 한중일 각각의 언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동시 출간을 준비중이다.

원철 스님은 “자국의 입장에서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일본불교사를 기본 토대로 삼으면서도 그 관계를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불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 이유를 “불교역사를 알면 동아시아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라며 “공동작업을 전제로한 한중일 공동불교사 간행은 한중일 황금유대의 미래를 제시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한·중·일 불교 황금유대 강화 확인

중국 강소성 무석서 제13차 한중일대회

10월 18~19일 중국 강소성 무석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대회에서 3국의 불교지도자들은 ‘3국 불교의 황금유대 강화’를 확인했다.

3국 불교 지도자들은 18일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한중일 3국 문화교류사에서 불교적인 협력과 교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3국 불교도를 아주 견고하고 소중하게 연결시켜주는 ‘황금유대’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자비, 평등, 화합, 공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한중일 3국 불교계의 깊이 있는 교류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세간의 인심을 정화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세계평화를 지켜나가고, 지구환경을 보존하면서 3국의 우의가 후세에 전해지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19일 무석 영산 범궁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은 치사를 통해 “본 대회를 통해 3국의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평화와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추아인(傳印) 스님도 “불교의 자타조화, 자비제세의 정신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3국 인민의 전통 우의를 증진시키는 기초위에서 세계불교사업의 전체적 발전과 인류의 모순을 없애고 분쟁을 제거하며 심령을 정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힘을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고바라시쥰쇼(小林隆彰) 스님은 “3국불교의 황금유대야말로 세계평화의 기본이며 영원불멸의 도표”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떡이야? 꽃이야?”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는 10월 16~17일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했다.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콘텐츠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비롯해 사찰김치 전시와 큰스님 밥상 재연, 스님들의 탁발순례, 강의, 다도, 바자회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경연대회에 출품된 사찰음식을 어린이 관람객이 신기한 듯 보고 있는 모습. **관련 기사 9면**

사진=박재완 기자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대법회

108산사 순례기도회 창립 4주년 기념 영산재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10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G20 서울 회의의 성공기원을 발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기도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해 봉행된 이날 행사에 참가한 5000여 사부대중은 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룩되기를 기원했다.

혜자 스님은 “불교계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를 두루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해 지구촌이 하나 되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2006년 9월 조직됐다.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며 108선행을 통해 108공덕 짓고 108배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는 데 목적을 둔 사찰 문화 네트워크이다. 연인원 25만여 명 참가, 1500여 가마의 쌀공양, 순례 해당 사찰은 창건 이래 가장 많은 불자 운집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왔다. 조동섭 기자

“마애불 천공은 30분 이상 고의 작업된 것”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재조사 촉구

조계종 문화부가 낙동강 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마애불의 천공을 지질조사용이며 고의 훼손의도는 없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애불의 천공이 마애불 훼손(발견 은폐)을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의 천공은 최소한 두상 부위의 암면과 음각이 인지된 상태에서 천공작업이 시작됐다. 마애불의 천공은 불상 훼손을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응 스님은 “1.2m 깊이를 천공하려면 30여 분은 작업해야 하는데 작업한 기사가 마애불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법응 스님은 △정부와 해당 사업장 건설회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종단 및 정부 합동의 정밀조사 재실시 △마애불 주변 일대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 △4대강 사업장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교과목↓ 신행활동↑ 교육시간↓

조계종 불교대학 교재 및 교과과정 전면 개편

조계종은 지난 9월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신도법 및 신도관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불교대학 교과목을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에서 필수 4과목으로 축소하고 수행, 봉사, 성지순례 등의 신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모든 불교대학의 학제를 1년 2학기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줄어든다. 특히 교육이수 시간에서 봉사활동 등 신행, 수행에 32시간을 포함해 신심있는 신도 양성에 주력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19일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 간담회를 열고 신도법 및 신도관계법에 따른 신도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재 및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마련했다.

포교원은 이날 2009년부터 3차례의 신도종책위원회와 불교대학 학장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모아진 불교대학의 문제점과 개선책,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상언 기자



14 15 선지식을 찾아서 우리는 법정 스님을 뵈었을까?
본다는 건 온몸으로 만나는 일이다. 지난 3일 열반에 드신 법정 스님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모든 장례절차를 마다하고 입던 옷 그대로…

3 10 · 27법난 30주년
역사교육관 추진… 진실 규명 미흡

7 포교 100년 진단
종도교육 없으면 포교도 없다

16 강의실
신비 가득한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18 윤남진 리뷰
G2 사이에 낀 동아시아 종교의 미래

‘나이 40이 되어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 『논어』 자한편(子罕篇)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100년 동안 세상에 출판된 불교서적은 무슨 책들이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의 마음에 길이 남아 있는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에 선정된 책은 불멸의 명저도 있고, 베스트 셀러, 논쟁이 되었던 책, 화제의 책, 뛰어난 번역서, 출판역사상 특필해야할 책 등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 되었다.

윤창화 저
신국판 / 양장제본 / 404쪽 / 값 18,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圓覺經

완전한 깨달음



이제열 강의
신국판 / 318쪽
값 12,000원

금생에 해야 될 가장 큰일이 있다면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진실하고 뚜렷한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비승가적 후보 사퇴하라"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단체 잇단 성명 발표…선관위 등에 공문 접수

10월 28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단체들이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가운데 부적절한 후보를 골라 이들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10월 20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비승가적 후보 자격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70대 노스님을 유리컵으로 폭행한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 종립대학 동국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적 비판의 당사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후보한 흥덕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찰 토지를 매매해 종법위반 의혹이 있는 봉선사 초격 스님은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단자정센터는 "중앙종회가 대의 · 입법 독립기관으로서의 합리적 기능과 집행부 견제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교구별 유권자 스님들은 투명하고 엄정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로 구성된 '청정승가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운동본부'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정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집행유예 중인 영배 스님과 봉선사 초격 스님 외에 수계 사실이 없는 은해사 법일 스님이 언급됐다.

공정선거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스님들은 엄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종단의 자정 기운을 높이고 종단 소임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해법 잘 된건지 아직 알 수 없어"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봉은사 일요법회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인정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주지 임명을 제안했던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10월 17일 봉은사 일요법회에 초청법사로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화쟁위원회 보고서 공개 이후 봉은사 일부 신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법 스님은 법회에 앞서 신도회 임원들의 요청에 의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쟁위원회의 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일부 신도들은 '봉은사 직영 지정 반대'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화쟁위원회의 결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법 스님은 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스님은 법문에서 지론인 '불교 발전론'을 역설했다. 명진 스님은 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도법 스님은 법문에 앞서 "명진 스님이 가꾸고 한국불교를 아끼는 분들이 갈망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화쟁위원회는 노력했다. 아직은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가 모순과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염려한다. 해법은 불교관 · 수행관의 확립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10월 20일 화쟁위원회의 봉은사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중결사는 "여전히 정치권력에 의해 종단이 좌지우지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16개 교구서 28일 경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0월 16일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119명이 입후보해 평균 1.4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흥사, 불국사, 쌍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봉선사 등 2명씩 입후보한 8개 교구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 외 16개교구에서는 28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중앙종회의원 교구별 정원은 직할교구(조계사) 4명, 해인사 3명 외 교구는 2명씩이며, 직능 20명, 비구니 10명 등 81명이다.

조동섭 기자

◈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교 구	입 후 보 자
직 할	정인, 태연, 법응, 정범, 종성
용주사	성직, 성효, 강설, 성재
신흥사	정념, 지원
월정사	삼혜, 적천, 보인
법주사	청원, 현조, 장주, 각주, 혜우
마곡사	원경, 견진, 노휴, 자암, 선일
수덕사	정묵, 석청, 주경, 도신
직지사	장명, 법보, 정업, 법매
동화사	활중, 선문, 덕현, 현근, 지거
은해사	태관, 원조, 법일
불국사	운성, 정문
해인사	도현, 재정, 본오, 순민, 효담, 종월, 종범, 심우, 성공, 경성
쌍계사	종호, 원정
범어사	무관, 정오
통도사	오심, 종선, 보화
고운사	자현, 영공, 지현
금산사	성우, 원혜, 법진
백양사	혜용, 의연, 만당, 보연, 석장
화엄사	일문, 영관
송광사	진화, 원경
대흥사	보선, 법정
관음사	월공, 덕수, 종연, 유방, 세등
선운사	선법, 도정, 혜오,
봉선사	일관, 초격
직능대표	대오, 향적, 법광, 장윤, 정우, 불산, 정산, 법안, 원범, 무애, 혜림, 정도, 범해, 덕문, 정호, 토진, 지홍, 영배, 본해, 각림, 종민, 성행, 혜일
비구니	계환, 일진, 상덕, 일운, 구과, 지홍, 지성, 탁연, 정운, 성관

4대강 논의기구서 결론 짓자

조계종, 정부 등에 논의기구 구성 제안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4대강과 관련한 국민적 논의기구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 이전인 12월 15일까지 한시 운영하자고 정부 · 여야 · 시민단체 · 종교계에 제안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제안한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는 추진 측 인사 4인(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국토해양부장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찬성 지자체 단체장), 반대 측 인사 4인(민주당 사무총장 등, 4대강범대위 대표,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표, 반대 지자체 단체장), 중재자 4~5인(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가 위임하는 대표) 등 12~13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본위원회 산하에는 민주적 절차, 기술, 환경 등 주요 쟁점 혹은 4대강 유역별로 3~4개 실무위원회 분과를 둔다. 본위원회는 실무분과에서 작성된 실무안을 논의 ·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쟁점은 끝장토론 형태의 TV 공개토론으로 진행하며, 논의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시민 대상의 공론조사에 의해 결론을 도출시킬 예정이다.

논의기구 출범 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는 1개월 여. 논의기구 활동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아무 결론도 도출시키지 못하고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화쟁위의 입장은 단호했다.

화쟁위원회 4대강소위원회 위원장 법안 스님은 "쟁점 사안이 논의기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공론조사로 결론을 도출시키겠다는 것은 논의기구 참여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도 "정부와 시민단체 등 누구든 논의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논의기구에서 합의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9월 16일 화쟁위원회가 개최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화쟁토론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4대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법안 스님은 "이번 논의기구가 성사되려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무원장스님도 필요시 직접 이웃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논의기구 참여를 위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이번 논의기구 제안은 4대강 사업의 지속 · 중단이 아닌 4대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국민적 합의해 의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근대유적지 사업 펼치는 개신교

템플스테이 반대 나섰다

불교 편향 사업이란 명목으로 대구시에 팔공산 역사공원조성사업 취소 압력을 넣어 사업을 무산시킨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가 이번에는 정부 핵심 관광사업인 템플스테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총은 최근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템플스테이 국고 지원은 특정종교 재정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총은 "템플스테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각 교회에 배포하고 이를 상영했다.

대기총은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 저지를 결의하는 기도회를 열고 템플스테이가 운영되는 100여 개 지역의 기독교연합회와 연대해 기도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가 주축이 된 민족문화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진필)는 "근대 유적지 사업에 막대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개신교계가 전통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막고 나섰다"며 "동영상 상영 등에 법적 대응하는 한편 12월 1일 대구 · 경북 지역 12개 종단 사찰, 16개 신행단체들이 연대하는 대구불교총연합회를 창립하고 대기총의 조직적인 압력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멸빈된 성호 스님 심판청구 각하

조계종 법규위, 백양사 건 등은 심리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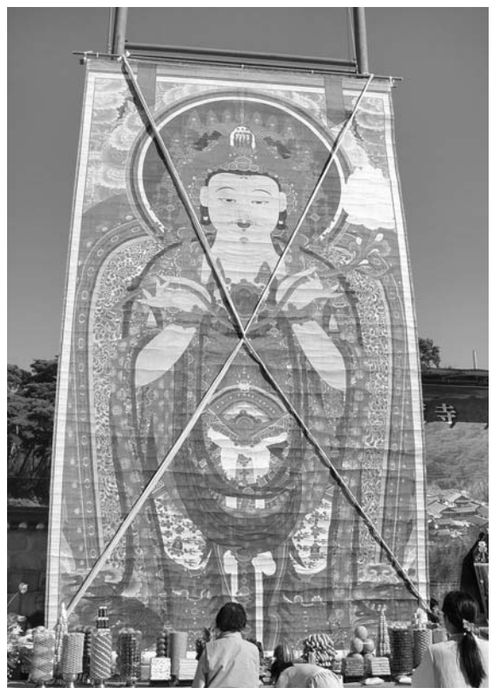
총무원장을 사회법에 제소해 멸빈된 성호 스님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백양사 총림 지위를 묻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8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성호 스님의 청구 자격과 대상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이어 백양사 의연 스님 등이 제기한 '백양사 총림 유지에 대한 종헌위반 심판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총림 지정의 기한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심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법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은 진정인 B보살이 피진정 대상을 법규위원회에서 정호 스님으로 변경해 진행중이다.

조동섭 기자



양산 통도사는 10월 16일 개산 1365주년을 맞아 경내에서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보시용 추천도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법화경 독송!



유려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새롭게 태어난 우리말 법화경!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국판변형/금장/630쪽/18,000원/운주사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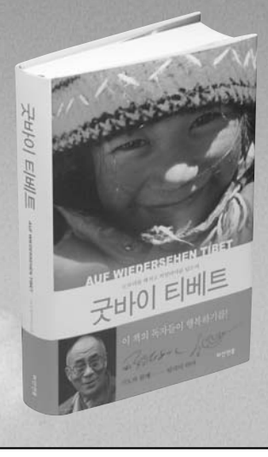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슬프고도 재미있는 이야기!

굿바이 티베트



죽음을 무릅쓴 망명길, 낯선 망명지에서 맞아야 하는 처참한 삶.
그러나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역경과 고난이 때로는 위대한 스승이 된다.

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 김화경 옮김/국판양장/384쪽/13,000원/하얀연꽃



“교단 청정이 진정한 명예회복”

30주년 기념법회 역사교육관 건립 추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10월 25일 “10 · 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발표하고 “정부가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정화 명분으로 국가권력 남용

1980년 10월 27일 새벽 4시, 신군부의 계엄군이 난데없이 전국 사찰을 일시에 덮쳐 비리승려 명단을 내밀며 닥치는 대로 스님들을 체포 · 연행해갔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은 군 · 경 병력 3만 2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했다. 재산축적과 축첩에 관한 비리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1차로 153명의 스님들이 연행됐다. 또 24명의 스님들이 남양주 흥국사에 한 달간 구금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월주 스님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20여 일간 연금을 당하고 사표를 강요받았다.

법난 당시 군홧발에 짓밟힌 사찰은 5731개, 연행돼 고문 및 수사를 받은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는 1929명에 달한다. 신군부에 의해 통제를 받던 각종 언론은 불교계를 비위집단으로 폄훼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10.27법난으로 종도들에 의해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해산되었고, 신군부의 기획에 따라 정화중흥회의가 등장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종단의 자주성을 유린당한 치욕이었다.

10.27법난 진상규명 요구가 그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10월 25일 ‘10.27 법난 조사결과’를 통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 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공식 발표했다. 과거사위원회는 또 “정부는 불교계 및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 조계종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올해로 10 · 27법난이 발생한 지 3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법난은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다. 법난 30년을 맞아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외형적인 행사에 치중하기보다 법난 진상규명 및 자정의 진정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진실 규명 미흡 연구소 설립해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국무총리 산하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는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세미나, 연극 공연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법난 30주년 기념법회는 27일 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법회에 앞서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난 피해자 초청 간담회가 진행된다.

저녁 7시에는 ‘10 · 27법난 특집 다큐멘터리’가 MBC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또 문화재 보유 사찰은 법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이날 하루 무료로 개방한다.

이에 앞서 10월 25~31일 매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10 · 27법난을 다룬 연극 ‘뜰 앞에 잣나무’가 공연된다. 29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0 · 27법난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10 · 27법난 30주년기념행사 준비실무팀 인성호 행정관(조계종 사회부)는 “법난 30주년을 맞이해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은 물론 명확한 진실규명과 기록보존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종단은 ‘역사교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역사교육관’은 법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간과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교육관 건립은 조계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명예회복심의위가 밝힌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조계사 대웅전 앞 삼오모텔 자리에 지상4층 지하4층 8595㎡ 규모의 역사교육관 2동이 들어선다. 사업비 2942억 원(부지매입 1150억, 공사비 1792억)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외형 불사에만 치중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명예회복과 건물 짓는 불사에 매진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길이 남을 것”이라며 “역사의 성찰 차원에서 법난연구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법난의 진실 규명, 성격 검토,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 등”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주성 지킬 역량과 청정성 회복이 과제

10 · 27법난 명예회복은 궁극적인 물음을 낳는다. 신군부가 당시 반체제 운동의 중심이었던 가톨릭과 개신교가 아닌 불교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불교의 자주적 역량과 관계가 깊다.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 체제 하에서 조계종은 신군부 측이 요구한 전두환 장군 지지표명을 거부하는 행보를 걸었다. 법난은 불교계가 자주적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 체제를 정착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실천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불교의 자주화가 선행돼야 제2의 10 · 27법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국가와 종교는 상호 존중의 관계다. 종교 스스로가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정승가대중결사 대표 진오 스님은 10 · 27법난 30주년을 계기로 교단 청정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오 스님은 “교단의 청정이 유지될 때 법난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교단 청정에 대한 중요성이 중앙종회 선거를 앞둔 지금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다”고 말했다.

조기룡의 사찰경제학 ④

욕구 아는 것이 마케팅의 시작

이제 사찰을 운영하는 소임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찰도 현실적으로 마케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찰의 마케팅은 기업의 상품판매 전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물론 사찰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이나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의 마케팅은 공통점이 많을 뿐 아니라 영리조직에서 쓰는 마케팅 용어나 전략이 비영리조직에서도 많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판이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비영리 조직은 유형의 제품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찰마케팅의 개념에는 사찰과 대중[신도와 비신도] 간에 상호교환 관계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사찰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佛法]에 의한 무형의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대중은 사찰에 유형적 자산 혹은 무형적 헌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상품의 매매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혹자는 사찰이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불법 혹은 전법(傳法)을 상품으로 곡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며, 팔고 살 수 없는 것은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내지 그를 전하는 전법의 행위가 팔고 사는 재화나 용역은 결코 아니다. 또한 매매는 상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고 구입하는 행위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없는 가르침으로 상응하는 대가물이 없다는 관점에서도 불법을 상품이라 할 수는 없다.

마케팅은 마음을 나누는 일
신행 욕구와 필요를 분석하여 신행과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사찰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사찰 마케팅에서 교환 관계란 상품, 즉 재화나 용역의 매매 관계와는 달리 대가성이 없는 시여(施與)의 관계임을 알아야만 한다. 출가자는 무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어 줄 물건이나 재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화 대신에 설법을 재가자에게 베풀어준다. 여기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특수한 교환 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출가자는 법시(法施)로서 재가자는 재시(財施)로써 서로 시여토록 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법시와 재시는 상품의 매매와 같은 반대급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출가자가 법시를 하기 때문에 재가자가 재시를 한다는 것도 결코 아니고, 재가자가 재시를 하기 때문에 출가자가 법시를 한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즉, 법시와 재시는 무엇을 바란다거나 반대급부적인 의도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뜻한다. 준다는 생각, 줌으로써 어떤 공덕을 얻게 되리라는 생각마저 없는 행위[無住相布施]이다. 사찰 마케팅의 교환 관계에는 법시와 재시의 교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시여의 관계임을 잊지 않도록 하자.

승가는 시여의 관계 속에서 재가[불자와 비불자]의 신행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충족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따라서 사찰 마케팅은 기존 신도인 불자 및 잠재 신도인 비불자의 욕구와 필요의 파악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찰 마케팅은 기존 신도는 물론 잠재 신도를 위한 마케팅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잠재 신도를 위한 마케팅에는 포교 활동이 해당되며, 기존 신도를 위한 마케팅에는 그들의 미충족 혹은 새로운 욕구와 필요를 발견하여,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역 방향, 프로그램, 제공하는 혜택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일들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사찰 마케팅은 기존 신도 및 잠재 신도 집단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들이 사찰에 대해 갖는 신행 욕구와 필요를 분석하여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말한다.

이제 두 가지 제안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더 이상 마케팅이라는 용어에 너무 얽매여 사찰의 마케팅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는 말자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가장 큰 의도이기도 하다. 마케팅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코틀러(P. Kotler)는 세계적 경영학자인 드러커(Peter F. Drucker)의 대담에서 마케팅을 “한 조직과 단체를 위하여 마음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는 건설 작업”이라고 재정의 하고 있다. 마케팅을 근본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제는 영업 전문가들이 판매를 마케팅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마케팅을 판매로 축소한데서 가져온 인식 오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또 하나의 제안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 사찰 마케팅을 하기로 하였다면 그 결과를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자는 것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절차와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대략 5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이 마케팅 도입 후 1~2년도 되지 않아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별히 마케팅의 결과가 일부라도 빨리 성취되면 10여 년 후에 이루어질 결과가 이미 모두 성취된 듯한 기분을 내기도 한다. 장기적인 결과는 당장의 효과와 다를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마케팅의 결과가 이와 같이 5~10년 정도 긴 세월이 요하는 이유는 마케팅이 한 개인 혹은 한 개별 부서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케팅은 전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한 가지 목표 달성에 매진해야 성취 가능한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805호(10. 13) 3면 성명서 광고에서 전국선원수좌회의 원고 오류로 ‘직능직의원스님들께서도 싸인 받은’에서 ‘직능직의원스님들께 싸인 받은’으로 ‘도’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리한 심리묘사 • 아름다운 문장 • 놓칠 수 없는 재미와 감동!!

스님이 쓴 바로 그 소설!!



길 상 지음

숲속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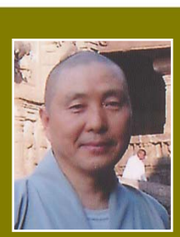
울창한 숲, 마음으로의 깊고 향기로운 여행

우리 모두는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였노라.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지각작용의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맸던 여행자였노라….’ 나는 그 환영(幻影) 속에서 문을 찾아 숲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풍경들을 모순이라고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 헤매었다.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허깨비였는데 마치 악몽을 꾸듯 몽환(夢幻)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던나그네였노라!’

값 10,000원

길을 찾아 숲으로 떠난 외로운 수행자의 구도소설

사랑 · 자유 ·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 · 당신의 길 · 우리의 길



출가 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고 현재 글을 쓰며 수원에서 도심 포교당을 열고 ‘삶이 곧 진리’라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길상스님

도서출판 푸른향기 02-860-5663 www.bluebook.p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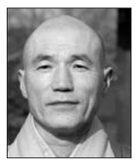
일 주 문



화엄사 네팔만다라 특별전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1월 24일까지 화엄사에서 네팔만다라 특별전을 개최한다.



고운사 청년솔향 학생백일장 대회
영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31일 고운사에서 제3회 청년솔향 학생백일장을 개최한다.



송광사 금강산림 대법회
순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은 11월 1일 송광사 금강산림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통일정책회의서 강연
법혜 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10월 15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통일정책회의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주제로 강연했다



천태차문화대회
천태차문화보존연구회 회장 세운 스님은 10월 30일 원주 성문사에서 제8회 천태차문화대회를 개최한다.



천룡정사 천등공양법회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11월 7일 천등 공양법회 및 다보탑 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한다. (054)336-0052



병불련 해외의료봉사
병원불자연합회 류재환 회장은 10월 30일 ~ 11월 6일 남인도 카르나타카에서 티베트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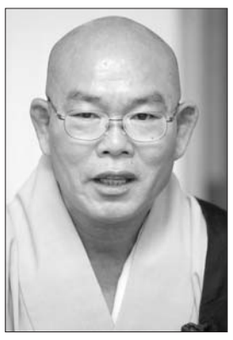
진각종 사감원장 증광 정사
진각종 증광 정사는 10월 14일 진각종 제370회 정기종의회에서 제34대 사감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13대 종의회 의원 회당학원 이사다.

"율장·율사 위상 높이겠다"

철우·도일 스님 등 고령 반룡사서 계율 근본도량 천명

한국 불교 최초로 계율 근본도량이 선포된다.

조계종 율장연구회장 철우 스님, 고령 반룡사 주지 도일 스님 등은 10월 20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3일 오전 11시 고령 반룡사에서 율장연구원 개원식 및 계율 근본도량 천명 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철우 스님


도일 스님

도일 스님은 "그동안 율원이 총림 중에 섞여 있어 불편이 많았다. 본격적인 율장 연구과 율사스님들이 뜻을 펼칠 도량을 만들고자 계율 근본도량을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율장연구회장 철우 스님은 "율원 2년, 연구원 3년 과정을 마친 율사 스님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5년 후면 자리를 비워줘야 하다 보니 율장 연구 ·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대부분 사찰이 고기만 빼고 오신채를 먹고 있어 율사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스님 가운데에는 계도 잘 모르면서 수계 · 포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율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는 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들은 계율 근본도량 반룡사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율장 홍포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반룡사는 율장의 가르침에 따라 갈마 등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된다. 수입 지출 등 재정 공개는 기본이다.

철우 스님은 "율장연구회에서 현토를 달고 번역을 붙인 〈사분율장〉, 〈승갈마〉 등을 보급해 계율학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편, 한글 · 한문 계율 문구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와 함께 플랭카드로 만들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일 스님은 "불 · 법 · 승 삼보 가운데 승보를 제외한 이보만 있다고 주장한 이도 있을 만큼 율장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율장만 소홀히 취급 받는 것이 아니라 율사스님들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종단의 현실"이라며 "계율을 통한 출가정신 회복과 율학 중흥을 통해 청정승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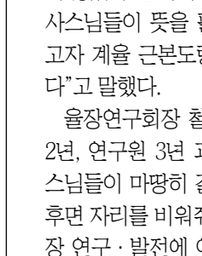
특히 스님은 "율사만 계율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지 판 · 검사만 법을 지킨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영축총림 율원장 덕문 스님은 "계율 근본도량 반룡사는 율사스님들이 모여 삼학을 고루 닦아 모범답안을 내는 도량이 될 것이다. 특히 계율을 지키고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통념을 깨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율장연구원 개원식 및 계율 근본도량 선포식에는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 고산 스님과 단일계단위원회 스님, 통도사 송광사 동화사 청암사 봉녕사 운문사 동학사 등 전국 율원의 율사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영남학원 신임 이사장 영 담 스님

"교육불사가 불교를 젊게 합니다"



"영남학원 설립자 故 이우룡 박사의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인재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11월 6일 영남학원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스님은 10월 21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남학원 이사장 취임 소감 등을 밝혔다.

영남학원은 부산정보산업고와 영남중학교를 산하에 둔 사학법인이다. 영남학원은 창립자인 故 이우룡 박사가 1950년 6월 부산에서 영남상업고를 개교하면서 시작해 한국전쟁 중에도 인재양성에 힘써왔다. 2001년 부산정보고로 명칭을 바꾼 후 개교 60주년인 올해까지 6만 여 동문을 배출했다. 故 이우룡 박사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창립한 인물이다.

영담 스님은 "창립자 이우룡 박사의 부인인 이무등심 보살은 1950~1960년대 동산 · 경봉 · 고산 스님 등 큰스님들 가까이서 신행생활을 했었다. 이 보살의 인연이 이어져 3대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영남학원을 명문사학으로 만들기 위해 참선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새로 교법사를 두어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또, 몇 개 학과를 특성화시켜 육성하는 한편, 부산정보산업고의 축구부와 영남중학교의 태권도부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최근 동화사가 학교법인을 인수해 동곡학원을 새롭게 문 열기도 했다"며 "불교계 운영 학교가 적은 것이 불자 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한 지금, 교육불사는 불교를 젊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의 영남학원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은 11월 6일 부산정보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음악회에는 불자가수 은지원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STOP! 웹서핑…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까규파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 린포체 동국대서 법문



티베트불교 4대 종파 중 하나인 까규파의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린포체가 9월 30일~10월 20일까지 방한해 많은 이들에게 티베트의 법문과 수행법을 전했다. 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10월 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까루린포체를 초청해 '까규파를 중심으로 본 티베트 불교와 수행'에 대해 설법했다. 수행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까루린포체의 강연은 쉽고 명료했다.

#불교, 관건은 '수행'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전해줬지만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근본스승을 찾는 것은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불상이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법문이 좋아 법문을 듣는 것, 책 만 읽는 것도 수행이 아니다. 근본스승을 찾는 것은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삼장이 제시하는 선지식을 만나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뤄진다. 전승, 전통에 관계없이 부처님 법에 따라 여법하게 수행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이 전통과 저 전통이 다르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혼란스러워 지고, 의구심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돼 수행을 하지 못한다.

#윤회계 알아 수행하라, 윤회계는 여러분 자신이다.

윤회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서 만드는 것이다. 즉, 자신을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윤회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윤회계다. 욕망(貪), 미움(瞋), 무지(痴), 아만(慢), 질투(嫉)의 오독에 시달리고 있다. 오독심을 다스리면 윤회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면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독심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수행을 해야 한다.

윤회계, 무상, 생로병사를 알게 되면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무엇도 정진력을 막을 수 없다. 기도를 하다 조는 것은 윤회계, 생로병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관습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윤회계를 알고 수행을 하면 대보살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나 책을 보지 말라

나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진다. 나 또한 아상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나를 대단히 높은 성취를 한 보살이라고 보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은 전생의 업이 다른 것뿐이다. 내가 좋은 업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좋은 수행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불법 수행은 자기하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좋은 수행자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삶과 사회를 이해하며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수행자이건 불자이건 상관없이 업은 공평하게 돌아온다. 선업은 좋은 결과를 낳고, 악업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업은 매우 단순하게 돈다. 행복과 슬픔은 업에 의한 것이고 업을 존중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불법은 가만히 있으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웹사이트나 책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길 바란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서 불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말릴 수 없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상언 기자

#까루 린포체(Kalu Rinpoche)는 누구?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하나인 까규파의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린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처음으로 서구에 전한 티베트 불교의 스승 까루린포체(1905~1989)의 환생자로 여겨지는 2대 까루린포체다.

1대 까루린포체는 자신의 환생을 예언하며 1989년 입적했고, 그 예언대로 1990년 인도 다르질링에서 까루린포체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아기가 태어났다. 현 까루린포체는 1992년 달라이라마로부터 까루린포체의 환생자로 공식 인정받아 1993년 2월 삼둡 달게링 사원에서 제2대 까루린포체의 자리에 올랐다. 까루린포체는 까규파의 전통에 따라 수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봄부터는 3년 3개월간 무문관 수행을 시작해 무사히 회향했다.

제1호 명예국제포교사에 미국인 브라이언 베리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19일 제6차 포교원회의에서 브라이언 베리(66, Brian A. Barry, 재적사찰 비로자나 국제선원)를 1호 명예국제포교사로 선정했다.

브라이언 베리는 40여 년간 불화 제작과 경전, 법문 번역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전세계에 알려왔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한국문화관광부, 한국해외홍보관, 태국 방콕 마출라롱콘라쟈비다라야 대학교,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 링크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상언 기자

제1회 불교문화 학술토론대회

백제불교문화학의 새로운 과제

초청의 말씀

이번 세계백제문화대전에 즈음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대전거사림연합회, 중앙인문연구원이 주최하고 중앙불교연합대학원이 주관하여, 백제불교문화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국보급 백제불교문화재들은 그동안 학계에서 많이 논의 · 고증 ·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 주최 · 주관 측에서는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종래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견해를 논의 · 제시하고, 사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에 관심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공개 토론을 벌임으로써, 그 위대한 불교문화재들의 실상과 진가를 올바로 구명 ·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학술토론대회에 찬연한 불교문화를 지키고 연구하시는 높은 뜻으로 부디 동참하여 주시기 두 손 모아 앙청합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 혜
대전거사림연합회 회장 류해상
중앙불교연합대학원원장 사재동
중앙불교연합대학원 원우회장 김길동

▮일시 _ 2010년 10월 30일(토) 오후 1시~6시까지
▮장소 _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W10) 세미나실(312호)

학술토론(2:00~6:00) 사회 : 김진영 교수(충남대학교)

· 기조발제 : 백제불교문화학의 새로운 과제 : 사재동 교수(원장)
· 제 1토론 : 연기 비암사의 창건과 석불비상 : 유기준 교수(공주대학교)
· 제 2토론 : 익산 미륵사의 창건 연대 '己亥年'의 문제 : 강종원 박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제 3토론 : 무령왕릉 문물의 불교적 성격 : 정재윤 교수(공주대학교)
· 제 4토론 : 백제금동대향로의 불교미술적 실상 : 김창균 교수(동국대학교)

주최 | 제6교구본사 마곡사 / 대전거사림연합회 중앙인문연구원
주관 | 중앙불교연합대학원 원우회
협찬 | 한국불교문화학회 / 어문연구학회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충청문화연구소
후원 | 대전광역시 / 대전비구니청림회 / 대한생활불교회 / 불교신문사 / 불교tv / KBS대전총국 / MBC대전문화방송 / TJB대전방송 / 대전일보사 / 중도일보사 / 충청투데이

문 의 : 대전불교거사림연합회
042)222-3788, 011-420-1120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정확한 조사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고령자기업 탑리서치, 노인 일자리 창출 나서

노인인구 100만 시대, 노인 인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복지의 키워드가 됐다. 하지만 대다수 노인 일자리는 보수가 낮고 임시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이 설문조사원으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해 내는 일자리가 있어 노인일자리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0월 20일 설문조사 위탁기관 탑리서치를 개소했다. 6월 서울시로부터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된 탑리서치는 이날 개소식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마쳤다.

탑리서치는 2005년 중앙 고령자취업 알선센터에서 고령자 유망직종으로 개발된 일자리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설문조사원 ‘탑리서치 사업단’을 발족하고, 2008년에는 조사원 20여 명이 매출 1억원을 달성해 2009년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탑리서치는 전문 마케팅, 설문조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다양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노동부 · 산업자원부 · 산림청 등의 국가진행 설문조사, 학위논문 · 기업의뢰 설문조사, 기업마케팅 관련 설문조사를 해왔다.

물량공세를 하거나, 비키니 복장 정도의 설문조사원들도 받아 내기 힘든 설문조사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

설문조사를 담당한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경력을 가진 고학력 조사원이다. 前 언론인, 건설회사 CEO, 국가연구소연구원, 시장물가조사연구소장, 국가고위공무원, 대기업 이사 등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서울시 종로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활기찬미래연구소, 서울시 노인취업 훈련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조사원 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다.

사회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풍부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설문조사는 타설문기관과 다른 장점이었다. 이런 장점으로 신뢰를 쌓으며 유명 조사기관들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설문조사원직을 수행함으로써 개인당 서울시 지원금 10만원 외에 조사 건당 리서치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받아 쏠쏠한 수입을 얻고 있다.

탑리서치 어르신들은 자신이 사회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생각을 담아내는 사회조사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이 높았다.

올해 3년 째 활동하고 있는 김종우 조사원(69)은 “활동량이 많아 건강에 좋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즐겁지만 조사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어르신은 “조사를 할 때 설문에 흔쾌히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만나거나, 조사원을 무시할 때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종우 어르신은 “예전부터 쌓아온 내공을 발휘하면 마치 묘수를 부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응답해 준다”고 말했다.

탑리서치 운영기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탑리서치는 사회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 사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향후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령자기업 ‘탑리서치’에는 60세 이상의 30여 어르신들이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탑리서치 사무실에서 전화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꼼꼼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령자 기업은?

고령자기업은 노인을 채용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면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비율이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는 기존 노인일자리가 대개 보수가 낮고 단기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령자기업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시설비와 임차료 등 창업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관악구 행운동 즉석두부전문점 콩깍지를 비롯한 9개 기업이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약 110명의 노인이 일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법상종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 도량제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0월 20일 천안 성환읍 대흥리에서 ‘제2회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 아타파구신 도량제’를 봉행했다.

지난해 성환문화원(원장 송용삼)이 주관해 시작된 도량제는 올해부터 법상종이 종단행사로 확대 개최했다.

봉선홍경사는 고려 현종이 아버지 안종의 뜻을 받들어 사찰 200여 칸, 객관 80여 칸으로 국태민안 도량제를 7일 동안 봉행한 법상종 국찰이었다. 도량제는 국태민안을 발원하기 위한 지금의 법회다.

천안시립 풍물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송용삼 성환문화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적지 정비, 복원을 통해 국보 제7호를 알리는 지역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국보 7호인 법상종 홍경사를 정비하고 복원하는데 법상종은 천안시와 문화원과 적극 협조해 국가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교육부장 일공 스님 외 참여대중들의 아타파구신 도량제 의식 시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10월 18일부터 안성 쌍미륵사에서 2박 3일간의 정기종도교육을 마친 법상종 100여 종도들를 비롯해 성환읍민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했다. (031)677-9950

노덕현 기자



“오해다” VS “떠나라”

BBS, 사장-노조 성명서 통해 공방

BBS(이사장 영담) 김영일 사장 직무대행의 임금 수령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성명과 해명이 이어지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은 10월 18일 입장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오해는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직무대행은 “문제가 되는 임금 수령 논란은 ‘전임자보다 수익을 못 낼 때는 연봉 1원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익이 나면 그때 보상을 받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사장직무대행은 “BBS 입사 8개월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다가 과거 전임자 예우에 준해 정상적인 ‘전무’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 뿐이다”라며 “BBS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S노조(위원장 손근선)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일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석에서 ‘연봉 1원’을 강조하며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며 “전 직원이 체력단련비와 제수당의 일부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월급을 올려 받는 김 사장직무대행의 행위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BBS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지 오래이다. 92.9%의 노조원이 퇴진을 찬성한 김 사장직무대행은 당장 불교방송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진각종, 회당종조 열반47주기 추념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10월 16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각성존 회당종조 제47주기 열반절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진각 성존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진정으로 수행하고, 진정으로 보은하고, 진정으로 화합하는 길로 가기 위해 자성을 찾는 참회로 대 정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불사는 회당 종조 열반지인 불승심인당(대구 침산2동), 탄생지인 금강원(울릉군 사동리) 종조전, 불광심인당(미국 LA) 등 국내외 주요 진각종 성지와 심인당에서 동시 봉행됐다. 조동섭 기자

팔공산 묘적암 산신각 중수 불사 봉행

산신영험도량 팔공산 묘적암 (주지 성인)은 10월 17일 산신각 중수 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묘적암은 11월 15일 산신각 중수 불사 원만 성취 칠일기도를 입재해 회향일인 21일 오전 11시에는 산신대재 및 회향 법회와 산사음악 공연을 봉행할 예정이다. (011-9371-8080) 손문철 대구지사장

BTN 스마트폰으로도 본다

BTN(회장 성우)이 스마트폰을 통해 BTN뉴스, BTN소식, 예불, 법문, 강좌 등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m.btn.co.kr)를 10월 25일 정식 오픈했다.

BTN의 모바일 웹페이지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영천 은해사 개산 1201년 기념 개산대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16일 개산 1201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은해사 부도전에서 개산조인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들에게 차를 공양하는 차 공양을 올리는 다례재 시작으로 헌공의식, 법요식 순으로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양주 보리사 낙성식 및 점안봉안식

송추 보리사(주지 덕찬, 조동종 종정)은 10월 16일 낙성식 및 점안봉안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부종정 덕룡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종회의장 혜륜 스님, 문화원장 행찬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종 종정 덕찬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추 보리사 창건불사 회향을 간화선 일색인 한국불교에 여래의 지견이 담긴 묵조선 수행법을 더욱 널리 펴는 정진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나보고 잘 죽으라고?" 불교계 '웰다잉'(well dying) 운동 본격화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다"

-현장스님-

"잘 가" "잘 자" "잘 먹어" "잘 있어" "잘 해" 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하는 말에 붙는 부사가 '잘'이다. 그러나 "죽어" 혹은 "죽자"는 말 앞에 '잘'을 붙여 말하면? 섬뜩하거나, 해괴망측한 생각한다고 누군가에게 혼날 일이다. 영어로 바꾸면 '잘'은 웰(well) 이고 '죽음'은 다잉(dying)이다.

닥쳐올 죽음이 나에게만은 '아직'인 듯 사는 사람들에게 '웰다잉(Well-dying)'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웰빙(well-being,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함)'이라면 또 모를까 말이다. '잘 죽는 운동' 웰다잉 운동은 존엄사, 안락사 등과 함께 2000년 들어 삶의 새 코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아직도 자신에게서 먼 이야기 같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이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웰다잉 실천교육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 됨' 이 10월 20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첫 강좌를 시작했다.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으로 지정되면서 재가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스님들의 참여율이 부쩍 늘었다. 이날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자리해 "웰다잉은 불교 수행자의 궁극적 목표"라며 격려했다.

첫 강의는 보성 대원사 회주 현장 스님의 '불교의 죽음 이해'로 시작했다. 현장 스님은 수업에 앞서 "우리는 뭐든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웰빙이나 웰다잉의 '웰'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했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아는 것이 웰다잉 교육의 시작이었다.

현장 스님은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겪은 사례와 티베트, 인도인들의 죽음관, 서양에서 각광받고 있는 윤회치유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죽지만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이 들어도 다른 사람은 죽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나를 병들게 한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다."

스님은 윤회를 수용할 때는 병도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뒤로 한 채, 불확실한 무언가를 좇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까? 현장 스님은 티베탄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했다.

"티베탄들은 잠자리에 들 때 죽음을 생각한다. 베개를 당기면서 스승의 무릎을 벤다고 생각하고, 이불은 시체를 덮는 천이라고 여기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잠이 곧 명상이고, 꿈을 통해 생사를 체험한다는 티베트 수행자들의 이야기다. 티베트 스승들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일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을 맞는 준비란 무엇인가? 현장 스님은 "염불수행을 정성스레하면 스스로 죽을 날짜를 알 수 있고 병고가 없이 맑은 선정 속에서 극락왕생한다"고 설명했다.

웰다잉 구체적 방법제시 필요

불교계의 웰다잉 교육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 명상, 호스피스와 연계하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웰다잉 교육의 출발은 호스피스 치료와 함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서 나왔다. 15년간 의료현장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봐 온 데이비드 쿨 박사는 자신의 저서 <웰다잉>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은 모르핀 등의 약물로 완화시킬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다. 그 고통으로 인해 평생을 지켜온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그를 지켜보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고 했다.

최근 웰다잉 운동은 불교계에서 훈풍을 타고 있다. 웰다잉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올해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으로 지정됐다. 불교계 복지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인 '사死는 기쁨'을 진행하고 있다. 능인선원, 대원사, 관음사 등에서는 몇 해 전부터 불교적 윤회 생사관과 웰다잉을 접목한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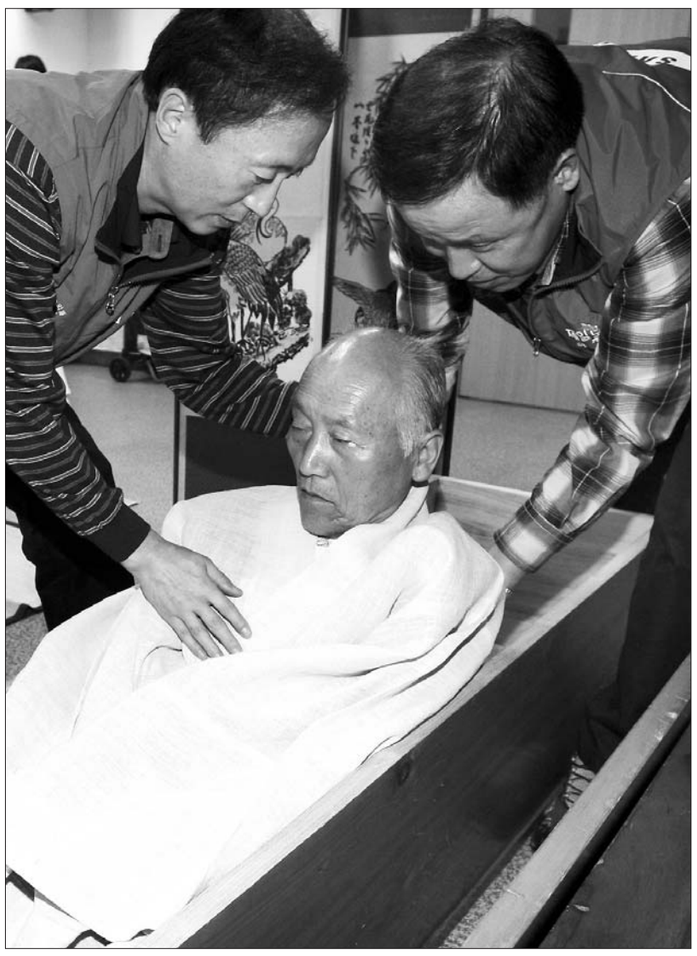
불교계 보다 한발 앞서 삶과 죽음에 대해 연구해온 이웃종교계의 활동도 눈에 띈다. 각당 복지재단(이사장 김옥라)은 국내 최초 웰다잉 영화제를 개최해 웰다잉을 알리고 있다. 1991년부터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통해 웰다잉극단을 창단했다. 웰다잉극단은 연극으로 웰다잉을 사회에 보급해 왔다. 그밖에도 강연과 출판, 연극공연으로 웰다잉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불교계의 웰다잉 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웰다잉운동본부에서 올해 6월 문화제를 열고 책 출간을 했지만, 웰다잉 교육은 여전히 뚜렷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기 보다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불교적인 명상과 이해가 주 학습내용이다.

유럽에서는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주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나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처리하는 비탄교육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죽음교육은 주로 자살방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웰다잉 운동은 노년층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할 부분이다.

한국인 정서에 맞으면서, 불교적 내용이 담긴 사항들도 첨가할 필요가 있다. 정재걸 대구교육대 교수는 수입된 죽음교육에 대해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 죽음과 죽음교육에 대한 심오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웰다잉문화연구소 김조한 소장은 "그 나라의 문화, 종교, 생사관,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 국민성에 맞는 죽음준비교육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웰다잉은 수입된 완전 제품의 형태에 불과하다.

불자가 아닌 이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난해하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또 임종체험이나 유언장 작성, 죽음 명상, 자비명상 등의 프로그램 외에도 유산상속에 대한 법률 교육, 유품처리, 말기의료 치료, 장례식 선택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밖에 생명나눔실천본부 등을 통해 자신의 장기나 시신 기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구체적인 대안이다.



어르신들이 10월 14~15일 불교계 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인 '사死는 기쁨'에서 입관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 됨'

웰다잉 실천교육은?

웰다잉 실천교육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된다. 10월 27일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은 <선가귀감>을 바탕으로 '웰다잉의 지름길'을 강의한다. 김기호 아름다운삶 수련원 대표는 죽음 명상에 대해서 강의한다. 김 대표는 "가장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좋은 삶이란 주어진 시간동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돼 있음을 깨닫는데서 비롯 된다"며 죽음명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11월 3일에는 재가수행자 강선희 씨의 '자비명상', 11월 10일 황수경 웰다잉운동본부 문화위원장의 '마음정화와 치유', 11월 17일 천주교 죽음의 이해와 호스피스, 11월 24일 호스피스와 임종심리 및 자서전 만들기, 12월 1일 정서적 외상과 사별 슬픔, 12월 8일 웰다잉 봉사 현장, 유서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육군훈련소 불사, 11월 19일 착공

군종교구, 42회 군승의날 맞아

군포교의 최대 숙원 사업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가 드디어 착공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19일 제42회 군승의날을 맞아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불사 착공식을 봉행한다.

지난해 11월 41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통해 불사 선포식을 개최한 군종교구는 그동안 불사금 모연활동에 주력해 현재 전체 공사비 약 120억 원 중 43억 원을 모았다.

신축 호국 연무사는 35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법당, 멀티미디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1976년 완공된 1500석의 기존 법당은 교육관으로 사용된다.

군종교구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계획을 점검 · 보완하기 위해 불사추진 건축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불사 착공식에 이어 기념법회에서는 군 불교를 위해 성원해준 공로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전해준 군종교구 총무과장은 "이제는 '군종'이란 말만 들어도 논산법당 불사 후원이 떠오를 정도로 많은 불자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종단 대작불사인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10월 15~17일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박정이) 주관 하에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전군 간부 불자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군 간부 불자수련회에는 육 · 해 · 공 간부 불자 및 예비역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간부불자수련회에서는 '한국불교의 미래 군 불교-우리가 책임집니다' 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또 선센터 개원을 앞두고 각종 프로그램(참선, 발우공양, 명상법 등)이 시범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나눔의 집 활동 작품 전시대회

초중고 대상 10월 17~11월 7일 공모

경기도 나눔의집은 제2회 전국 청소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나눔의 집 활동 작품전시대회 작품을 10월 17일~11월 7일 공모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 할머니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작품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이면 참여 가능하다.

작품은 논설문, 산문, 서간문은 A4용지 2~4장(글씨크기 12), 운문은 1~2장의 분량의 원본 글과 함께 전시용 판넬 작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그림, 사진, 포스터, 만화서, 서예, 도자기 등의 작품 형태도 응모 가능하다. (031)768-0064 이상언 기자

연우와함께-광동고 친환경 먹거리 제공

연우와함께(대표 이상근)와 의정부 광동고등학교는 10월 20일 광동고등학교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게 됐다.

연우와함께는 2011년 1학기부터 광동고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점차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11일 매주(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광연구원, 포교 100년 진단

종도교육 없으면 포교도 없다

김응철 교수, "사회변화 무관심 · 엘리트층 방치하고 있다"
박경준 교수, "공격적 뉘앙스의 '포교' 보다 '전법' 이 옳다"

최근 한국 불교계의 포교활동은 지난 100여 년과 비교했을 때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종단과 사찰에 국한된 현상이다. 여전히 고답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10월 16일 불광법회 창립 36주년에 즈음해 '부처님의 전법행과 전법교화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연찬회에서 "농경사회의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포교활동은 산업사회를 거쳐 고도정보사회로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한 '전도선언에 담긴 전법의 정신과 방법'을 통해 부진한 포교활동의 원인을 "불교 포교의 근본적 문제는 불교계 내부에 있다"며 성찰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먼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교계 전통문화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의 각 스님들의 승복은 50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강원의 스님들이 배우는 경전의 내용은 340여 년 전에 채택된 과목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 최근 외전을 더 포함시키지는 했지만 내전 중심의 강원교육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찰의 건축도 천년이 지난 건축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초하루법회는 초기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교전통에 대해 김 교수는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불교계의 전통문화 고집은 포교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전통문화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문화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데에 따른 시민과의 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응철 교수


박경준 교수

김 교수는 다종교사회의 도래로 불교문화재 훼손문제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웃종교인들 중 배타성이 강해 불교를 타도와 공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부 종교인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불교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뤄내고 전통문화 유산을 고집스럽게 지켜내야만 한다. 그래야 후세에 우리민족문화의 원형을 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포교활동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불교계 내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찰만 만들면 저절로 포교가 될 것이라는 안이함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수의 스님들은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거부반응을 보인다. 왜냐하면 수행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열심히 수행하면 포교는 원하지 않아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그 결과 포교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했고, 배출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종단들이 구성원 교육을 담당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불교계 전반의 포교 역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교 수행법들 중 한국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불교의 주요 문헌과 수행관련 연구들을 외국어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불교는 이웃종교의 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현상을 보여 왔다. 김응철 교수는 이런 문제의 요인을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불자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좀 더 근원적으로 분석해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불교는 대중포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했지만 사회 엘리트 계층의 교화에 소홀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에서는 이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불교는 조직화된 신도층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부족했고 관심도 결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포교활동의 해결방안이 부처님의 전도선언의 내용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했다. 그는 "포교활동의 성패는 교육받은 신도, 조직화된 신도, 그리고 활동하는 신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며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고 직접 세나니가마로 가서 가섭 삼형제를 교화시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도선언의 내용 속에는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육 · 조직 · 복지 · 문화 · 수행 · 포교 등의 원리가 모두 함축돼 있으며, 전통적 법회와 설법 포교의 이념과 목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전법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공격적인 의미를 지닌 포교보다는 '교법을 전하여 줌'을 뜻하는 '전법(傳法)'이라는 용어가 더 불교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포교'라는 단어의 '포(布)'에는 약간 공격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과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광법회를 창립한 광덕 스님은 "어린이는 부처다"라며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했다.

사회화 · 거사불교로 근대를 열다

불문연,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 출간

학계에서는 대체로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한국불교 근대기로 부른다. 근대의 기점을 1876년의 개항 또는 1895년 승려들의 도성출입금지 해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대불교의 시작은 개항이나 입성 해금의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며 불교계 내부에서 민족불교를 수립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과 고뇌가 치열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불교는 불교의 사회화를, 중국은 출가자 중심을 넘어서 거사불교가 활발하게 펼쳐졌으며, 일본에서는 불교계 인사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최근 동아시아 불교가 근대에 들어서며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한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동국대학교출판부 刊)을 출간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으로 선정된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라는 총괄주제의 연구를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은 이러한 연구 가운데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문화의 변용 비교'라는 주제의 1단계 사업을 총괄, 정리하는 네 번째 연구결과물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은 △근대국가와 불교 민족주의 △근대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운동 △근대불교학의 새로운 모색의 3부로 구성됐다. 불교의 정치적 지향, 사회적 소통, 정체성 모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제들이다.

1부 '근대국가와 불교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정치 · 사회적 격변 속에서 각기 다르게 전개된 한중일 세 나라의 민족주의를 대비시켜 조명했고, 그와 연동된 불교계의 활동 내용과 지향점을 각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비교 · 검토했다. 한국불교의 경우 식민지 체제라는 현실 난관과 그로부터 파생된 친일 행태가 비판돼 왔는데, 최근의 연구사 정리를 통해 '민족불교'의 갈망이 쉼 없이 명맥을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근대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운동'에서는 문명개화와 근대성에 부응하기 위한 불교의 대중화 노력과 사회운동에 대해 조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잡지를 통해 제기된 불교 및 교단 개혁론을 통해 불교의 사회화를 추구했고, 중국은 출가자 위주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학문연구와 사회적 활동에서 양문회, 구양경무 등의 거사들이 중요한 역


'동아시아...' 표지

할을 담당했다. 일본은 메이지기에 나타난 사회주의 운동에 코토쿠 슈스이, 사카이 도시히코 등 불교계 인사 일부가 참여해 사회와 대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고민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3부 '근대불교학의 새로운 모색'에서는 근대불교학의 연구방법론과 그 성과,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재해석한 중국 학술계의 동향에 대해 고찰했다. 중국에서 동서철학의 접변 형태로 나타난 불교와 서양철학, 양자를 대표하는 유식불교와 칸트에 대한 재해석을 대비시켜 분석했고, 20세기에 전개된 불교와 유학 간의 논쟁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사유의 근대적 모색을 추적했다.

이번 연구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고영섭 · 국문학과 김상일 교수,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부교수, 김제란 · 원영상 · 한상길 연구교수, 김기종 고려대 연구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기엽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조승미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나은 기자

'서구 불교운동 의미' 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신진 연구자 자유발표 시간도 마련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서구 불교 운동의 문화사적 조명'. 동양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구에 전파돼 발전되는 과정과 이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회에서 박성배 교수(미국 스토니브룩주립대)가 '서구 불교운동의 문명사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1960년대 서구의 반문화운동과 불교의 수용',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서구불교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을 발표한다.

자유발표에는 2010년 불교학분야 박사학위 취득회원을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나선다. 불교교학 · 사학분과에서는 △현석 스님(동국대, 해인사 강사)의 '화엄 대회를 통해본 조선불교사 재고' △요경 스님(동국대 인도철학 박사)의 '대한불교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한글본 번역에 대한 일고(一考)' △진관 스님(동국대 선학 박사과정)의 '개화승 이동인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응용불교분과에서는 △권경희 전 임강사(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상담학전공)의 '서양 상담심리학과 초기불교의 성장(growth)에 관한 비교 고찰' △박동춘 소장(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의 '자하 신위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연구' △자명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과정)의 '선문답의 원리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된다.

김용표 회장은 "신진 연구 인력들의 자유발표를 통해 신학문 동향의 흐름을 함께 살펴 불교학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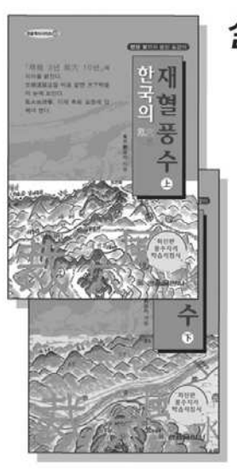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불교학연구회, 논문 모집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은 12월 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연구' 제27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학회 이메일(bulgyohak@yahoo.co.kr)로 보내면 된다. (031)985-1627

화제의 신간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上권 · 下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 재혈의 과정과 결과가 곧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학의 핵심과제이고 최종의 목표다.
- 그래서 '심룡3년, 재혈10년'의 대명제가 영원한 의미로 끊임없이 전해온 것이리라.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上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下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새로운 滴天髓 풀이 1 · 2 | 신국판/慧源 羅明祺 지음/각 40,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Q 소승불교의 상징은 석가모니불이시며, 대승불교의 상징은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님 이십니다. 그럼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말씀 또는 가르침은 석가모니불이신지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님인지 궁금합니다.

A 대승과 소승은 설하신 부처님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멸 100년 후 부파불교 시에 크게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나뉘게 됐는데, 북방불교는 대승이고 남방불교는 소승이라 합니다. 대체로 동남아 지역은 남방불교이고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북방불교입니다.

소승은 자신의 성불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고, 대승은 자리이타 즉 나도 성불하고 너도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남이면 무조건 제사를 다 모셔야 하나요?"
"가족의 화합을 우선시 하는 것이 장남의 역할"

부처님은 삼신(三身)으로 구분합니다. 삼신에는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또는 응신(應身)이 있습니다. 법신은 법은 영겁토록 변치 않는 만유의 본체(비로자나불)이며, 보신은 인(因)에 따라 나타나는 불신(아미타불)을 말합니다. 화신 또는 응신은 중생의 원에 따라 화해 나타는 불신, 여러 보살님(석가모니불) 을 말합니다.

Q 저의 가족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6남매가 있습니다. 현재 막내 동생이 시골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를 제외하곤 5형제는 객지로 나가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게 됐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제사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집안의 장남이지만, 집안의 제사를 다 모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아버님과 어머님 제사는 제가 모시고, 추석은 시골에 있는 막내가 맡고, 설날은 둘째가, 조부모 제사는 셋째와 넷째와 맡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제사는 장남인 제가 맡아야 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장남이기에 모든 제사를 제가 맡아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인줄은 알지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큽니다. 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신 채 저에게만 책임을 다하라 하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A 제사를 모시기에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담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다가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셔서 난감해 하시는 군요. 장남에게 집안의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살아 있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모시고 기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족들의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나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일반적인 관습과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나눠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머니의 가치관으로 수용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의 간소화나 변경 등 지내는 사람의 여건에 맞춰 타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데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다면 상대를 설득시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어머니는 물론 형제들과도 서로 대화가 필요한 법입니다. 집안의 맏이로써 동생들에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해야 불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형제들과 친척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잘 이해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담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머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가족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터놓으면서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 제사를 지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 화목한 가족, 우애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움직여야 활기 넘치고 좋지"

연꽃마을, 용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및 효사랑축제 개최

행복법당 탐방 — 용인노인요양원

10월 9일 초가을, 화창한 날씨 속에 경기도 용인 용인노인요양원 앞마당에 700여 어르신들이 모였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효사랑 축제에 참여한 지역 어르신들이다.

효사랑 축제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주최하는 대표적인 어르신 축제다. 연꽃마을은 효의 사회화와 인식확산을 위해 매년 효사랑 축제를 비롯해 전국 효사랑 마라톤, 노인사진공모전 백일장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이구~ 마을에만 있으면 머해~ 이렇게 나와서 공연도 보고 움직여야 활기도 넘치고 좋지~"(김춘자 · 용인 처인구)

노인의날을 기념해 열린 축제에서 지역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과 축하공연단의 신명나는 공연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연예협회(지회장 박수자) 소속 김춘화, 박경숙, 한성애 씨의 노래마당과 이우경 씨의 벨리댄스,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청년회의 댄스 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 백암지역 최고령인 이순례(100), 김애례(99) 어르신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와 어르신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효사랑 축제는 연꽃마을의 다섯 번째 요양시설인 용인노인전문요양원(원장 최태선) 개원을 겸해 진행됐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계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연꽃마을이 용인노인요양원(원장 길혜정) 뒤편에 신축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국비 20억 원이 지원돼 대지 10,964㎡, 연면적 2,509㎡(76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올 1월 완공됐다. 수용인원은 약 100명으로 마사지실과 주간보호실, 식당과 각 생활실, 도우미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개원 전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월부터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요양시설 탐방 및 현장실습,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사장 각현 스님을 비롯해 김학규 용인시장,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 김관지 처인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개원식에서 각현 스님은 "3만 5000여 후원자들의 십시일반으로 연꽃마을이 올해 20주년을 맞게 됐다. 1993년 용인양로원 건립한 연꽃마을의 뿌리와 같은 이 곳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각현 스님은 "용인시 최고의 노인요양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시설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은 불교계가 고령화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서 드러나듯 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불교계는 요양시설 건립, 수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어르신 축제는 요양시설이 기피대상이 아닌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불자들이 지역 어르신 축제에 활발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이제 주변에서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과 김학규 용인시장이 백암지역 최고령인 이순례 할머니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보험과 불교계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7%를 넘었다.

현재 불교노인복지시설은 2007년 말 기준으로 154곳으로 장기요양시설은 70여 곳, 치매단기보호센터 등 단기보호시설은 20곳이다.

불교계의 활발한 참여에도 노인복지 분야 활동영역은 점차 확장돼고 있다. 자원봉사자 확보 및 체계화, 전문요양사 육성,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은 노인복지계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공통된 목소리다.


10월 9일 용인 연꽃마을 노인요양원 뒤편에 문을 연 노인전문요양원 전경.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종무법인 禪農教團 (법원등기 제 0000006호)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17개팀 참가해 솜씨 뽐내고
다도 시연 · 장터서 사찰 체험
참가자들 절마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한때



큰스님 밥상은 수라상인줄 알았는데…



이번 봉녕사 사찰음식 경연대회에는 17팀이 참가해 자신들의 음식솜씨를 뽐냈다.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양한 사찰음식들이 전시돼 있다.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거무죽죽한 둥그런 그릇에 어디서 났는지 이름도 모를 갖가지 산나물과 장아찌, 김치와 밥만이 담겨 나오는 것이 사찰음식의 전부인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10월 16~17일 열린 '제2차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에 소개된 사찰음식들은 모두 도발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메인 행사인 사찰음식 경연대회의 출품작들은 진정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이었다. 오미자화채, 매실묵은지김밥, 조랭이떡샐러드, 모듬버섯밥, 매작과, 호박선, 죽, 타르트, 약식, 버섯강정, 들깨채소전병 등 다양한 음식들이 저마다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날 사찰음식 경연대회에는 17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의 솜씨를 선보였다. 먹기조차 아까워 보이는 음식들이었지만, '꼴깍' 넘어가는 침 소리만큼은 숨기기 힘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봉녕사를 찾은 박형기(18)군은 "평소 사찰음식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사찰음식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전시돼 있는 음식을 맛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경연대회에 출품된 사찰음식 외에도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 우관 스님의 사찰 김치와 큰스님 공양상도 함께 재연됐다.



30여 명의 스님들이 봉녕사 큰 마당에서 탁발순례에 나섰다. 탁발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수행정신을 재현했다. 수행자는 하심과 인욕심을 키우고 공양자는 보시공덕을 짓는다.

화려해 보이는 출품작들과는 달리 우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들은 그저 깨끗하고 정갈한 김치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김치가 금치로 바뀐 지금, 우관 스님의 김치는 한 입 시원하게 꽉 깨물고 싶을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반면 큰스님들의 공양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큰스님들이 먹는 음식이라 해서 임금이 먹었던 화려한 수라상인줄 알았건만,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만큼 밥과 국 · 김치 · 장아찌가 전부인 상차림이었다. 큰스님들의 밥상이야 말로 수행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덕목에 대해 정확히 보여주는 듯 했다.

사찰음식이 전시돼 있는 우화궁 앞 큰 마당에는 긴 천막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천막 안에는 갖가지 먹거리와 스님들이 손수 만든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봉녕사를 찾은 사람들은 큰 마당에서 삼삼오오 모여 장터에서 파는 음식들을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끼리 나눠먹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봉녕사를 찾은 김현옥(35)씨는 "이렇게 절 잔디밭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양한 행사도 구경하니 좋다"며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여서 더욱 좋다"고 말했다.

사찰음식 경연대회와 더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건 30여 스님들의 탁발순례였다. 사람들은 스님들의 탁발순례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었으나, 탁발이 수행자의 하심(下心)과 인욕심을 키우고, 공양자는 보시공덕을 짓는 것이라는 사회자의 설명에 스님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선재 스님, 정관 스님, 대안 스님,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인 스님들의 다도 시연, 코미디언 김병조와 함께하는 공연마당 등은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 향유하는 시간이었다.

#행사 준비부터 뒷정리 관음회 도인회 회장

"궂은 일 마다않는 회원님들 고마워요"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보석은 사찰음식이 아니었다. 남모르게 뒤에서 묵묵히 궂은일을 담당해 온 관음회 회원들이었다. 회원들은 행사 준비부터 진행, 뒷정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다.

관음회 도인회 회장은 "관음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터에서 판매되는 메뉴 선정, 음식 만들기, 판매까지 모든 일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하고 있다"며 "회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년에는 회원 분들이 좀 더 고생을 덜 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회장은 "작년에는 행사를 처음 열리다 보니, 행사를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우리 신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도 회장에게 더욱 의미가 깊은 행사가 됐다. 사찰음식 경연대회에 '죽 시리즈'를 출품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연히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8개월 전부터 선재 스님께 사찰음식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음식을 배운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 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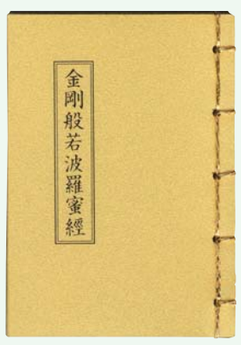
도 회장은 "스님들에게 영양도 보충해 주고,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가을에 나는 곡식을 이용해 죽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도 회장은 "사찰음식을 알고 난 후, 집에서도 조미료나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찰음식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알고, 많은 불자님들이 이를 함께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음회 도인회 회장. 이날 도인회 회장은 뜻하지 않게 사찰음식 경연대회에서 '죽 시리즈'로 대상을 수상했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고운사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사업 시동

고운청소년재단,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기공식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를 기공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고운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호성)은 10월 8일 안동 태화동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고운사 소유 부지 5122㎡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건평 329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센터에는 6개 강의실과 자치활동실과 정보화교육실, 시청각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서 청소년 문화감수성 계발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과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정념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장 호성 스님은 "안동청소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고운사는 지역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고운청소년재단은 10월 8일 안동 태화동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센터에는 6개 강의실과 자치활동실, 정보화교육실, 시청각실, 체력 단련실이 들어서며 201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세워진다.

고운사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사업은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 삼보사 주지 등운 스님, 용담사 주지 정우 스님, 유석사 주지 도륜 스님 등 고운사 본 · 말사 스님들이 이사와 감사로 참여 중이다.

고운청소년재단은 2010년 초부터 안동시내에 '안동 청소년활동센터'를 열어 청소년문화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범종 타종식 개최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종고)는 10월 10일 범종불사 타종식을 봉행했다.

타종식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범려 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고스님은 "지장 기도 도량인 도솔암의 모든 사부대중과 불자들이 3년 여의 기간 동안 힘과 뜻을 모아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정각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발원이다"고 말했다.

범종은 무게 1300관, 높이 2.4m, 둘레 5m의 규모로 부산 홍종사에서 약 4개월간을 거쳐 조성됐다. 도솔암은 범종 타종에 이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범종각 신축 불사를 진행한다.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은 10월 10일 범종불사 타종식을 봉행했다. 범종은 무게 1300관, 높이 2.4m, 둘레 5m의 규모로 부산 홍종사에서 약 4개월간을 거쳐 조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기

나주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을단풍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개최됐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부설 지혜나눔실천회는 나주시(시장 임성훈)와 함께 10월 17일 고창 선운사에서 다문화가정 70여 가구를 초청해 '다가치, 다함께, 다문화' 가을 단풍 여행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보물찾기, 엄마 아빠와 사탕 먹기, 사찰 전통음식 체험 등의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넉넉한 가을의 체취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광 스님은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주 만나다보니 이제는 서로 편해진 것 같다"며 "다문화 가정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주 심향사 지혜나눔실천회는 10월 17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민 가족들과 함께 가을 단풍여행을 실시했다.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며 넉넉한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자장면 한 그릇에 행복 전해

남원 선원사 임실 탄약창 장병들에 자장면 대접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는 10월 17일 선원사 봉사단(단장 최인술)과 함께 임실 탄약창 호국 장영사 법당을 찾은 장병 200여 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운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면을 뽑고 자장을 볶으며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위로했다.

운천 스님은 법문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군 장병들은 진정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복무기간동안 큰 탈 없이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왼쪽)이 장병들을 위해 직접 자장면 면발을 뽑고 있다. 이날 선원사는 군장병 200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도영스님 백산장학재단 설립

"인재육성에 매진"

교육과 포교에 평생을 매진해온 도영 스님이 장학재단을 출범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10월 14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백산장학재단 설립 기념법회를 열고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산장학재단 발기인을 도영 스님 외에 전 동화사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대전죽림정사 주지 광진 스님 등이다.

한편 도영 스님은 이날 문집 〈보름전 일은 묻지 않겠다〉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부루나 존자들 뭉쳤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는 10월 16일 상무중학교 운동장에서 70여 포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는 지난 1년간의 포교사들의 포교활동을 격려하고, 회원 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광주지역 뿐 아니라, 강진, 목포, 영광, 순천, 광양, 해남, 나주 등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까지 참여해 포교사의 만남이 장을 이루기도 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사찰안내, 소년원교화, 교도소교화, 염불봉사, 문화예술봉사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장미역' 북한 산모에 전달

'북녘 산모 및 어린이를 위한 기장미역 제공 협약'

기장군 북녘 돕기 나서

북녘의 산모와 어린이들에게 기장미역이 전달된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정여, 범어사 주지, 이하 민족돕기운동)을 통해 북한에 8400만원 상당의 미역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규석 기장 군수(오른쪽)는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북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기장 미역 3750㎏을 전달했다.

기장군과 민족돕기운동은 10월 19일 기장군청에서 북녘 산모 및 어린이를 위한 기장미역 제공 협약식을 개최했다. 기장군은 미역 이외에도 기장의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 흑미 등 지원 가능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장군이 지원하는 1차분 기장미역은 컨테이너 1대 분량으로 약 3750㎏의 마른 미역이 북녘 남포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북한에 전달할 시기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의를 해 결정되며 이르면 다음 달 중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민족돕기운동은 기장군과 북한이 문화, 관광,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상호교류 · 협력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의로운 죽음 역사 개척"

보승사, 순국선열 위한 영산대재… 추모음악회

순천 보승사(주지 영도)는 10월 16일 순천 금당공원에서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와 임진왜란,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대재와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지역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의 영산재 의식과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법문, 추모음악회가 열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념분쟁의 비극으로 희생된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렸다.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법문에서 "죽음은 단순히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인연이다. 의로운 죽음은 다음 세대를 위해 불연(佛緣)을 만드는 선행이다"라고 말했다.

보승사 주지 영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조들의 삶을 바로 알아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후손된 이의 도리이다. 특히,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 오늘에 물려준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했다.

영산대재에 이어 열린 추모음악회에서는 우하 스님의 회심곡과 살풀이, 휴암 스님의 팔상성도 및 왕생가, 사물놀이, 가수 조항조의 노래공연, 합창단 공연, 탑돌이 의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보승사는 불교세가 약한 전남 순천 지역에서 개원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설 도심 포교당으로, 순천지역 불자들이 거는 기대가 큰 도량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 가을에 물들다!

실상사 가을 한마당 축제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와 산내면 지역공동체 한생명은 11월 13일 실상사 일대에서 가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솟대 기원 및 놀이마당, 살림장터, 중고 아나바다, 지역작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1월 10~13일 실상사 보광전 옆에서는 '실상사 가을바람 전'을 열고 지역 예술인의 그림 및 공예품을 전시한다.

이상언 기자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⑨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4)– 방장(方丈)

유마거사 작은 방에서 유래

방장은 총림 곧 선종사원의 최고 어른이다. 그러나 본래 방장은 직함이 아니라 주지의 거실 · 침실 이름이었다. 당우 이름이 직함으로 발전한 이례적인 경우다. 송초 자각종색 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와 원대 동양덕휘 선사가 편찬한 〈칙수백장청규〉 등에 '방장'이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로 당우 이름으로 나오고 있을 뿐 직함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선원의 중요한 12개 소임인 유나(維那) · 수좌(首座) · 지객 등 6지사(知事)와 6두수(頭首)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두어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방장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방장'은 직함이 아니고 주지의 거실 이름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장을 직함으로 쓰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여기서는 당우의 역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직함에 대해서는 '주지(방장)' 항목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장(方丈)'이라는 말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에서 비롯된 말이다. 〈유마경〉은 반야 공사상을 실천적으로 전개한 경전으로서 사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금강경〉보다도 훨씬 더 선불교에 영향을 준 경전이다. 이 경전의 주인공인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 일장(四方一丈)'이었다는 데서 따온 말이곧 '방장(方丈)'이다. 사방 1장이라면 약 3. 3㎡로서 1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유마거사는 이 작은 방에 3만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마련했다. 그것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말과도 같은 말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불교는 유물론이 아닌 유심론이다. 진리란 불가사의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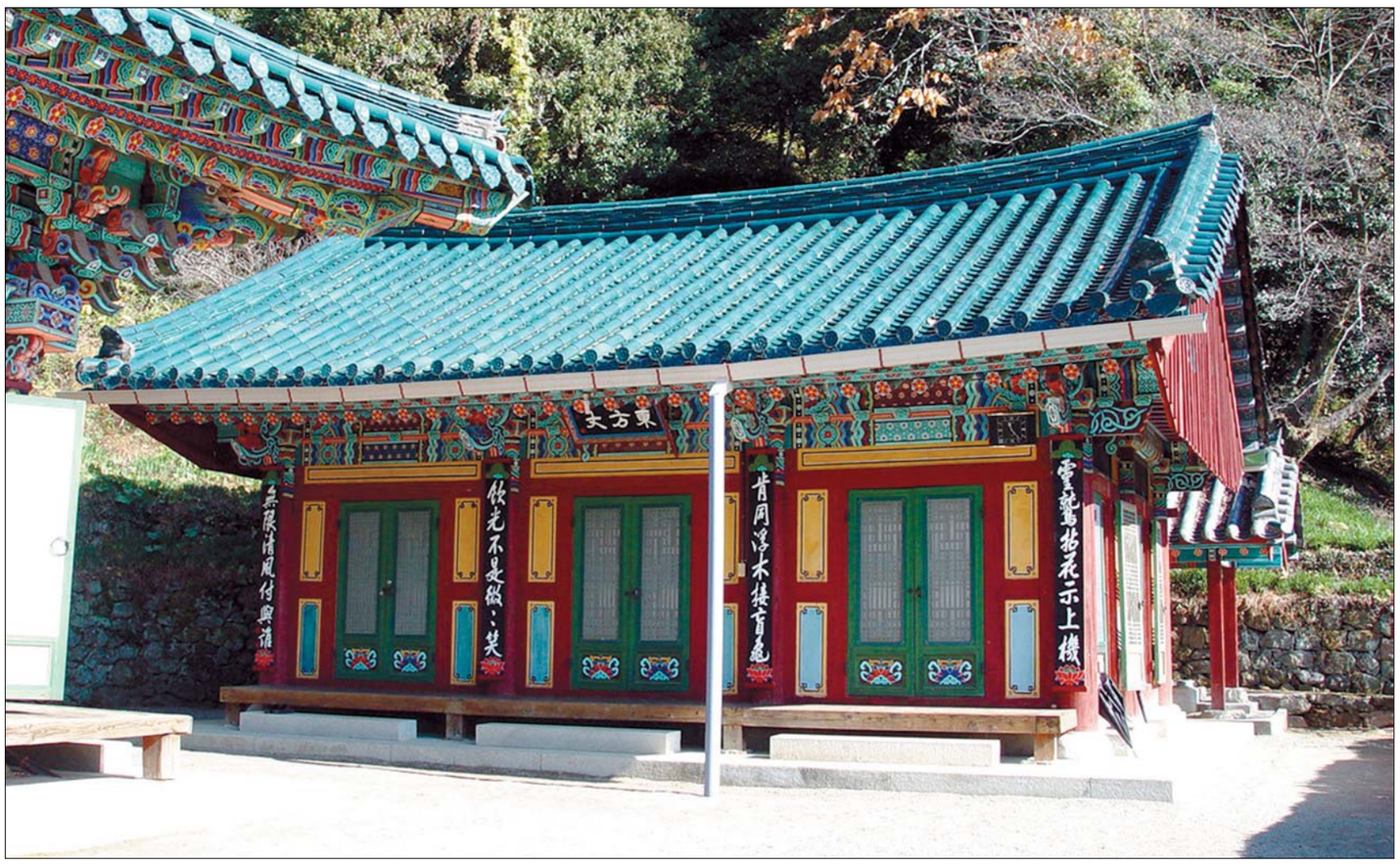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선종사찰이라고 해도 별도로 방장 당우가 없고 또 편액을 '방장'이라고 붙인 곳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총림 격에 가까운 중국 · 일본의 선종사원은 예나 지금이나 별도로 방장 건물이 있고, 그 당우에는 반드시 '방장(方丈)'이라는 편액을 써서 붙인다.

일본 교토(京都) 5산으로서 임제종 대본산인 텐류지(天龍寺)나 겐닌지(建仁寺) 등에는 현재도 옛 방장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조계사 대웅전의 약 1.5배나 된다. 방장 앞에는 일본 사찰 특유의 '카레산스이(枯山水, 마른 산수)'라고 하여, 돌과 모래로 산수(山水)를 표현한 석정(石庭)이 있고, 뒤에는 자연을 축소시킨 연못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모두 마음을 밝히는 조연적(助演的)인 역할을 한다. 깨달았을 때 이와 같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돈 · 출세 따위의 세속사는 잠시지만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 이런 곳에서는 좌선 자체가 그대로 선의 세계였을 것이니 어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본 선종 선종사원의 거대한 방장과 앞뒤로 펼쳐져 있는 석정(石庭), 그리고 세월이 깃들어 있는 고풍스러운 당우와 정갈함 등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처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한다. 특히 료안지(龍安寺)의 카레산스이 석정은 아주 유명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텐류지(天龍寺)의 방장과 고야산 고곤부지(金剛峰寺)의 석정(石庭)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하다.

지난 해 가을 교토에 있는 10여 개의 선종사원을 답사하면서 처음 처마 밑에 붙어 있는 '方丈'이라는 편액을 보고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방장화상의 직함명이 왜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일까? 당시까지만 해도 방장을 직함으로만 알고 있었지, 주지가 거처하는 '당우'라는 것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방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중국 선종사원의 방장실은 커야 대부분 50평–70평 정도로 정(正)위치가 아닌 한쪽에 비켜 있으나, 송대 선종사원의 방장은 컸고 또 방장채 앞에 '전방장(前方丈)'이라고 하여 별도로 방장실이 있었다. 예컨대 묵조선의 탄생지 천동사는 약 천여 명 이상이 생활했는데, 법당과 방장 사이에 전방장으로서 대광명전과 천광당(穿光堂) 두 당우가 있었고, 영은사는 아예 '전방장'이라고 편액을 붙인 당우가 법당과 방장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대혜선사가 주지로 있던 경산사는 처음으로 중각법당(重閣, 2층)을 지어서 아래층은 법당으로 위층은 전방장으로 사용했는데, '능소지각(凌霄之閣)'이라는 편액을 붙였다. '능소지각'이라는 말은 '능소지지(凌霄之志)'에서 따온 말로서 '웅비하다' '날아오르다'는 뜻이다 아마도 중생에서 부처로 웅비하다는 뜻일 것이다. 나무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능소화(凌霄花)도 여기서 딴 이름이다.



방장은 선종사원의 중심을 이루는 당우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방장은 많지 않은데, 쌍계사 금당 좌우의 전각에 '동방장' '서방장'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사진은 동방장.

사방 1장에 3만2천 대중이 운집하다

〈丈〉

전방장의 규모는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불전이나 법당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방장보다 더 큰 때가 많은데, 이곳은 주로 외빈을 만나는 접견실 겸 소참법문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그 밖에도 선원의 소임자들과 불사(佛事)를 논의하는 회의실, 수행승들을 지도, 편달하는 독참 · 입실 등의 장소로 사용한다. 그리고 방장 본채는 '내방장(內方丈)' 혹은 '소(小)방장'이라고 하여 주지의 개인 침실로 사용하는데 전방장에 비하면 크지는 않다. 내방장을 침당(寢堂) · 정당(正堂) · 정침(正寢) 또는 '당두(堂頭)'라고도 한다. 주지를 '당두화상(堂頭和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방장의 당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주지(방장)의 역할이 큼을 의미하고, 작다는 것은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뜻한다. 또 크다는 것은 사실상 교화력(법력)이 큼을 의미하고 작다는 것은 교화력이 크지 못함을 시사한다. 법력이 떨어지면 역할이 작을 수밖에 없고 역할이 작으면 새로운 부처가 탄생하기 어렵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 방장 당우는 옛 것보다는 작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방장'이라는 편액을 붙인 당우가 드문데 이는 사실상 방장의 역할이 거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소참법문과 독참(獨參) · 입실(入室) 등 지도, 제접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방장 건물은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송대의 한림학사 양억(楊億, 974–1020)은 〈선문규식(禪門規式)〉에서 "방장은 개인적인 침실이 아니라, 참선자들을 위하여 설법, 강의하는 공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백장선사도 "방장은 개인 방이 아닌 법을 통하여 수행자를 교육시키는 장소"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 유마거사의 방도 사실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불이(不二)의 법문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이었다.

방장은 매우 중요한 당우이다. 선종사원이 수해나 병화(兵火)로 인하여 소진(消盡)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당우가 법당과 방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처를 만드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 두 당우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수행승들이 정법안장을 갖추자면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하고 법문을 듣자면 설법주(說法主, 주지)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공양은 천막에서 임시로 하고, 좌선은 나무 밑에 앉아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방장 당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은 하동 쌍계사이다. 쌍계사 금당 좌우편에는 '동방장(東方丈)' '서방장(西方丈)'이라는 편액을 붙인 3칸짜리의 작은 당우가 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고 여기에는 누가 기거하며 또 이것이 전방장과 같은 방장 당우의 하나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선방으로 사용하는데 10여 명 정도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우의 명칭이나 규모로 보아 선방은 아니고 서방장은 서당(西堂)과 같은 개념으로서 전임 주지가 기거했고, 동방장은 동당(東堂)과 같은 개념으로서 현임 주지가 기거하는 곳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통 선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편액을 붙인 당우가 남아 있다는 것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흥성했던 우리 선불교의 자취를 보는 것 같아 더욱 감회가 깊다.

방장실에는 방장을 보좌하는 시자(侍者)가 다섯 명이나 딸려 있다. 이것을 '방장시자(侍者)', '방장행자(行者)'라고 하는데, '시자'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秘書)로서 최측근 인물이다. 방장화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며, 특혜라면 그 누구보다도 많은 법문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시향시자(侍香侍者): '효향(燒香)시자'라고도 하는데, 방장의 상당법어와 소참법문 · 보설(普說) · 염(拈)과 송(頌) 등을 기록하며, 대중과의 면담, 방장의 향화(香火)와 의례(儀禮) 등을 담당, 보좌하는 시자이다.

○ 시장시자(侍狀): '서장(書狀)시자'라고도 하는데, 방장화상이 외부 인사들과 주고받는 서간문 기초 및 관리, 그리고 총림의 모든 문건 작성 등을 담당한다.

○ 시객시자(侍客): '청객(請客)시자'라고도 하는데, 방장화상을 찾아오는 빈객 응접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시자이다.

○ 시약시자(侍藥): '탕약(湯藥)시자'라고도 하는데, 방장의 공양과 차, 탕약 등을 담당하는 시자이다.

○ 시의시자(侍衣): '의발(衣鉢)시자'라고도 하는데 방장의 옷과 가사와 발우 등을 담당하는 시자이다.

방장시자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심성이 곧고 입이 무거울 것'이다. 5명의 방장시자는 항상 방장실 곁에 있는 시자료(侍者寮)에서 생활한다. 방장화상이 움직이면 시자들은 모두 앞뒤를 따른다. 이 가운데 시향시자가 비서실장인 셈이다. 시향시자는 방장의 법어를 필기해 두어야 하므로 문한(文翰)에 능해야 하고 또 실력도 있어야 한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불이법문으로 진리 깨닫게하는 선종사원의 중심

쌍계사 '동방장·서방장' 편액 붙인 당우 남아있어

방장실은 주지의 거실로서 법당 바로 뒤에 위치한다. 7당 가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참선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인 역할에서 본다면 법당과 승당에 이어 3번째쯤 된다. 소임이나 직책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직책이 주지 곧 방장이다. 방장의 법력 여하에 따라 깨달은 부처가 탄생하기도 하고 멍텅구리가 탄생하기도 한다.

방장은 수행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특히 안거 동안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데, 독참(獨參, 독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이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곧 방장화상에게는 화두가 된다. 깨달은 이가 나타나야만 붓다의 혜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쌍계사 동방장과 서방장 현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악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악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한복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돌과 모래로 산수 표현

'카레산스이'란 '마른 산수(枯山水)'라는 뜻으로 물 대신 돌과 모래로만 산수를 표현한 정원인데, 다른 말로는 '석정(石庭, 돌 정원)'이라고도 한다. 사래로 모래를 손질하여 흐르는 물결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지형을 이용하기도 하고, 수목이나 바위로써 섬이나 산을?만들어서 고요와 자연을 나타낸다. 일본 선종사원의 정원은 중국 수묵화 특히 송(宋), 명(明)시대의 산수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특히 교토에 있는 료안지(龍安寺)와 다이토쿠지(大德寺) 석정은 매우 유명하다. 돌은 산을, 흰모래는 흐르는 물(流水)을 표현한다.

허공은 형상이 없고 불성은 생멸이 없다

비문에 이두문자 새겨져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탑비

봉림가풍 전수한 자적선사 명산승지 탐방하며 전법

❸ 글자로 역사를 말하는 명봉사

추석날 아침 뒷산에 오릅니다. 고향집 뒷산이 대대로의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선산(先山)입니다. 산꼭대기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16대조 할아버지의 묘소를 둘러보고, 그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에 절을 올립니다. 선산에 있는 그 많은 묘소들에 일일이 표지석을 세운 뒤 "이제 누구 묘소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됐다"며 흡족해 하시던 아버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으니 표지석이라도 세우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그려봅니다.

큰 벼슬을 하거나 높은 덕망으로 훈장을 받지도 못한 민초의 무덤일망정 그 앞에 표지석 하나가 서 있음으로 존재감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 작은 돌에 새겨지는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꾸려나간 고달픈 생애와 조상의 피를 후손에게 전한 그 충실한 임무가 '평택임공00지묘'라는 글자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부도밭 기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탑비는 한 선지식의 생애와 그 시대의 총체적인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금석학에서 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한 시대의 정신과 문물제도를 함께 읽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에 있는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境淸禪院慈寂禪師凌雲塔碑)'를 친견하러 갑니다. 신라의 이두문자가 발전된 형태로 남아 있는 탑비입니다.

고려 태조 24년(941)에 세워진 이 탑비는 고려 초기의 이두문자로 된 행정적 양식을 갖춘 문서가 그대로 새겨졌다는 점에서 국어사 연구에 매우 귀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2월 보물 제1648호로 승격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선지식의 생애와 그 시대의 문물을 전해주는 그 기표(記標) 자체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 탑비는 보물 중의 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차를 달립니다. 남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소백의 능선들이 운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사람 사는 마을마다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고, 마당가에선 명절 쇠러 온 사람들이 세워 둔 자동차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올리고 산소를 찾아 성묘하는 모습도 더러 보입니다.

명봉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슬쩍 비켜서서 길 하나를 만들어 준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신라 헌강왕 원년(875)에 두운(杜雲)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니 계곡보다 깊고 그윽한 역사를 가진 도량입니다. 그러나 창건 이후부터 조선중기까지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조선 현종 3년(1662)에 화재를 입었으나 중수됐다는 기록과 이후의 간략한 역사가 전할 뿐입니다.


지난 2월 보물로 승격된 명봉사자적선사능운탑이 보호각 안에 모셔져 있다.

하지만 자적선사 홍준(洪俊 882~939) 시대의 명봉사는 내원암과 법화암을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한 때 100여 명의 스님들이 기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무량수전과 좌우의 요사를 새로 지어 단아한 풍모를 이룬 명봉사에는 조선 영조11년(1735)에 세워진 '문종대왕태실비'가 있습니다. 무량수전 옆에 두 기의 비가 서 있는데 왼쪽이 '문종대왕태실비'이고 오른쪽은 명봉사사적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비의 양식이 태실비와 똑같습니다. 원래는 정조 9년(1785)에 세워진 '사도세자태실비'였습니다. 명봉사 뒤편 봉우리에 있던 것을 법당 옆으로 옮긴 것인데 일제강점기 때 그 비면을 깎아내고 사적기를 새겨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의 역사를 새기고자 역사를 지워버린 그 우매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절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자적선사능운탑비'를 친견하러 갑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숲은 어둑합니다. 자적선사능운탑비는 보호각 안에 서 있습니다. 보호각 옆에 서 있는 안내판은 아직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승격 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 옛 명찰을 달고 있으니 하루속히 고쳐야 하겠습니다. 보호각 나무창살 밖에서 비를 살펴봅니다.

귀부는 머리 부분이 사라져버려 허전하기 이를 데 없지만, 몸통 앞쪽의 발톱과 등의 귀갑문은 선명합니다. 귀갑문 속에도 꽃 모양들이 새겨져 있어 조성에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면이 마모되어 앞면의 글씨는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뒤쪽 역시 마모가 심한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니 글자의 형태가 조금씩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읽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수도 화려함과 웅장함을 경계하기라도 한 듯 네 마리의 용이 표현된 것 같은데 그리 분명한 형상은 아닙니다. 가운데 제액의 자리도 마모가 심해 글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돌이 마모된 탑비지만 그 존재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물론 비에 새겨졌던 글자들의 대부분이 판독 가능한 것은 금석학의 선구자들이 탁본을 남겼기 때문인데 〈조선금석총람〉이나 〈한국금석전문〉에 내용이 전합니다. 그 내용들이 1979년에 해독되었는데 이 탑비에 신라말기보다 진척된 양상의 고려 초기 이두문자가 발견됨으로써 탑비의 가치가 두르러지게 된 것입니다.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통해 탑비의 내용을 더듬어 봅니다.

탑비의 비문은 최언위(崔彦撝 868~944)가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언위는 최치원 최승우 등과 함께 당나라에서 유학한 해외파였습니다. 상당한 지식과 문장을 갖춘 이들에게는 '3최'라는 칭호가 따라 붙었다 합니다.

최치원이 화려한 수사적 기교를 자랑하는 사륙변려체를 구사하며 사산비명(四山碑銘)을 썼다면, 최언위는 사실적인 내용들을 담담하게 기록한 당대 고승들의 비문 10여 점을 남겼습니다. 소백산 비로암 '진공대사보법탑비'와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사자산 흥녕사(법흥사) '징효대사보인탑비' 등이 그의 문장입니다.

비문은 '허공은 형상이 없고 불성은 생멸이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뒤의 몇 글자가 마멸되었고 '이러한 진여를 생각하여 모든 실성(實性)을 터득할 수 있으니, 마치 색이 곧 색이 아니고, 공 또한 공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겠다. 중생의 망녕된 생각이 마치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줄 오인하는 것이고 명(名)이란 오직 거짓된 이름일 뿐이니 흡사 신기루와 같다'고 이어집니다. 반야의 세계를 초탈한 도인의 생애를 그려나가는 장중한 서곡인 것입니다.

비문에 의하면 자적 선사는 학문을 숭상하는 지방 호족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글공부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출가하여 구산선문의 하나인 창원 봉림사에서 진경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봉림가풍을 전수한 자적선사는 전국의 명산과 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도량을 길렀고 많은 선지식을 탐방하여 지혜를 넓혔습니다. 고려가 개국한 뒤 태조의 존경을 받아 개성 송악산의 귀산사(龜山寺) 선원에 회상을 열어 제방의 납자들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올 때와 갈 때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빠름과 늦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적선사는 신라와 고려 두 나라를 살면서 중생들에게 '미혹한 것으로부터 반성하게 하며 빈손으로 가서는 가득히 얻어서 돌아가게 했다'고 하니 그 끊임없는 수행으로 증득한 지혜를 널리 회향했던 것입니다. 태조 22년(939) 10월 1일 귀산선원 법당에서 세속 나이 58세 승납 48세로 입적했는데, 비문은 '돌아가신 모습은 살아 있는 것 같았고 과일 같은 입술은 마치 말을 하고 있는 듯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문에서는 '그 달 6일에 문인(門人) 등이 영구를 메고 명봉산의 북쪽 산기슭에 임시로 가장(假葬)하였다'는 구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태조가 입적 소식을 듣고 애석해 하면서 시호를 '자적선사', 탑명을 '능운지탑'이라고 추증했다는 대목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귀산선원에서 입적하여 경북 예천 땅 명봉산으로 법구를 이운해 가장했다는 것이므로 자적선사의 부도 또한 명봉산에 세워졌을 것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명봉사에는 자적선사의 부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오면서 그 자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삼성각 앞에 팔각의 기단석과 팔각 탑신석 그리고 옥개석이 놓여 있는데 온전한 모습이라면 제법 기품이 있는 부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봉사 주지 희광(希光) 스님에 따르면 이 부도의 부재들은 명봉사 옆 계곡 법화암 자리에서 발굴된 것인데 주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적선사의 것으로 추정한 학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산선문이 활기를 더하던 시기에 경청선원이었고 자적선사가 머물렀던 큰 도량의 역사가 너무도 깊이 묻혀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빗돌에는 비문의 본문 외에 음기(陰記)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서 이두 표기의 한 예를 읽어 봅니다. 음기는 이 비문이 도평성에서 승도들에게 내린 행정 양식을 갖춘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즉, '飾矣啓以僧矣段 赤牙射山中親處○元聞 爲成造爲內臥乎亦在之'라는 문장에서 쓰인 矣는 '-의' '-으로'를 矣段은 '-윗단' 으로 '-은'과 같은 의미, 爲는 '?', 爲內臥乎亦在之는 '하였는 일이오'로 각각 해석되는 이두식 표현입니다. 이 밖에도 乙(을) 矣(의) 乙良(으란) 必于(비록) 爲去乃(하거나) 등의 이두식 표현들이 읽혀집니다.

자적선사능운탑비가 담고 있는 이두문자의 국어사적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 산재(散在)하는 스승들의 탑비가 갖는 문화사적 가치도 높다 하겠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문명을 전하는 하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명봉사 삼성각 앞에 놓인 부도의 부재들.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다.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 음 태 교 -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비를 드리워 관음태교를 부촉하시다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만현 큰스님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잘 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

현지사의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깊은 삼매 속에 들었을 때에, '정법명왕불〈佛〉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법화경 보문품의 부처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거듭 거듭 경전상의 관음태교를 널리 보급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유태인과 일본인들의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의 이면에는 그들의 선진국형 자력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佛果)를 이루신 현지사의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창하신 관음태교를 실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머지 않아 세계 일류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정법명왕부처님)께서 직접 현신하시어 당신의 크신 우주적 위신력으로 아기 영혼체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줌은 물론 소멸까지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로 이끌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음태교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자력 태교법과도 견줄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최상의 타력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는 정법명왕불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태교법입니다. 우리 조국인 미래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를 이끌어 갈 동량을 낳을 수 있는 관음태교법을 5억의 세계 불자님들께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세계적 인재인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개월간의 태교기간은 출산 후 평생에 걸친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의 건강과 인성, 상당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관점에 있어서도 태교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아이의 영혼체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게 되고 임신 기간 동안 영혼체의 업이 태아의 육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태교는 이미 어머니의 몸 안에 잉태된 태아에 대하여, 재능을 계발하고 안정된 성품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음태교는 태아에게 반영된 업을 정화하여 재능과 품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유입될 악업을 영체의 단계에서 소멸하여 태아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신 전에 우수한 지능, 건강, 복덕을 갖춘 훌륭한 성품의 영혼체가 어머니와 인연을 맺게 할 수도 있어 세상의 그 어떤 태교보다 가장 본질적인 방법의 태교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촉하신 관음태교에 따라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 나라의 동량이 될 훌륭한 대통령도 낳을 수 있고, 노벨상을 받거나 세계의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갈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문을 빛내고 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세계적인 영재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비 · 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 · 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각3시간씩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전화접수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정 규 수 업 -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도현스님, 남전스님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특 강 -

◆관음태교사례(-관음태교로 아기를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덕산스님 특강(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윤윤수(의학박사)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산모건강체조 -이영미(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문 의 :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8>

무심(無心)이 곧 부처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목전의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당 속의 것이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유형의 부처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곧 마음이다."
학승이 말했다.
"곧 마음이라고 해도 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무심(無心)이다."
학승이 말했다.
"유심과 무심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유심이나 무심은 모두 네가 선택하는 거야. 달리 노승의 지시는 필요 없어."

問 如何是目前佛
師云 殿裡底
云 者箇是相貌佛 如何是佛
師云 卽心是
云 卽心猶是限量 如何是佛
師云 無心是
學云 有心無心還許學人揀也無
師云 有心無心總被你揀了也 更教老僧道什麼卽得

무심이 부처라는 말은 이미 잘 알려진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런 줄 알아야 한다. 깨달음과 아는 것의 차이는 어떤 사실에 대해 깨달으면 정말 그렇다고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냥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되어 뇌에 저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식은 중요한 순간에 잊어버린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잊어버리고, 슬픔이 일어날 때 잊어버린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무심이 나의 본래 마음이고 참 부처임을 깨달은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슬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무심이 부처임을 깨달은 사람은 유심과 무심을 다 사용한다. 유심이 필요하다면 유심을 사용하고 무심이 필요하면 무심을 사용한다. 나와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한다. 세상의 온갖 고통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부른다.

깨달은 사람은 삼라만상이 곧 부처인 것을 안다. 산, 나무, 물, 대지, 공기 등. 우주와 자연은 그대로 부처이다. 스스로 우주이고 스스로 자연이다.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에 맞는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간다. 모든 부처가 그러했듯이.

학승이 물었다.
"멀리서 스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나의 가풍이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말씀하지 않는다해도 사해(四海=사방)로부터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바다이지만 나는 바다가 아니야."
학승이 물었다.
"바다 속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삼라만상이 곧 부처인 것을 알아
진리의 정점은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통해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의 낚시에 한 마리가 걸렸어."

問 遠遠投師 未審家風如何
師云 不說似人
學云 爲什麼不說似人
師云 是我家風
學云 和尙旣不說似人 爭奈四海來投
師云 你是海我不是海
學云 未審海內事如何
師云 老僧釣得一箇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주선의 묘미이다. 독자들은 조주 스님이 수많은 말을 하지만 말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 조주 선사의 뜻을 알겠는가. 이것을 안 다면 선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다.

바다는 중생계를 비유한 말이다. "그대는 바다이지만 나는 바다가 아니야"라는 말은 그대는 중생계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즉,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도 나는 중생이 될 수 없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승이 가풍을 묻던 주제에서 벗어나 돌연 "사바세계를 어떻게 보십니까?"하고 사바세계에 관한 질문을 했다. 가풍에 대한 말미에 "잘 알겠습니다"라는 식으로라도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다른 주제를 들고 나오는 학승에게 "그렇게 주제를 잃고 말에 따라다니다가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 꼴이 되고 말아"하고 일침을 준 것이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항상 그렇게 유혹당하면서 사는 것 밖에 더 뭐가 있겠어" 라는 식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법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들은 적이 없는 법문은 우선 놔두고 자네는 이제까지 무엇을 들어왔는가?"

問 作何方便卽得聞於未聞
師云 未聞且置 你曾聞箇什麼來

불교는 말할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곳을 알라고 강조한다.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왜 굳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진리의 정점은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항상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말과 명칭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의미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말과 명칭이 진실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말과 명칭과 생각에서 진실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진실은 항상 저변에 있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말과 명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그곳이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을 안고 출가한 학승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법문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네가 이제까지 들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음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잘 생각해보라. 상반되는 이쪽과 저쪽은 서로 맞물려있다. 이쪽을 안다면 저쪽을 알고 저쪽을 알면 이쪽도 알게 돼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각종 진리를 다 버려보아라. 그런 다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거기 남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쪽의 소식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⑲ 진헐청료선사어록

깨침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진헐의 어록으로는 〈진헐청료선사어록(眞歇淸了禪師語錄)〉과 〈진주장로요화상겁외록(眞州長蘆了和尙劫外錄)〉〈만속장 소재〉, 〈진헐요선사어(眞歇了禪師語)〉〈속개고존숙어요〉 수록)가 전한다. 곧 진헐청료(眞歇淸了: 1088~1151)의 상당법어와 〈신심명〉에 대한 염어(拈語)를 모은 것이다. 진헐청료는 조동종의 법맥을 계승한 선사로서 단하자순의 문하에서 굉지정각과 동문수학했다. 때문에 스승인 단하자순과 동문인 굉지정각과 더불어 조동종의 교의를 계승하고 그 수행방법으로서 묵조선법을 주창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헐의 휘는 청료(淸了)이고 도호(道號)는 진헐(眞歇)이다. 이 도호는 선종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도호이다. 진헐이라는 말은 자신을 지칭한 말이고, 또한 자가의 종풍을 가리킨 말이다.

진헐은 진정한 휴헐(休歇)로서 참된 깨침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묵조의 묵을 진정한 휴헐로 교묘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진헐의 속성은 옹(雍)씨로서 11세에 출가하고, 19세 때 구족계를 받고 성도의 대자사에서 〈원각경〉〈금강경〉〈기신론〉 등을 배웠다. 또한 아미산에 올라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이후에 단하산의 자순선사에게 참문해 공겁이전의 자기라는 문답을 통해 깨쳤다. 36세 때 사법하고 이후로 겁외(劫外)의 가풍을 진작해 묵조선법을 크게 일으켰다. 또한 당시에 간화선을 주창했던 대혜종고가 진헐의 선법에 대해 가했던 묵조선 비판이라는 사실은 간화선과 묵조선의 상호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수행산거(修行山居)50X65cm 2007 봄, 한지수묵담채, 담원 김창배 작.

진헐청료의 어록은 그의 '탑명'에 의하면 두 가지가 세상에 유행했다고 한다. 하나는 〈겁외록〉으로서 만속장경에 현존하고, 다른 하나는 설봉산 주지시절의 어록인 〈일장록(一掌錄)〉 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겁외록〉은 진헐의 1128년 6월에 장로산을 물러난 41세 이전까지의 기록이다. 그리고 〈일장록〉은 43세부터 48세까지 설봉산에서 주지를 했는데 47세 2월 이전까지의 기록이다. 진헐의 선법은 〈겁외록〉 이라는 명칭이 보여주고 있듯이 겁외라는 말로 가장 잘 대변된다. 겁외라는 말은 송대 조동종풍을 표방하고 전승해 온 대표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겁외의 종풍은 세계가 성립하기 이전, 그리고 분별의식이 생기기 이전, 곧 위음나반 · 공겁이전의 소식을 곧바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한다. 겁외의 소식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로 조용히 앉아 좌선하는 모습을 찬탄한 노래로서 진헐의 나이 36세 때에 쓴 '선화계묘연좌자찬' 의 내용이 있다.

삼십 육년 동안 허둥바둥/이 육신에 집착하여 왔네/일천 칠백 명의 납자들은/곧 그것에 속아 버렸다네//이제 그 허상을 끊고나니/삼천대천세계 무너진다네/겁외선풍일랑 까마득하니/허공 알록달록 장식말라.

진헐청료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장로산 설봉산 아육왕산 용상사 경산 숭산현효선사 등 여섯 곳인데, 이 가운데 최초의 장로산에서의 설법만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록이다. 여기에서 진헐은 깨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을 크게 강조해 묵조선법의 사상을 현창했다.

"현성공안은 남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과 나 자신이 곧 현성공안이다.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고, 소리와 색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며, 움직임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고, 말하는 것과 침묵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다. 그러니 일용사의 견문각지가 그대로 현성공안의 순수진리 아님이 없다."

현성공안이란 진리가 본래부터 어떤 조작도 없이 있는 그대로 완성돼 있고 나아가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성공안의 강조는 진헐의 상당법어 뿐만 아니라 기타의 〈신심명염고〉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 유형에 있어서도 활계(活計)의 현성, 임운(任運)의 현성, 밀밀(密密)의 현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 진여법계에 나와 남이 없고, 숨음과 드러남이 동체이며, 능과 소의 분별이 모두 사라지고, 높고 낮음에 두루 비쳐 일용사에 끝이 없는 모습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법으로써 법을 듣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하는 것도 곧 자신이 법을 듣고 자신이 마음을 구하는 것이어서 불법의 작용 아님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단하자순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증(本證)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헐은 "피부를 탈락하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를 마치 높이 떠오른 태양처럼 밝게 비추어 지금 이 곳 면전에 적나나(赤裸裸) 적쇄쇄(赤灑灑)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을 평상심이라 한다"고 말한다. 진헐은 참으로 오직 깨침의 자각을 위한 좌선수행에 진지하게 매진했던 선사이다. 진헐에게서 불조의 등불은 동서로 이어져 오면서 깨침을 법칙으로 삼기에 오직 깨달음으로만 상응한다. 이것을 진헐은 조동의 종지로 전해 더욱더 심화시켰다. 그 모습은 마치 북소리와 노래가 어울리고 정(正)과 편(偏)이 열린 관계로 작용한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제28회 까규 기원 대법회 안내

인류의 평화와 행복, 환경 보호를 위한 까규파의 기원 대법회가 인도 보드가야 대탑에서 열립니다. 제 **17대 까르마빠 존자님**과 전 세계 까규파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올리는 신심나는 세상에 한국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제 1대 까르마빠께서 태어나신 지 탄생 900 주년 행사와 법문과 관정 등의 법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 -
12월 8일 ~9일 : 900주년 오픈 행사
12월 10일~12일 : "보리도등론" 법문
12월 13일 : 구루린 뽀체 관정식
12월 15일~22일 : 까규 기원대법회(까규뮌람)

- 구체적 일정과 경비는 참석 인원과 비행기좌석 사정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 예상 일정 : 12월 5일 ~ 12월 23일
- 예상 경비 : 200만원 정도
- 11월 5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로 가는길 070-8680-4177 김정기
■ 인 도 : 91-98053-28423 정공스님
■ www.kagyumonlam.org

입 종 안 내

和諍平和中央敎院
現代佛敎曹溪宗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 정진해 갈 승려, 법사, 포교사의 무루 동참을 바랍니다.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입종자격 : **승려, 재가법사, 재가포교사**
◆ 구비서류 : **종단 입종신청서 양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 사진 3장**
◆ 문 의 처 : 동화스님(총무원 보광사 주지, 총무원장)
011-769-0300
보광사 전화 042)283-5896
팩스 042)283-5894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 보광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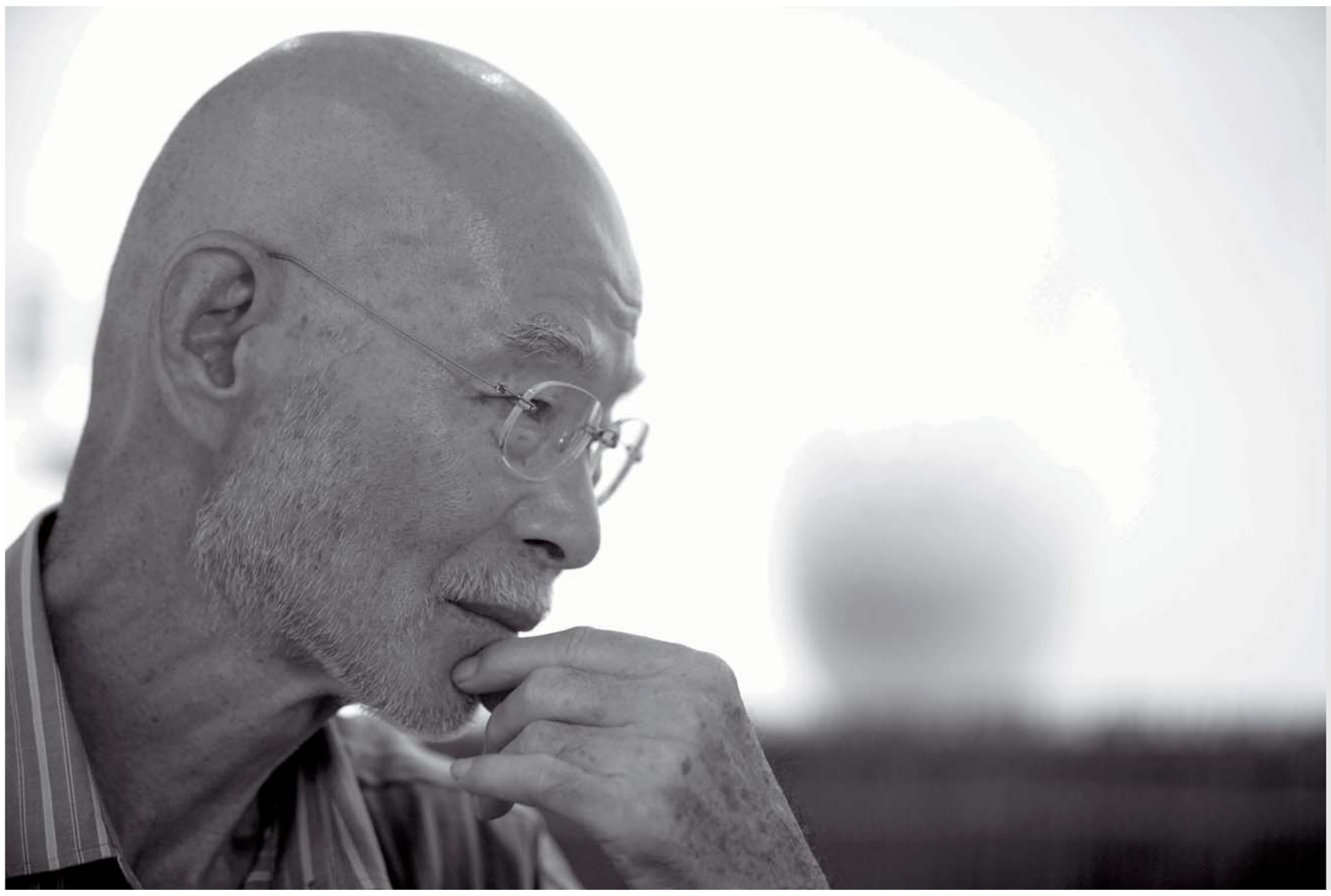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흙이 자신을 살라 〈自身〉 자기로 나투듯이 〈磁器〉

/ 도예가 지헌 김기철

우리는 법정 스님을 뵈었을까?

깨달음을 얻고 사르나트로 가던 붓다와 만난 아지비카교 수행자 우파카는 붓다에게 묻는다. "당신 모습은 맑고 환하게 빛납니다. 당신은 누구 가르침을 따릅니까?" 붓다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서 벗어났으며 그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고 부르리오"하고 자신이 붓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우파카는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요"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린다.

우리는 '본다'는 말을 '눈으로 보다'로 여긴다. 참말일까? '장 보러 간다'에서 '보다'는 물건을 둘러보고(視覺), 만져보고(觸覺), 냄새맡고(嗅覺), 맛보고(味覺), 귀로 듣는(聽覺) 걸 모두 아우른다. 이처럼 '본다'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오감五感은 물론 육감六感까지 두루하는 통섭通涉이다.

붓다와 우파카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파카는 붓다한테서 나오는 기운을 느꼈지만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비롯된다'는 상식에 얽매여 본디 지닌 느낌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붓다를 봤지만 붓다를 보지 못했다. 본다는 건 온몸으로 만나는 일이다.

지난 3월 열반에 드신 법정 스님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모든 장례절차를 마다하고 입던 옷 그대로 평상에 누워 불에 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법정 스님을 뵈었을까?

글 변택주 맑고향기롭게 前 이사 / 사진 이종승 사진작가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여름날, 곤지암에 있는 '보원요'로 도예가 지헌知軒 김기철선생(78)을 찾았다. 79년, 법정 스님이 펴낸 수필집 〈서 있는 사람〉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지헌 선생은 스님이 다기茶器를 구하려고 인사동엘 가셨다가 쓸 만한 건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사고 되돌아오셨다는 내용을 보고, 스님을 잘 안다는 이웃에게 "스님께 다기를 한 벌 드리고 싶다."고 했다. 얼마 뒤 법정 스님과 첫 만남. 그리고 서른 해. 지헌 선생과 부인 본자연本自然 보살에게 법정 스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지헌: 저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예법도 잘 몰라요. 여태껏 법정 스님한테 합장을 하고 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날마다 산에 가서 합장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 해 동안 연습했지만, 어색하고 쑥스러워 스님 앞에서 한 번도 합장하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이 오셨어도 단 한 번도 불교를 믿으라든지 절에 나오라든가 하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스님은 한 마디로 경계가 없고 폭이 넓은 분이셨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드리면 늘 해결책을 주셨죠. 스님도 사람인지라 함부로 털어놓기 어려운, 이런저런 속사정을 털어놓곤 하셨어요. 오시면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웃고, 또 웃으셨어요. 우리 밥이 참 맛있다고 늘 많이 잡수셨죠. 참 좋은 인연인데, 아휴~ 그냥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본자연: 누구나 그렇지만 저희도 스님 책을 통해서 스님을 뵈었습니다. 방학 때면 식구들이 다 같이 불일암에 가서 며칠씩, 스님과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밤에는 다실에 올라가서 차 마시고 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요. 다들 스님을 가까이하기 어려워하는데, 저희는 스님을 그냥 아저씨랄까. 버릇없이 보일만큼 스스럼이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 부부 금혼식을 맞아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스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 한켠이 허전한 게 영 서운했어요.

지헌: 우리는 삼남매를 두었는데 규호는 남달리 장난이 심해 걱정을 좀 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규호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그러셨겠지만, 규호가 가장 덕성스럽다고 하셨죠.

본자연: 저희 딸은 집안 식구들이 반대하는 프랑스 유학을 스님 도움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사진을 배우고 나서 세 얻어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들이 보게끔 첫 전시회를 열었어요. 한 20년 전쯤 되나? 꽤 오래전 일인데. 그때 프랑스에 가신 스님이 일부러 딸이 사는 곳을 찾아오셔서 전시를 보시고는 한 말씀 적어놓고 가셨어요. "미현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고. 올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딸아이가 전화를 했더군요. 사진을 정리하다가 스님이 써놓으신 글을 다시 보게 됐는데 새삼 콧등이 시리고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그릇 쓰임새는 그릇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차가 담기지 않은 찻잔은 가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차나 찻잔일지라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빛을 잃는다.

"이번에 나온 연잎 茶器 아주 좋습니다. 차관과 숙우, 찻잔 그리고 퇴수 그릇까지 하나하나 만지고 바라볼수록 정이 갑니다. 물레를 돌려 만든, 판에 박은 제품이 아니고 정성을 기울여 낱낱이 손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만든 이 인품이 배어 있습니다. 천연스런 때깔도 빼어나고 연잎을 닮은 숙우와 찻잔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차는 좋은 그릇을 만나야 비로소 그 차가 지닌 빛과 향기와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茶器는 차를 마시고 싶게 합니다. 좋은 다기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잘 쓰겠습니다. 남은 봄철 두루 淸安하십시오.

–2001. 4. 19 아침 새 다기를 매만지며 法頂 합장"

–법정 스님은 지헌선생이 빚은 찻잔으로 차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입술에 닿는 이 느낌이 마음에 쏙 들어서 꼭 이 찻잔만 써요." 비결이 뭘까?

지헌: 글쎄 비결이랄 건 없구요. 요즘은 대개 가스를 쓰고 전기 물레를 써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손으로 빚어 용가마에다가 소나무를 때서 자기를 구우니까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늘 "때깔이 좋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꽃을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꽃을 키웠어요. 그 인연으로 잎이나 꽃에 담긴 기운이 내 속에 스며들었다가 도자기를 빚을 때 손끝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처럼 알게 모르게 스님에게 받은 좋은 기운이 선으로 빛깔로 드러났을 거예요. 스님은 찻잔 굽이 약간 밖으로 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다고. 어느 해 겨울, 법정 스님을 모셔서 다기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숙우熟盂가 완벽하게 균형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연잎이 말린 느낌을 살려 우리 태극무늬 곡선을 재현했죠. 스님이 보시곤 "아,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법정 찻잔'이에요. 먼저 백 벌쯤 만들어 구웠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한 이십 벌이나 나왔을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스님께 드렸어요. 디자인 값을 그렇게 치룬 셈이죠.

–지헌 선생 솜씨는 남다르다. 도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 댁 가마에서 도자기를 빚던 도예과 학생 손에 이끌려 참여한 공간대상에서 덜컥 대상을 차지할 만큼. 그때 심사를 주관했던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꽃잎을 모티베이션한 이 작품을 불수감佛手柑이라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부처님 손같이 생겼다고 붙인 이름. 이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들 두루 다니면서 우리 솜씨를 빛냈다. 지헌 선생 작품은 현대미술관은 물론 대영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달력에 실린 12점, 백남준을 비롯한 빼어난 내 · 외 거장들 작품 가운데 선생 작품이 들었다.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본 사람이라면 그 규모에 압도당한다. 규모만 놓고 보면 자금성이 경복궁을 압도한다. 하지만 우리 경복궁은 뒤로 감싸 도는 인왕산, 북악산과 어우러져 그대로 그림이 된다. 완당阮堂이 말했다. '대교약졸大巧若拙' 큰 재주는 약해 보인다고. 절대미감은 개체에서 전체로 나가는 길이다.

지헌: 요즘 절들이 불사를 벌이면서 조화로운 본디 모습을 많이 잃었어요. 그나마 송광사가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송광사 대웅전을 새로 지을 때 스님은 그렇게 지으면 조화가 깨진다고 반대하셨어요. 여러 해 전 유럽 환경잡지를 본 적이 있어요. 송광사 전각 지붕선 연결이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데 대웅전이 우뚝 솟아 안타깝다는 글이 실린 걸 보면서 법정 스님 말씀이 떠올랐죠. 이 작업장은 1988년에 지어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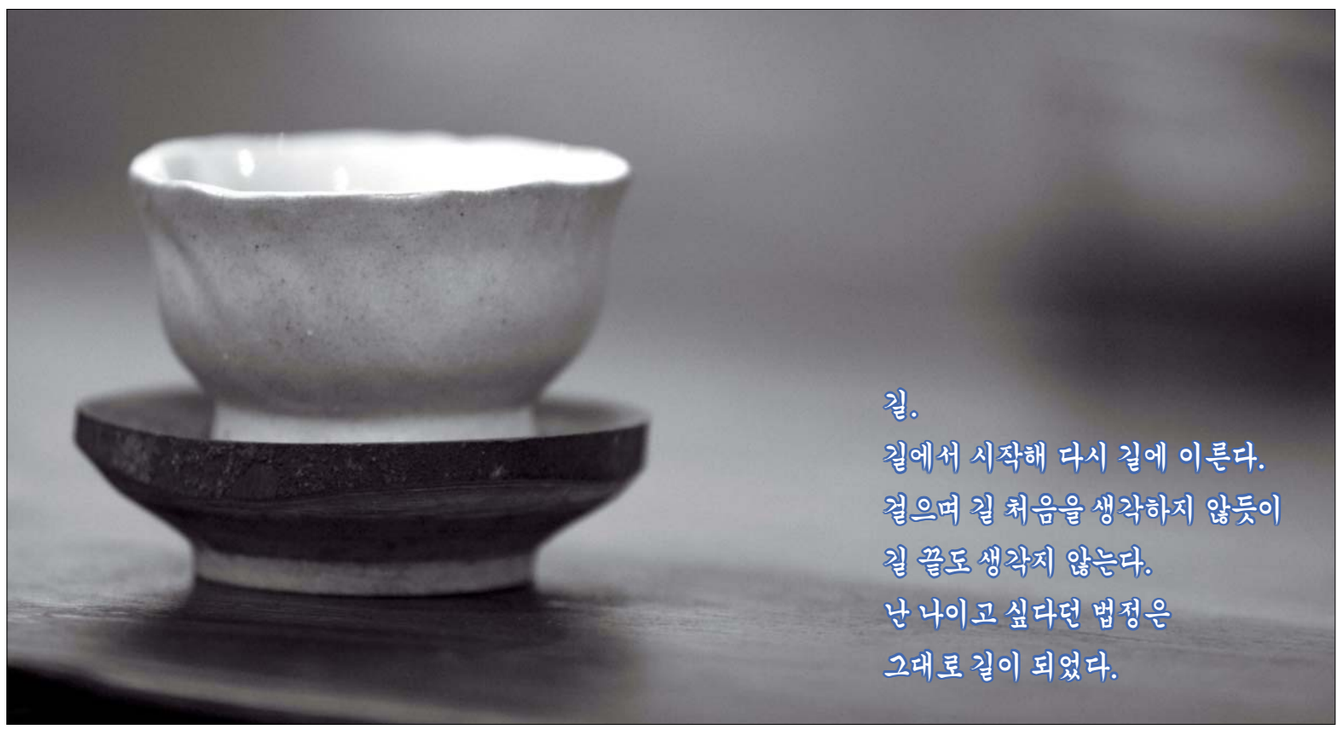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절대미감 갖춘 분이셨어요”



완공했는데 마침 완공한 날 스님이 오셨어요. 집을 둘러보시고는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서까래 끝에 못을 박아서 풍경을 달았는데 “못 끝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현관에 섬돌을 놓고, 뒤 곁에 바싹 붙은 나무들을 쳐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과연 스님 말씀대로 못 끝을 가리고, 섬돌도 놓고, 뒤 곁에 나무를 쳐내 깔끔히 정리하고 나니 집이 안온해지더군요. 그게 쉽겠어요? 절대미감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흙이 자신自身을 살라 자기磁器로 나투듯이, 흙이 좋아 흙에든 지헌선생 삶을 투영한 글이 법정 스님 손을 거쳐 세상에 고개를 내밀어 고고성呱呱聲을 울렸다.

지헌: 스님이 오시면 늘 그동안 쓴 글을 보자고 하셨어요. 집사람이 그걸 조곤조곤 읽으면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곤 했죠. 제가 환갑 때 스님이 “김선생, 이제 그만큼 했으면 수필집을 하나 묶는 게 어떻겠어요?” 하시더군요. 어이쿠, 무슨 말씀이냐며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스님이 원고뭉치를 가져다가 샘터사에 주셨어요. 그 바람에 〈꽃은 흙에서 핀다〉가 출간됐어요.(1993) 스님이 그렇게 비릿하고 구차한 소리를 하신 건 아마 전에 없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헌 선생 글은 꼭지마다 선생 성격 그대로 진솔한 삶이 생생히 녹아들어 생기가 넘친다. 나그네들이 오래도록 선생을 귀찮게 구는 동안 부인 본자연 보살은 넓은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 바람은 저 혼자 바람일 수 없다. 움직임이 바람이다. 소리 또한 그와 같아서, 나 아닌 다른 무엇에 부딪치고 너와 내가 비벼대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소리가 된다.

본자연: 스님 글을 보거나,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걸 스님도 같이 느끼시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스님도 참 좋아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한테 책이나 음악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저희 또한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면 스님께 알려드렸어요. 한 번은 쾰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전기 〈나의 기쁨과 슬픔, 파블로 카잘스〉를 소개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글로 쓰셨더라고요. 그 뒤에 ‘내가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이란 헬렌 켈러 수필을 보내드렸더니 신문 칼럼에 쓰셨어요. 스님한테 책을 보내드리면 좋은 책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구나 싶어 헬렌 니어링이 쓴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도 보내드렸죠. 또 김종철씨가 펴낸 환경잡지 〈녹색평론〉은 창간 전에 우전 신호열선생한테 소개를 받아 창간호부터 추천해드렸더니, 스님이 말씀하실 때 많이 참고하셨어요.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특히 좋아하셨지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는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꼭 한 번 읽고 보라고 권하셨던 책으로 나그네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

노을이 진다. 나무와 바람과 물에도 결이 있다

사람결은 뭘까? 목숨을 주고받으며 만드는 숨결이다

지란지교芝蘭之交,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이르는 말이라던가?

본자연: 이 양반은(지헌 선생을 가리키며) 그전에는 거의 길상사엘 가지 않았어요. 저만 스님 법회 때 갔었죠. 그러다가 편찮으실 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스님이 길상사에 오실 때는 부부가 함께 갔어요. 스님이 돌아가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묻고 또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 입적 뒤 지헌 김기철 선생 부부 길상사 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저녁노을이 장엄하게 지는 서산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야! 멋지다. 사진 찍어야지.”하며 감탄을 한다. 이 사람은 사물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지금 해가 지는구나. 그런데 해가 왜 지지? 붉은 노을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하곤 고개를 갸웃거린다. 눈과 머리로 보는 사람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서있다. 이 사람은 지는 해와 내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너무 벅차서 그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바라보는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 우주에는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건축가 승효상은 나무에 결이 있고 바람이나 물에 결이 있듯이 땅에도 결(地紋)이 있다고 했다. 하물며 사람에게 결이 없겠는가. 사람 결은 뭘까? 목숨을 주고받으며 만드는 숨결이다.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8

고야산 시코쿠 순례길의 주인공
“실상 이해하지 못한 삶은 헤매임”

진언밀교의 조사 쿠카이(空海)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수 십 개의 순례문화 전통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하나가 1400여 km의 시코쿠(四國) 88개소 영장순례이다. 연간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 순례는 시코쿠 섬 일대에 산재한 홍법대사 쿠카이(空海, 774~835)와 관련된 사찰을 수 십일을 걸어서 도는 것이다. 전설에는 시코쿠가 고향인 쿠카이가 42세의 액년(厄年)에 이 사찰들을 개창했다고 전해진다. 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이 이 순례를 통해 신앙의 숭고한 세계에 몰입, 자신과 세상을 잊음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하고 새로운 현실로 돌아온다.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 순례를 통해 심신을 치유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러한 생활종교 형태의 모습들은 민중신앙의 한 형태인 대사신앙, 즉 쿠카이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믿음은 고야산(高野山)에서 주석하고 열반한 쿠카이가 중국에서 배워 온 토목사업과 교육교화 활동이 민중들에게 널리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신은 진언밀교가 전하는 신비성과 대중성, 보편종합성에서 발현됐다. 밀교의 비의(秘儀)를 통해 모든 사상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며, 개유불성과 즉신성불의 교학적 권위 위에 구제종교로서의 대승정신을 확립한 쿠카이에 대한 신앙이 대중적 순례문화로 증폭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에도 쿠카이가 입정상태에서 고야산에 생존한다고 믿고 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고야산 순례길은 이러한 쿠카이를 찾아나서는 길이기도 하다.

고대 전반기 국가의 통제 아래 제종을 연구하는 학단을 형성했던 전통이 후반기로 내려오면서 종합불교의 성격을 띤 천태와 밀교가 등장한다. 전자는 사이쵸(最澄), 후자는 쿠카이에 의해서였다. 쿠카이는 18살 때, 대학에 들어가 중국의 여러 학문을 공부하다가 불교에 뜻을 두어 퇴학했다. 나라(奈良)의 여러 대사찰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24세 때에 유·불·도의 우열을 논한 〈삼교지귀(三敎指歸)〉를 저술했다. 그 후 〈대일경〉을 보고 밀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31세 때인 804년에는, 이 때만해도 아직은 면식이 없었던 사이쵸와 더불어 견당선을 타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의 여러 사원에서 가르침을 받고, 불공(不空), 선무외(善無畏), 현초(玄超)의 법맥을 이은 청룡사의 혜과(惠果)로부터 진언밀교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경론, 만다라, 법구 등을 구해 2년 만에 귀국했다. 왕실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나라 동대사에 밀교의식을 행하는 관정도량을 만들고, 고야산에 진언종 총본산인 콘고부지(金剛峰寺)를 건립했다. 더불어 쿄토에 토지(東寺)를 부여받아 진언밀교 전문도량으로 만들었다. 그는 여기에 서민을 위한 최초의 종합교육학교인 종예종지원(綜藝種智院)을 세웠다.

쿠카이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 중 〈비밀만다라십주심론(秘密曼荼羅十住心論)〉 10권과 이의 요약본인 〈비장보약(秘藏寶鑰)〉 3권은 보살심 발현의 과정을 인간 성장 단계와 비교해 10종의 단계로 분류한 뒤, 각 종을 단계별로 두고 최상위에 밀교가 위치하고 있음을 설한 종합교리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최저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10단계로 나눴다. 이를 단계별로 세간의 3가지 주심(住心), 소승의 2승(乘) 주심, 대승의 법상, 삼론, 천태, 화엄의 주심, 마지막 10심으로는 진언종의 비밀장엄의 주심으로 배치해 앞의 9심은 현교로 마지막 일심은 밀교로 교상판석한 것에 의해 밀교우위를 주장했다. 이러한 쿠카이의 근본사상은 〈변현밀이교론(辨顯密二敎論)〉, 〈즉신성불의(卽身成佛義)〉, 〈성자실상의(聲字實相義)〉 등을 통해 즉신성불사상으로 통합됐고, 진언종의 교학체계 확립에 이르렀다.

쿠카이의 사후 진언종은 밀교 수행 작법인 사상(事相)과 교의적인 면인 교상(敎相)의 각파로 나뉘어 발전했다. 위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하고, 아래로는 민중의 운명을 의탁 받는 주술적인 면으로도 확산돼 갔다.

무엇보다 쿠카이의 정신은 우리들 중생심의 청정심에서 드러난 부처의 지혜와 덕을 통한 무한한 신통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세계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쿠카이는 “신농씨는 아픈 이를 불쌍히 여겨 초목의 맛을 보고 약초를 만들었다. 주공 단(旦)은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지남침을 만들어 가르쳤다. 미혹의 세계에서 미친 사람은 미친 것을 모른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와도 같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태어남을 반복해 생의 처음이 어둡고, 죽음 또한 거듭돼 죽음의 끝도 어둡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실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말·사상·행동은 모두 헤매임이며 유희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자신의 현실과 삶이 그렇지 않을까.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인 콘고부지의 주전(主殿)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신비 가득한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경전은 법사리

〈法舍利〉

한국미술사연구소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를 주제로 제36회 미술사강좌를 열고 있다. 9~12월 매주 월요일 모두 12강을 통해 신비 가득한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의 세계를 여행한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무덤임과 동시에 불교도들에겐 숭배의 대상이다. 탑 안에는 사리공(舍利孔)을 만들어 사리를 봉안했으며, 사리를 보호하거나 장엄하기 위해 사리기와 사리장엄구를 안치했다. 10월 18일 진행된 5강에서는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이 사리장엄의 정점을 이루었던 '통일신라 사리장엄'을 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리가 처음 들어온 549년을 기점으로 진신사리(眞身舍利), 변신(變身)사리, 법신(法身)사리 등 다양한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사리장엄구들이 제작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리장엄구는 당시의 최대의 정성과 기술적 역량을 동원해 제작한 뛰어난 작품이 많다. 최 관장은 불국사 금동제 사리외함을 걸작으로 꼽았다. 최 관장은 또 경전을 법신사리라 해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말했다.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

팔만사천 탑에 사리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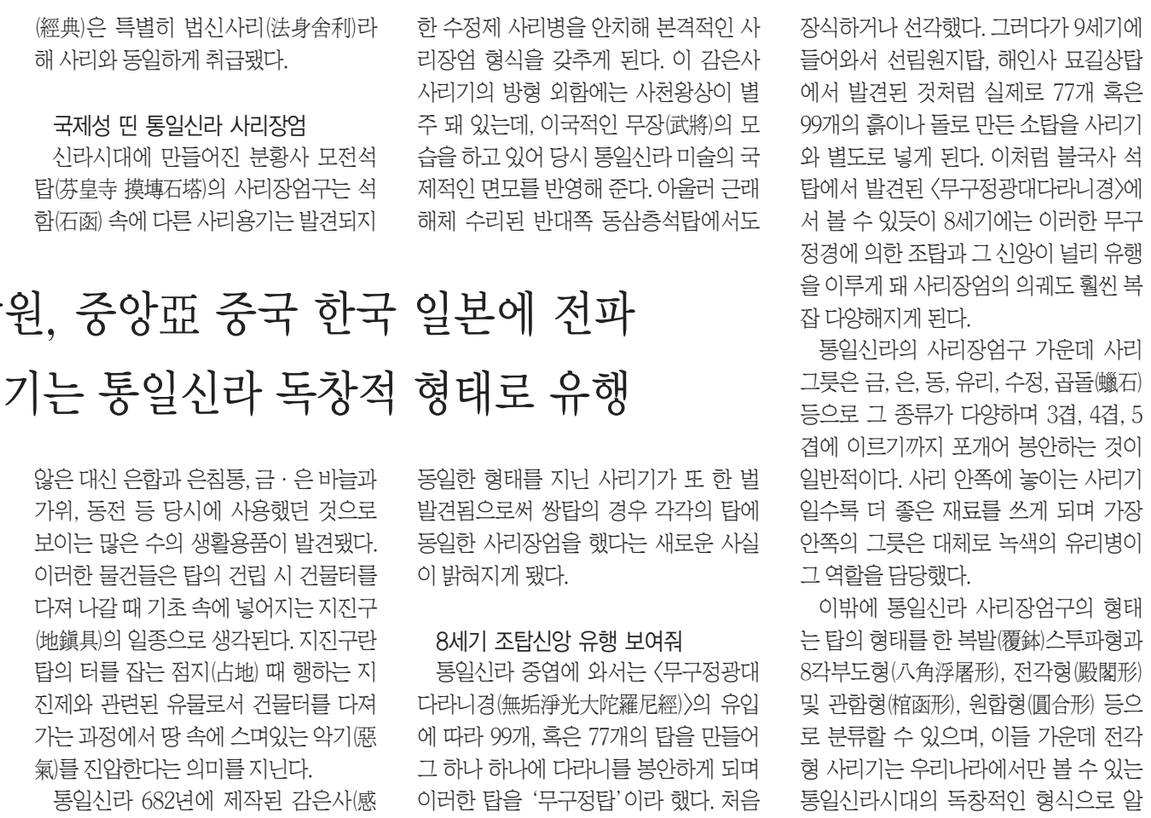
석가모니가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서 열반에 들자, 자기 영내에서 돌아가셨다 해 마르타족이 쿠시나가라에 탑을 세우고 공양하려 하자 주변의 여덟 부족이 달려와 사리를 나누어 주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여덟 개로 분리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여덟 개의 탑을 세웠으나 한 바라문은 사리의 양을 달았던 병을 고향에 가지고 가 병탑(甁塔)을 세웠고 다시 늦게 달려온 한 부족은 사리 분배가 다 끝남에 따라 재를 가지고 돌아와 회탑(灰塔)을 세워 모두 10개의 탑이 건립됐다.

아쇼카왕 대에 이르면 이 여덟 개의 불사리탑 가운데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탑을 열어 전국에 팔만사천개의 탑을 건립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러한 사리는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에 까지 퍼져나가 수많은 탑이 세워지게 된다. 이처럼 탑이란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무덤인 점에 자연히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탑의 재질이 돌이나 흙, 나무 등에 관계없이 탑의 심초석(心礎石)이나 기단부(基壇部), 또는 1층의 옥개(屋蓋) 및 옥신(屋身) 등에 사리공(舍利孔)을 만들어 이곳에 반드시 사리를 봉안했으며, 이러한 사리를 보호하거나 장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리기와 그에 관련된 사리장엄구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경전을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

우리나라에 사리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549년으로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심호(沈湖)를 통해 신라 진흥왕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신라의 자장법사는 선덕왕 12년(643년)에 부처의 두골과 불아(佛牙), 불사리 1백과 및 부처가 입던 비라금점가사(緋羅金點袈裟) 한 벌을 가져와 황룡사 구층탑, 태화탑(太和塔)과 통도사 계단(戒壇)의 3곳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중국을 통해 들여온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해 탑을 세우고자 했으나 금방 그 수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모래, 수정, 보석류와 같은 광물로 사리를 대용한 변신사리(變身舍利)나 법신사리가 널리 쓰이게 됐다. 특히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경전(經典)은 특별히 법신사리(法身舍利)라 해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됐다.



불국사 금동제사리외함(국보126) :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할 당시 탑 안에 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유물들과 함께 발견됐다. 안정된 각부 비례와 정제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사리함 중에서 가장 세련된 작품이다.

국제성 띤 통일신라 사리장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분황사 모전석탑(芬皇寺 摸塼石塔)의 사리장엄구는 석함(石函) 속에 다른 사리용기는 발견되지 않은 대신 은합과 은침통, 금 · 은 바늘과 가위, 동전 등 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수의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이러한 물건들은 탑의 건립 시 건물터를 다져 나갈 때 기초 속에 넣어지는 지진구(地鎭具)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지진구란 탑의 터를 잡는 점지(占地) 때 행하는 지진제와 관련된 유물로서 건물터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땅 속에 스며있는 악기(惡氣)를 진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통일신라 682년에 제작된 감은사(感恩寺) 서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상자형의 청동외함과 전각형의 내함, 그리고 이 내함 위에는 은마개를 투각 장식한 수정제 사리병을 안치해 본격적인 사리장엄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 감은사 사리기의 방형 외함에는 사천왕상이 별주 돼 있는데, 이국적인 무장(武將)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시 통일신라 미술의 국제적인 면모를 반영해 준다. 아울러 근래 해체 수리된 반대쪽 동삼층석탑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지닌 사리기가 또 한 벌 발견됨으로써 쌍탑의 경우 각각의 탑에 동일한 사리장엄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8세기 조탑신앙 유행 보여줘

통일신라 중엽에 와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유입에 따라 99개, 혹은 77개의 탑을 만들어 그 하나 하나에 다라니를 봉안하게 되며 이러한 탑을 '무구정탑'이라 했다. 처음에는 황복사탑 청동외함이나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금동원합처럼 사리기 외면에 99기의 탑을 점선(點線)으로 돌출장식하거나 선각했다. 그러다가 9세기에 들어와서 선림원지탑, 해인사 묘길상탑에서 발견된 것처럼 실제로 77개 혹은 99개의 흙이나 돌로 만든 소탑을 사리기와 별도로 넣게 된다. 이처럼 불국사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볼 수 있듯이 8세기에는 이러한 무구정경에 의한 조탑과 그 신앙이 널리 유행을 이루게 돼 사리장엄의 의궤도 훨씬 복잡 다양해지게 된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 가운데 사리 그릇은 금, 은, 동, 유리, 수정, 곱돌(蠟石)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며 3겹, 4겹, 5겹에 이르기까지 포개어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리 안쪽에 놓이는 사리기일수록 더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며 가장 안쪽의 그릇은 대체로 녹색의 유리병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밖에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형태는 탑의 형태를 한 복발(覆鉢)스투파형과 8각부도형(八角浮屠形), 전각형(殿閣形) 및 관함형(棺函形), 원합형(圓合形)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전각형 사리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독창적인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인도에서 발원, 중앙亞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
상여형 사리기는 통일신라 독창적 형태로 유행

⦿ 우리나라 사리장엄의 특징

사리병 시대에 따라 유리-수정-청자-백자

우리나라의 사리장엄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돼 왔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리를 모신 가장 내부의 용기는 대체로 유리병을 많이 썼으며 가장 바깥은 석함인 경우가 많다. 둘째, 사리 용기를 중첩하는 순서는 대체로 유리 · 수정-금-은-돌의 순서로서 이는 인도와 같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통일신라의 상여형(가마형) 사리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형태로서 크게 유행을 이루다가 고려시대에 일부 다시 나타난다. 넷째, 통일신라 후반기에 납석제의 외호가 크게 유행을 이룬다. 다섯째, 신사리와 법사리가 함께 봉안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신사리가 주축을 이루며 고려초기부터 불상의 봉안도 크게 늘어난다.

여섯째, 고려 말과 조선초에 외래양식을 받은 라마탑형의 사리기가 일부 유행하며 이중 혹은 삼중의 금속제 원통형합이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만들어진다. 일곱째, 통일신라의 유리제 사리병 대신 고려 때에는 수정제가 많아지며 외호로서 청자를, 조선시대에는 백자를 많이 썼다. 여덟째, 사리 용기는 한 벌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두 벌인 경우도 있으며, 감은사 석탑에서 같이 동 · 서 양 탑에 동일한 사리를 넣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지게 됐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사리장엄구는 당시에 있어서도 최대의 정성과 기술적 역량을 동원해 제작된 뛰어난 작품이 많다. 아울러 이곳에는 제작과 관련된 제작 조성연기(造成緣起)와 제작시기 등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한국 금속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유리병.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요절복통 여래네 집

#31. 오늘의 운세



스튜디오 돌

여래 엄마의 하루 시작은 전쟁을 치루는 병사처럼 바쁩니다.



식구들이 각자 갈 길을 가고나면 으레 엄마가 하는 일은 몇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나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답니다.



무가지 내용 중에서 엄마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건 무가지별 오늘의 운세를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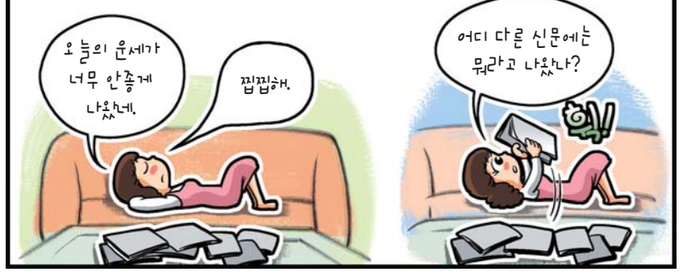
엄마는 유독 오늘의 운세가 잘 맞는 신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문에 운세가 좋지 않게 나와있으면 다른 신문에 기대를 걸지요.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게 써 있는 게 하나 걸리게 마련이지요. 왜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가 다 다르게 쓰여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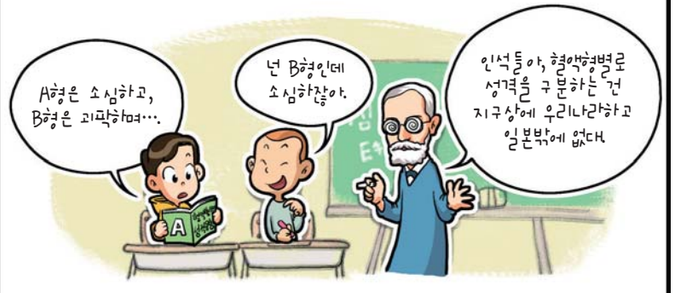
문득 엄마는 학창시절 화투로 사람 점을 봐주던 한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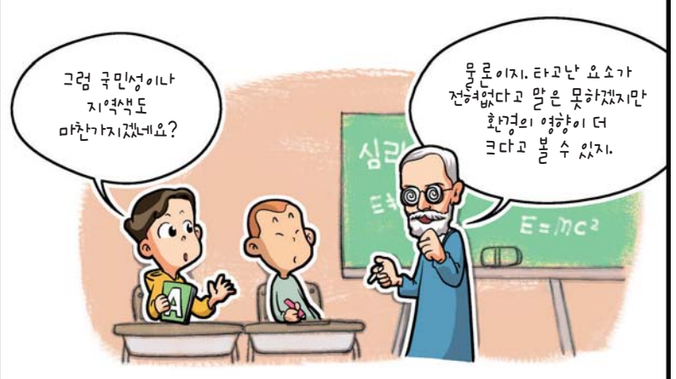
과연 그 선배의 화투점에는 정말로 엄마의 속마음이 나와있던 걸까요?



사람들의 이런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오늘의 운세나 화투점에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섞여있게 마련인데 나약한 인간이 어떤 말을 들으면 자꾸만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믿게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더 점이나 별자리, 운세, 운명 등을 신봉하게 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지요?

의심나면 한번 주의를 둘러보세요.



그런데 그런줄 알면서도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보고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고, 나쁘게 나오면 찝찝해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주일의 화두

어제는 지나간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이다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하루를
살아야 한다

— 벽암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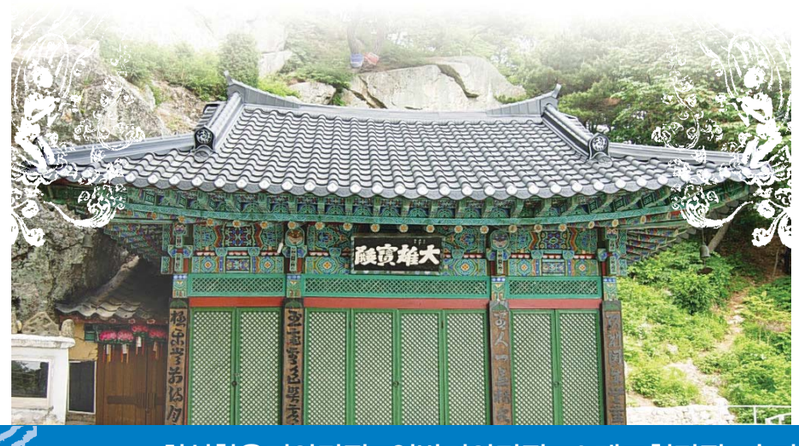


BUDDHIST ASSOCIATION OF BUSAN
불기2554년
제2회 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행사일시 2010.10. 30(토) 09:00 ~ 12:00
집결장소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옆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참가신청 불자 : 각 사찰에서 일괄접수
시민 : 당일 현장 접수 (선착순 500명)
참 가 비 무료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빵 음료 제공)
참가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867-0501~3_www.bba.or.kr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861-8801_www.baob.kr
경품내역 자전거, 전자제품, 건강식품, 호텔숙박권, 뷔페식사권, 영화관람권 등

주 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후 원 범어사, 삼광사, 안국선원, 미룡사, 대일체불교 유법사,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협 찬 (주)고려화공, 대우산업, 대원플러스건설, (주)디와이테크, (주)DSE,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 종로금속, H.S캐미칼, 천호식품, 태금정, 코모도호텔, 한국한의원, 흥우산업 (가나다 순)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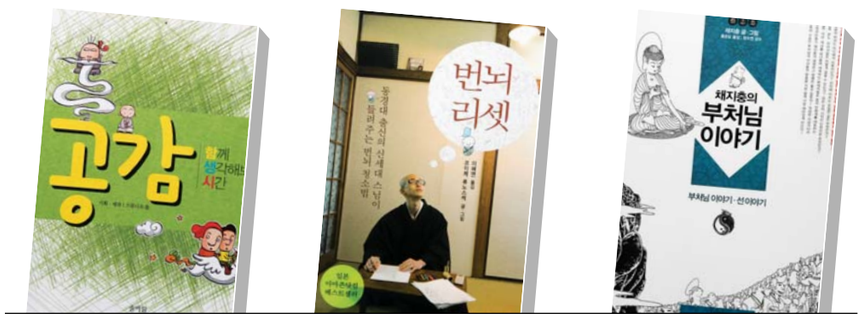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교, 만화와 만나 낄낄대다

눈길 끄는 '공감' '번뇌 리셋' '부처님 이야기'



인터넷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쉽게 만화를 접하고 있다. 인터넷 만화인 웹툰(webtoon)의 경우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교계 출판시장에도 만화를 접목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 내용을 담은 서적들은 대부분 한자가 많이 섞여 있거나,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 읽는데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공감〉〈번뇌리셋〉〈부처님 이야기 · 불교경전 이야기〉는 만화를 통해 불교의 내용을 함축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세 권의 중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을 고르라면 우선 〈공감〉이다. 불교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일상의 이치를 짤막한 만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생각의 쉼터를 마련해 주며,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책은 읽는 순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책은 단숨에 읽기보다 생각이 날 때 마다 한 번씩 꺼내 조금씩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들이다. 80편 이야기들은 그마다의 교훈을 담고 있어 만화적 재미와 인생의 이치를 함께 공감하게 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세상은 좋은 말이 없어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말은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짧은 만화로 인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번뇌 리셋〉은 만화 설법이다. 도쿄의 게쯔도쿠지의 주지로 있는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가출공간(http://iede.cc/)'에 직접 그린 만화 에세이를 올리게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알려지게 됐다.

평소 연필과 색연필을 이용해 만화를 그리면서 불교에 대해 이야기 해온 스님의 설법은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게 만든다. 스님이 그린 네 컷짜리 만화는 설명이 따로 없어도 불교의 근본 주제인 마음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단순히 만화만 즐겨 봐도 좋고, 책의 중간 중간에 덧붙여진 마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책장을 넘겨도 좋다. 번뇌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초보불자라면 개념 잡기에 좋은 책이다.

본격적으로 부처님과 불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지충의 부처님 이야기 · 불교경전 이야기〉를 추천한다. 저자인 채지충은 대만의 국민 만화가이다. 수십 년간 공자 · 맹자 · 손자 등 어려운 중국 고전을 쉬운 만화로 풀어 소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세계 40여 국에 그의 책이 소개되며, 동양 사상을 전파하는데 힘썼다. 채지충의 대표작인 〈장자 이야기〉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채용될 만큼 완성도가 뛰어나다.

그는 11년에 걸쳐 〈법구경〉〈반야심경〉〈육조단경〉〈부처님 이야기〉〈선 이야기〉 등 불교 만화 시리즈를 발간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정식 계약이 되지 않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계기로 해 채지충의 불교만화를 볼 수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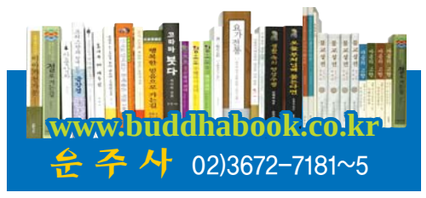
• 공감|스튜디오 돌 제작|솔바람 펴냄|1만2000원
• 번뇌리셋|코이케 류노스케 글 · 그림|이혜연 옮김|불광출판사 펴냄|1만3800원
• 채지충의 부처님 이야기 · 채지충의 불교 경전 이야기|채지충 글 · 그림|홍수도 옮김|김영사 펴냄|2권 각 1만6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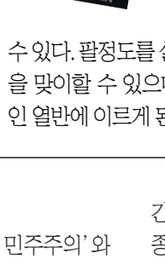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정천주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불교신문사
4	솔잎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금강 외	마음의 숲
6	완역 티베트사자의 서	중암	정우서적
7	사는 즐거움	보경	뜰
8	붓다 브레인	릭 헨슨	불광출판사
9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하얀연꽃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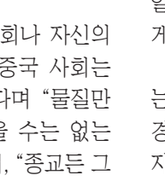
신간 도서

할!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있어났도다



저자인 월호 스님은 성품은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봐야 하며, 마음은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월호 스님은 조선후기 청허 휴정 스님의 대표 저작인 〈선가귀감〉을 불교 공부하는 이들의 자세와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해설했다. 삶이 절대 신이나 부처의 소유물이 아님을 거듭 역설하며 스스로를 다듬을 수 있다는 월호 스님의 말은 무언가에 의지하려고만 하는 현대인의 해이해진 영혼에 일침을 가한다. 월호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3000원

붓다 이야기



해탈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독'이 된다. 그리고 이 길은 상당한 수행 위에서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자는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진 상태로, 해탈의 다른 이름이다. 붓다는 이들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모두를 놓아버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영섭 지음|학고방 펴냄|1만원

윤회와 행복한 죽음



업과 윤회, 연기의 가르침을 여러 초기경전과 아비담마, 그리고 〈청정도론〉에 바탕해 윤회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윤회의 원리와 구조를 분명히 이해하면 어떤 삶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고 어떤 삶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바른 견해를 확립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인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일묵 지음|이솔 펴냄 |1만3000원

윤남진 리뷰


'중국의 내일을…' 문정인 지음


'미국의 정치문명' 권용립 지음

G2사이에 낀 동아시아 종교의 미래
보편종교 신념 제공하는 방법 제시

미국과 중국, 이들이 바로 오늘날 G2다. 유럽은 늙었고, 일본은 길을 잃었고, 인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태어난 이상 이 두 나라를 잘 알지 않고는 우리자신의 미래를 슬기롭게 개척하기 어렵다. 그것이 단지 경제력나 군사력, 지식파워나 인재파워 같은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바탕이 되는 내면적 가치관, 그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 지형은 미국의 종교 동향과 중국의 종교 정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적 교파와 한국 교회의 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불교의 활용과 같은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해도 누구나 쉽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문명〉은 한 편의 학술논문인데, 저자는 미국 정치의 주요 이념적 배경에 대해 공화주의, 자유주의, 퓨리터니즘(청교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종교적 전통은 퓨리터니즘인데 이는 캘빈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캘빈주의는 제네바에서 캘빈이 직접 실행한 신정일치 즉 신정정치와 천년왕국사상이 요체다. 제네바에서의 신정정치는 근자에 한국 개신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시화운동'의 역사적 모델이며, 따라서 '성시화운동'은 자연스럽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다른 한편 천년왕국사상은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관념을 낳았는데, 미국에서는 퓨리턴이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미국 정치와 외교에서의 선민의식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윌슨의 메시아니즘, 케네디의 '뉴프런티어 정신', 존슨의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 레이건의 '악의 제국', 부시의 '악의 축'과 같은 정치적 언술을 예로 들며 이 배경에 퓨리터니즘이라는 종교적 차원이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의 내일을 묻다〉는 금년 8월에 간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이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중국의 대표적 이론가, 전략가 20여 명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짜여 있다. 화평굴기론, 중국굴기론, 천하세계론, 책임대국론 등이 실린 제1부가 단연 눈길을 잡는다.

저자는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왜 많은 사람들은 화평굴기를 대국굴기나 중국위협론과 동일시하는가? 왜 화평 발전이라면 될 것을 굴기라고 하였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으로 첫 번째 인터뷰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 화평굴기론의 주창자는 '화평굴기는 대내적 조화와 대외적 평화라는 기조 아래 중국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국가전략이며, 화평굴기를 위협적 행보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즉답한다.

한 40대 이론가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서구적 가치와 함께 '조화, 인, 의' 같은 아시아적 가치도 동시에 수용되어야 한다며,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천하세계의 입장에서 천하세계를 보아야 한다'(以天下觀天下)고 도덕경 54장을 인용한다.

또 다른 학자는 어느 사회나 자신의 가치관이 있기 마련인데 중국 사회는 아직 이러한 가치관이 없다며 "물질만능주의를 가치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개탄하면서, "종교든 그 무엇이든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라고 실토하기도 한다. 중국 앞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미국, 그러면서도 미국 없는 동아시아를 희망하고 미국을 넘어 '천하세계'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국 지식인의 고심이 읽혀진다.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치와 종교 간에 분리의 벽을 두고 있는 제도 하에서 종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국가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관과 종교적 집합체험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종파적 정체성과 종파적 가치관을 넘어서는 보편종교적 또는 시민종교적 신념과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값어치 있는 대답을 얻게 해준다.

중국의 이론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논어, 순자와 같은 유가 경전이나 도덕경 등 도가경전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의 사상과 이론으로부터 세계보편의 가치로 삼을 만한 동아시아적 가치를 현실 실천이론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체계에서의 꽃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작동되는 이론과 실천, 그것의 배경이 될 만한 어떤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와 방법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현실, 그 단면을 보는 듯하다.





올해 주제로 선정된 책들. 왼쪽부터 이종묵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우리 한시를 읽다',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의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목수 이상현의 '즐거운 한옥 읽기, 즐거운 한옥 짓기', 곤충학박사 정부희의 '곤충의 밥상', 박대헌 호산방 대표의 '고서이야기', 장현갑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의 '붓다브레인', 허달 한국코칭센터 리더코치의 '마중물의 힘'.

글로 못한 얘기 만나서 채운다

저자와 만나 평화 · 한시 · 한옥 · 곤충 · 고서 · 뇌과학 토론

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바쁜 직장인들에 인기…매월 1회

10월 19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띤 강좌가 펼쳐졌다.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피곤한 모습 따윈 찾아 볼 수 없다.

지적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문화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함유할 수 있는 문화 강좌는 특정 대상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더 인기가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 불교진흥원은 매월 1회 책 한권을 정해 책의 저자와 직접 만나는 '화요 열린 강좌'를 열고 있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9시. 이 강좌는 불자뿐만 아니라 인문학, 동양학 등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책의 저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도 업무가 끝난 후, 부담 없이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강좌의 매력이다.

2009년부터 매달 실시해 온 '화요 열린 강좌'는 지금까지 28개의 강좌가 진행됐다. 연인원 1500여 명이 이 강좌에 참여했다. 주제와 책은 주로 현재의 삶을 담은 내용이나, 시대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책들로 선정한다. 강좌는 저자의 강연을 듣고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자가 책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책에 못다 한 이야기, 책과 연관된 주제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알려준다. 강의 말미에는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한다.

불교진흥원 공익사업팀 고영인 차장은 "불교계에서 첫 시도하는 강좌니 만큼 처음에는 부담도 많았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의외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씨는 "인문학 강좌이기 때문에 불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불교정신을 함양하고 있는 테마를 선정해 강좌를 열고 있다"며 "주로 심리학, 생태, 철학 등 인문학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마 선정은 흐름이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사회에서 지향해야할 가치를 찾는데 중점을 둬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좌에는 내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40~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규모 강좌로 시작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평균 50~60명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을 보고 강좌에 처음 참석한 직장인 임주민씨는 "직장인들이 시간 내기 좋은 저녁시간에 강좌를 진행 하니 좋다"며 "책을 읽어보고 오진 않았지만, 저자가 짧은 시간 안에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니 좋다.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화요 열린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대신 3천원의 보시를 받고 있다. 보시는 연말에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02)719-2606 이은정 기자

지금 아니면 다시 볼 수 없는 '수월관음도'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불화대전' 11월 21일까지



수월관음도

은은한 녹색 물방울 모양의 광배 안에 한 손을 들어 버들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우아하고 늘씬한 관음보살. 일명 '물방울 관음'이라고도 불리는 센소지 소장의 '수월관음도'가 700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일본에서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수월관음도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고려불화대전-700년 만의 해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11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 소장된 고려불화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고려불화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108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 소재 고려불화 27점, 미국 · 유럽 소재 고려불화 15점, 국내 소재 고려불화 19점 등과 더불어 중국 및 일본 불화 20점, 고려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 불화 5점, 고려시대 불상과 공예품 22점이 전시된다.

특히 센소지 소장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네즈미술관 소장 '지장보살도', 오타카지 소장 '과경16관변상도'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이 상당수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고려불화 중에서도 부처를 주존으로 그린 '깨달음의 존재, 부처', 불교신도들에게 친근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주제로 한 '중생의 구제자, 보살', 고려 1235~6년에 그려진 오백나한도의 연작 '수행자의 모습, 나한', 고려불화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중국과 일본의 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웃나라의 불보살'로 구성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배영일 학예연구사는 "고려불화는 워낙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여러 점을 소장한 경우가 드물다"며 "이번 전시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44개 처에 달하는 국내 · 외 소장처와 협의해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 주요 출품 기관은 삼성미술관 리움,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을 비롯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보스턴미술관, 프랑스의 기메박물관, 독일의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박물관 등이다.

배 연구사는 "고려불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예술품으로 손꼽힌다"며 "섬세하고 단아한 형태, 원색을 주조로 한 화려한 색채화 호화로운 금니, 흐르는 듯 유려하면서도 힘 있는 선묘 등 당시 고려는 동아시아의 독보적인 미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고려불교의 정신과 고려인들의 숨결을 함축한 고려시대의 문화상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평생 다시 만나기 어려운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문화 단신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막바지 가을공연 한창



'100일간의 승무이야기'가 봄, 여름에 이어 100일을 마무리 지을 가을 공연을 시작했다. 11월 21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짧은 기간만 진행하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관객들과 새롭게 만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는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만큼 춤꾼의 손동작 하나 하나, 악사들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가을 공연도 첫 공연을 그러했듯, 마지막 공연 또한 조계사 대웅전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02)747-5035

선진 스님 '점심' 개인전



'똥단지'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설치미술을 선보여 왔던 선진 스님이 11월 2~7일 대구동구문화체육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9점의 설치미술품이 전시되며, '점심(點心)'이란 주제로 일심(一心)과 비움, 연민을 말한다.

선진 스님은 "간화선을 조형언어로 표현해, 오탁악세(五濁惡世)에 신음하는 현세의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성찰과 참구(參究)로 비움과 연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053)767-0274

광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그림대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11월 1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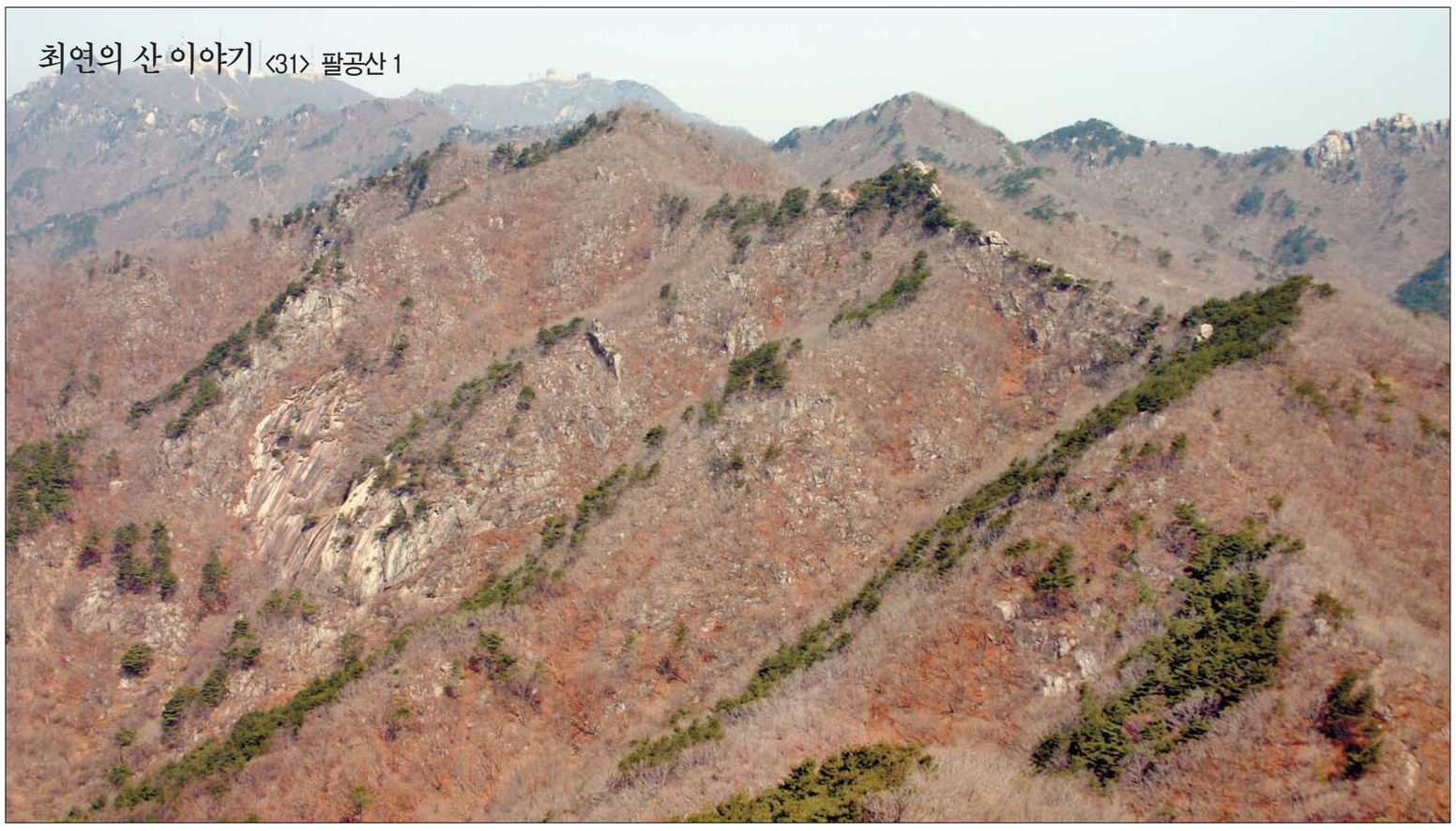
그리기 대회는 광주 · 전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4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인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오랜 시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화재그리기 대회를 통해 우리 역사와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062-570-700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연의 산 이야기 <31> 팔공산 1



팔공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멀리 비로봉엔 송신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팔공산은 나라의 기강 세울 인물을 기른다

팔공산(八公山)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사이에 우뚝 솟은 하나의 산맥군(山脈群)이다. 동쪽 끝의 관봉(冠峰, 일명 갓바위)으로부터 동봉(東峰, 1155m), 염불봉(念佛峰, 1121m), 주봉인 비로봉(毘盧峰, 1192m), 서봉(西峰, 1041m), 신령재(993m), 파계봉(把溪峰, 991m), 가산(架山, 901.6m)에 이르기까지 1000m를 오르내리는 여러 봉우리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30여 km나 이어져 있으니 과시 '팔공산맥(八公山脈)'이라고 할만하다.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鎭山)으로 신라시대에는 대구를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佛城), 대구(大丘) 등으로 불렀는데 이때부터 영험이 있는 명산으로 일컬어져 왔다. 팔공산의 신라 때 이름은 신라의 오악 중 중악(中嶽)에 해당되는 부악(父岳)으로 동수산(桐藪山), 공산(公山)으로도 불리었다.

오악사상은(五嶽思想)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중국에서는 태고시대부터 제왕(帝王)은 오행(五行)의 운행에 의해 등극한다는 설을 좇아서 나라 안에 동악 태산(泰山), 서악 화산(華山), 중악 숭산(嵩山), 남악 형산(衡山), 북악 항산(恒山)의 다섯 진산(鎭山)인 오악을 정해놓고 해마다 2월과 8월에 그곳에 나가 성대한 제사를 베풀었다. 제왕의 만수무강과 왕조의 무궁한 계승 그리고 국태민안을 위해서였다.

이렇듯 신격화된 오악사상은 갓 산의 종찰(宗刹)에서는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부적을 만들어 일반백성들에게 시주를 받고 팔기도 했다. 그 액땜의 내용은, 동악의 부적은 장수, 서악의 부적은 전쟁을 피하게 하고, 중악의 부적은 재물을 많이 얻고, 남악의 부적은 상해와 화재를 당하지 않고, 북악의 부적은 물난리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오악사상을 본떠서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부터 나라 안에 5악을 정하고 매년 봄, 가을에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 신라는 동 토함산(吐含山), 서 계룡산(鷄龍山), 중앙 부악(父岳), 남 지리산(智異山), 북 태백산(太白山)을 오악으로 했다. 고려와 조선은 동 금강산(金剛山), 서 묘향산(妙香山), 중앙 삼각산(三角山), 남 지리산(智異山), 북 백두산(白頭山)을 오악으로 정했다.

부악 또는 공산으로 불리던 산이 팔공산으로 바뀌게 된 데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927년 후백제의 왕 견훤이 신라의 서울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왕족 김부를 경순왕으로 세웠다. 이 때 전리품을 가지고 완주로 개선하는 중에 팔공산 아래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공격을 해왔다. 치열한 전투 끝에 왕건이 대패하고 신숭겸과 김낙 등 8명의 충직한 부하 장수가 전사하였다.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 왕건이 이들을 기리기 위해 격전이 벌어졌던 곳에 사당을 세우고 산의 이름을 8명 장수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팔공산(八公山)으로 불렀다고 한다. 특히 신숭겸은 왕건의 옷을 입고 도망치다가 자신은 잡혀죽고 왕건을 살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팔공산은 중악에 해당하는 신령스러운 산이었기에 치성을 드리면 영험이 있다는 민간신앙의 한 양상이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치성 장소가 갓바위라고도 불리는 관봉(冠峰)과 수태골(受胎)이다.

갓바위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소원성취 한다고 하여 지금은 전국 제일의 입시기도의 메카가 되었고, 수태골에서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반드시 잉태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인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공산은 풍수지리적으로는 '천황제일봉(天皇第一峰)'과 '제산지상(帝産之象)'의 두 형세(形勢)를 이루고 있다고 <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적혀 있다. 다시 말해서 팔공산은 '천황(天皇)' 즉 천자를 상징하는 첫손가락 꼽을 봉우리의 형세(形勢)와 '제왕(帝王)'이 나올 형상(形象)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공산 기슭에서 "성현이 배출되고 공경(公卿)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고, 천백년 영원토록 나라의 기틀과 기강을 다질 훌륭한 인물이 끊이지 않으리라(聖賢輩出公卿林立 千百年扶植國)"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26년간이나 대제학을 지낸 서거정(徐居正)이 자기의 고향인 달구벌 대구의 주변 경승(景勝) 10곳을 시로 읊었는데, '공산에 가득한 눈(公嶺積雪)'을 소개한다.

천길 팔공산 험준한데 公山千丈倚峻層
흰 눈이 가득하니 이슬이 맑다 積雪漫空沆瀣澄
신사 있으니 응당 신령 있는 법 知有神祠靈應在
해마다 정월 초사흘 서설 내려 풍년이 든다 年年三白瑞豊登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옅은 안개가 깔린 날 오후

다가오는 소리가 있다. 긴장하며 귀를 기울인다. 발밑으로 파고드는 소리인가 하여 발 주위를 살폈으나 이상이 없다. 고개 들어 앞을 막아선 나뭇가지들을 보았다.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다래넝쿨에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노란빛의 얼굴에 검버섯 핀 노인이 땅으로 떨어진다. 소나무 가지 위로 머리를 치켜들었던 다래넝쿨이 하늘은 기어이 거머쥐지 못한 채 몸을 흔든다. 어깨 위로도 툭 나뭇잎이 떨어진다. 머리 위를 바라보니 하늘을 가렸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자리를 비우며 하늘길을 열었다.

다시 한 번 바람이 불자 느릅나무 가지에서 잎이 우우수수 떨어진다. 가지는 힘이 없다. 하늘을 찌를 듯 뻗던 기운이 사라졌다. 건듯 건듯 바람이 분다. 나뭇잎들이 땅에 닿는 소리가 들릴듯 말듯 들린다. '트, 티, 투, 다, 트, 틋' 슬쩍 다가오는 바람의 힘조차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가 나를 흔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 작은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다니!

느릅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빈 벌통에 들어온 벌들의 날갯짓은 힘차다. 꿀과 화분을 모아들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겠지. 올 겨울을 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인 벌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20통이 넘던 토종벌은 올 봄의 추위와 애벌레가 썩는 전염병과 말벌과 서양벌들의 침입 등으로 인해 한 통도 남아나지 않았다. 벌통을 치우기도 귀찮아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 중 하나인 느릅나무 아래 벌통으로 벌들이 드나드는 걸 며칠 전에 발견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어디선가 날아들었다. 그나저나 아무리 보아도 겨울을 나긴 힘들 것 같다. 병이 더 이상 돌지 않고 말벌의 공격도 없고 양벌들로부터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모으는 기간이 너무 짧다. 꿀이 풍족한 상태라면 또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햇살 쨍쨍한 날을 만나기가 어렵다.

구름이 낀 하늘은 미간을
잔뜩 찡그린 얼굴이다
박무가 자욱이 깔린 산과 산
사이에서 새도 좀체
날아오르지 못 한다

가만 이렇게 서있을 때가 아니지. 집 뒤 들깨 밭으로 가보았다. 잎이 누릿누릿하고 꼬투리가 거무튀튀하게 변해가는 것이 여기저기 보였다. 베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당장 베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헛간의 낫을 들고 도랑으로 가서 숫돌에 갈았다. 갈다보니 낫자루가 삐거덕 흔들린다. 고정 못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졌다. 수리를 하다보니, 오늘 당장 할 일은 끝물고추 따기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라도 빨리 비닐하우스에 넣어 말려야 한다. 날이 더 추워지면 비닐하우스 안이라고 해도 잘 마르지 않는다. 색이 허옇게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따고서도 이삼 일 뒤에 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젠 언제 된서리가 내릴지 모른다. 된서리가 내린 그날부턴 겨울이다.

구름이 낀 하늘은 미간을 잔뜩 찡그린 얼굴이다. 박무가 자욱이 깔린 산과 산 사이에서 새도 좀체 날아오르지 못 한다. 집 앞 길에 차가 멈추는 소리까지 둔탁하게 들렸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보고 개들이 짖었다. 두 사람은 길 밑 호두나무 아래를 향해 내려갔다. 호두를 따는 모습이 눈에 잡혔다.

"저기요. 그거 임자가 있는 겁니다."

한 마디 했으나 두 남자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손에 닿는 호두 몇 개를 더 딴 뒤에 천천히 길 위로 올라온다. 서둘러 고추 따기에 들어갔다. 다행인지 뭔지, 딸 고추가 얼마 되지 않았다. 짓무르고 벌레 먹고, 그런 저런 것들을 제하니 익은 놈들이 별로 없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고추를 다 따 갈 때는 어둠이 옅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서둘러 고추밭 아래 호두나무 밑을 살펴 떨어진 알을 주웠다. 길 아래로도 내려가 보았으나 눈에 뜐 호두는 한 알 뿐이었다. 아무래도 길에 너무 가깝게 심은 모양이다.

연탄불을 갈고 나니 사방은 이미 깜깜하다.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의 소형 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으며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 유승도 (시인)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 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약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암자 책임있게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청계산 자락
010-5354-8484
070-7769-8484

사찰요양 안내
병고로 요양하실 분,
심신 수양하실 분,
기도하실 분 전화주세요.
054)874-4497
서울에서 포교할 스님 전화주세요

기문둔갑 실전 특강
개업, 영업반, 20년 경력 교수 직강
특별운세 상담 예약중
동방대학원대학교
(대구에서 특강함)
문의처 02) 454-3369
010-7178-870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구함
경관 좋은 산사에서 가족
같이 지내실 분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 성불사
010-8559-4833

공양주 보살님
구 함
▷경남 양산
055)375-0142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 50대 비구입니다
010-8677-127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형편이 어려워 부처님을 못 모시는
스님, 불자님께 은행나무 목불,
지장보살님 좌대 포함, 넉자세치
좌측 도명존자, 우측무득 귀왕 세분,
고급 후불탱화 40평.
어려운 불자님께
조금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010-3650-8481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 (법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마산
011-597-3545

공양주 구함
평생 같이 사실 분
▷65~75세, 건강하신 분
전북 김제
063)543-555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안산지역
010-4180-382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010-9308-991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40~65세이하, 보시금 최상
120만원, 거제 사찰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7169-9878

인연을 찾습니다
저는 만 35세 직업군인입니다.
육군 항공대 조종사 8년차 입니다.
직업군인을 이해하는 본인이나 부모
님이 전화 주십시오.
언제나 환영합니다.(박씨 제외)
▷경남 마산
010-5766-1191
위 장교 보호자 입니다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사 무 직 원 모 집
- 연령 : 30대후반 ~ 40대
- 사이버 대학관련 업무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로 접수
- kksw1666@hanmail.net

(사)한국불교금강선원 02-969-2410

나주 다보사
시민선방 개원
나주 다보사는 우화, 고암, 전강, 금오,
송담 대선사 등 조계종 근대 선지식이
수행정진하셨던 도량입니다.
우화 큰스님 열반 후 30여 년간
단절되었던 선방운영을 새로 부임한
지검선사가 일반 시민을 위해 개원합니다.
• 안 거 정진반 : 10명
• 토요 철야 정진반 : 10명
접수처 : 다보사 (전화 061-334-4201)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학력 : 아무 상관없음(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행법사
● 법 명 : 법운 (김영찬)
● 주 소 : 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1076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규격 가로 7cm 70,000 / 규격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300,000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도심권(급)현대식 사찰



- 위 치 : 충북 충주시 도심에서 5분, IC에서 5분 • 대 지 : 490평, 건 평 : 180평
- 3층건물 : 1층 80평. 대리석 및 원목시공. 2층 80평. 옥돌시공, 3층 20평, 지하 50평
- 기 타 : 마당 연못 30평, 분수 및 폭포시설, 100여 그루의 나무로 조경시설 완벽
  아미타 5미터 대불(좌불), 미륵불 4미터(입불),산신각, 텃밭, 나무 보일러 시설
- 특 징 : 서울기준 1시간 30분 소요, 각방 냉난방시설
- 보 증 금 : 2천 만원 월 90만원. 5년 계약 가능함 / 시설비 : 6천 5백 조정불가 / 양도가 : 12억

043)857-1259 / 010-3789-7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27평
- 요사 : 27평
- 부지 : 26,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680평
- 가액 : 5억 3천

- 위치 : 경북
- 법당 : 50외 1동
- 요사 : 50외 1동
- 부지 : 1000평
- 가액 : 3억 8천
  문화재보유사찰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버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500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텃밭 1500평, 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능)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양시내 중심지 안양역,명학역 도보10분
- 2층 50평(법당,주방,침실 등)
- 전세 : 6천만원 시설비 3천만(시설비포함)
- 삼존불 외 시설완비

010-5495-4678

사찰(급)안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대지 162평, 요사채 37평
-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법당 15평
- 납골공원 대지 18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63)543-555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내 시장부근
- 상가 4층중 3층
- 평수 54평, 관리비 無
- 법당1, 방3, 실내화장실1
- 도심속 최고 위치 A급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55)372-3315

좋은 사찰터.참선터 안내

- 위치: 소백산 자락(영주시에서 부석사 중간) 명당산세(영주시에서 15분 거리)
- 관리지역 및 독립구역 5,300평
- 차량 진입로 포장 및 전기 인입 완료
-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축 가능
- 명당터로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 보신후 결정 요

016-573-2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시장부근
- 상가 4층 중 3층
- 평수 54평, 관리비 無
- 법당1, 방3, 실내화장실1
- 도심속 최고위치 A급
- 가액: 전화 상담후 결정

055)372-3563, 3315
010-2553-88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2층), 주방, 방1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512-6368

포교원 겸 사찰안내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비구니스님,보살님,불자님께

- 위치 : 전주시내
- 대지 65평, 건평33평
- 큰방2, 작은방2, 화장실2 집안조경 잘 되있음
- 가액 : 1억4천(저금리 대출가능)

010-3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사 찰 안 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 서울에서 1시간 소유
- 요사채 50평, 방 5, 산신각목조단청 15평 농장 2천평, 폭포수 용궁 100평
- 백년송 소나무밭 경치 좋음
- 와불산 산기슭에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합니다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5천만원

011-1703-2770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부근
- 부지 530평(종교용지)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10평 (야외화장실, 차고, 창고)
- 가액: 전화상담 후 방문후 결정양도

010-2222-3166/054)338-4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시장부근
- 상가 4층 중 3층
- 평수 54평, 관리비 無
- 법당1, 방3, 실내화장실1
- 도심속 최고위치 A급
- 가액: 전화 상담후 결정

055)372-3563, 3315
010-2553-8827

포교원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2층), 주방, 방1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512-6368

포교원 겸 사찰안내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비구니스님,보살님,불자님께

- 위치 : 전주시내
- 대지 65평, 건평33평
- 큰방2, 작은방2, 화장실2 집안조경 잘 되있음
- 가액 : 1억4천(저금리 대출가능)

010-3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5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사 찰 안 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 서울에서 1시간 소유
- 요사채 50평, 방 5, 산신각목조단청 15평 농장 2천평, 폭포수 용궁 100평
- 백년송 소나무밭 경치 좋음
- 와불산 산기슭에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합니다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5천만원

011-1703-277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합,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36-5557/010-5534-72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소불 108
- 시설: 방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포교원.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전철역 3분거리
- 3층 방5개 • 4층 방 3개, 공양간
- 5층 법당, 각층 40평
- 보증금 : 1,000만원,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최고요지, 최고시설

010-3198-8988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토굴 및 바닷가전원주택지

- 위치 : 포항 북구 월포
- 바다 접한 토굴 및 전원주택지
- 8M 도로 접
- 대지 65평, 건평 22평
- 가액: 8천 5백만원(조정가능)

010-6474-5903
053)981-37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39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사찰터(급)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용산면
- 종교시설 건축 가능함
- 대지, 임야 면적 총 960평
- 합천댐이 보이는 경관 수려함
- 도려변에서 사찰터까지
- 200M 포장되어 차량
- 진입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1-848-2452

사찰 또는 팬션 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자락
- 주변경관이 수려함
- 대지 : 372평
- ㅁ자 한옥 70평
- 사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 350평(주차장부지로 적합))

010-9226-60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2층 33평,법당,종무소,화장실1 3층 방3,화장실2,공양간
- 보증금 1500만원,월75만원 (방문상담환영) 시설비 4700만원 (시설 일체 갖춰져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4504-78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정문 앞
- 3층상가 건물에 2층 법당
- 평수 50평. 방2,주방1,화장실,욕실
- 최고시설, 도심속에 최고위치좋음
- 가액 :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합,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36-5557/010-5534-72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천안시 대흥동
- 평수: 약 38평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방2, 화장실2, 목욕탕
- 보증금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현재 법회중,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41)567-0391

포교원 인수하실분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하철 3번출구 앞 (바로옆 롯데마트에 무료주차 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 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9230-30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구,시장통)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70평) 방2개,공양간,남여화장실
- 도심포교최적지(불교도시)
- 보증금,시설비포함3500만원 (월40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함 오후3시이후 연락바랍니다 (모든 주방용품, 침구일체)

011-212-77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재래시장 앞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
- 대지 105평(텃밭 포함)
- 건평 200평(3층)
- 2층 법당, 주방, 거실,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010-3815-9104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거창 토굴터, 1017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스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 (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등 적지)
- 가액: 10억 (조절가능)

010-3822-4565 (일과 시간)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대지198㎡(332평)
- 평당 40만원
- 큰방20평(정남향), 호원채15평
- 방4,부엌2개,욕실2,화장실4
- 마당넓음,텃밭,태양광설치 (전기세무료)
- 암자토굴가능. 마을끝 높은집

010-9808-1312 (주인직)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1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대지300평)
- 법당 : 40평(대적전,관음,지장전)
- 요사: 약80평(방9,주방,창고)
- 요양원,고시원,종단설립 본산 등 대작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 사찰
- 가액 : 5억

010-9217-49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
- 평수 : 412평 (대지278평, 전134평)
- 법당 24평, 스님채 21평 요사채 36평
- 심야보일러와 심야온수기 완비
- 가액 : 2억

016-9277-0092

사찰(급) 안내

경남 창원 우포늪속 아담한 명당터

- 대지 : 360평(실제사용 600평)
- 법당(조립식 23평)
- 다용도실 23평(단청되어있음)
- 적벽돌 기와 요사채 27평, 황토방 4평, 석탑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 (시설비 답사후상담)

010-6582-2848

암 자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산면
- 종교시설 건축 가능함
- 대지, 임야 면적 총 960평
- 합천댐이 보이는 경관 수려함
- 도려변에서 사찰터까지
- 200M 포장되어 차량
- 진입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임법당
- 가액: 4천 3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73-6886
054)337-78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스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 (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등 적지)
- 가액: 10억 (조절가능)

010-3822-4565 (일과 시간)

사찰(급)안내

- 위치: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큰스님 직
- 은행대출가능 4억가능 4억에 몽땅 인수

011-869-860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0억,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11-419-37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010-3815-9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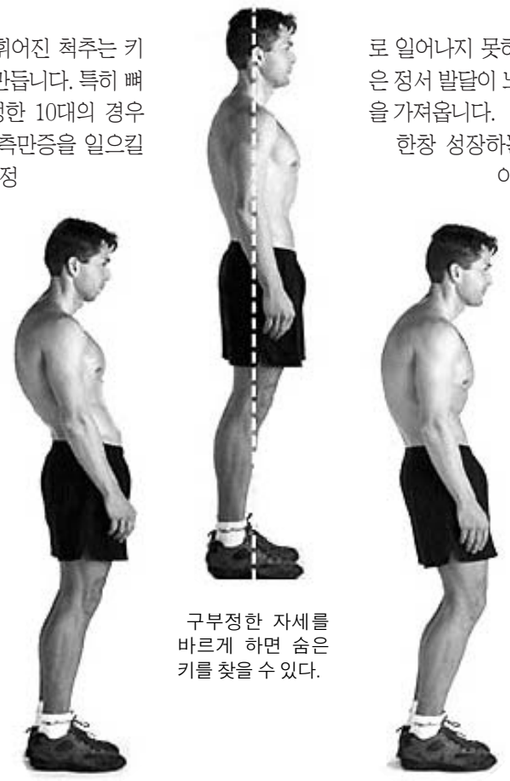


Dr.황의 바른자세 바른생활 ㊵ 숨은 키

굽은 등 휜 다리에 숨은 키 3cm

구부정한 자세와 휘어진 척추는 키를 잘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뼈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10대의 경우 잘못된 자세는 척추측만증을 일으킬 수 있어 바른 자세 교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키가 또래 친구들보다 작다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경우도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 척추측만증, 휜 다리, 골반변형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체형불균형은 키를 더욱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형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학적인 교정시스템을 통해 반듯한 체형으로 만든다면 숨은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바르게 하면 숨은 키를 찾을 수 있다.

성장은 단순히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기의 경우 밤10시~새벽2시 사이에 뇌의 뇌하수체에 있는 성장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이를 통해 무릎, 발목, 골반, 척추, 뼈 등에 있는 연골과 성장판 내 성장세포에 영향을 줘 뼈가 자라고 근육이 성장하게 됩니다. 노랫말 가사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고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하며, 성장판을 자극해 뼈의 성장을 촉진하는 규칙적인 운동, 하루 6~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사고와 자세로 생활하며 스트레스를 조절, 키가 자라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을 조기에 찾아 치료, 뼈들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 자세교정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체중이나 과체중은 키가 자라는데 나쁜 영향을 줌으로 정상체중을 유지,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장이란 성장호르몬과 뼈 성장, 근육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신체 발달, 혹은 정서 발달이 느려져 성장불균형을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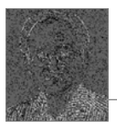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아이들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환경상태를 분석해 키 유전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환경조건을 좋게 하면 성장 유전자의 능력이 증가해 성장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자세교정과 척추를 반듯하게 관리하는 것은 원활한 성장판의 세포분열이 이뤄지도록 만들어 키가 잘 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 뼈의 생리적 만곡상태를 유지하게 해 모든 장기가 튼튼해지고, 성장기에 겪는 많은 근골격 통증이 치유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숨은 키는 성장이 멈춘 후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부정한 체형으로 키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을 교정함으로써 키를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굽은 등이나 휜 다리를 교정하면 2~3㎝정도 길게 보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골반 비틀림, 일자 목, 구부정한 허리, 발 등의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형의 교정을 통해서도 1~2㎝의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 변형은 오래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교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장 시기는 지났다 할지라도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체형이 불균형해져 있는지를 체크하고, 불균형한 자세와 척추를 바르고 곧게 펴주면 숨은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㉘ 40대 건강

운동이 최고 명약… 자가진단 위험

40대의 운동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40대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50대 이후의 인생이 바뀐다. 꼿꼿한 허리로 활기찬 50대를 맞이할 것인가, 구부러진 허리로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느냐의 고비가 40대의 운동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떨어지는 신체활력, 성인병 등은 생존을 위협한다. 잠재된 성인병에 만성피로와 우울증 ·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 돌연사, 과로사로 나타난다.

뼈와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운동은 뼈와 근육 인대를 강화해 각종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과 같은 퇴행성 질병들과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예방한다. 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스트레스를 차단시킨다. 질병의 전성기인 50대를 운동을 통한 골격강화와 신체활력의 회복으로 맞아야 한다.

주치의 정해 이상신호 수시로 점검

40대부터의 운동은 급격한 체력 향상보다 체력 유지와 질병 치료, 그리고 비만 해소를 위한 체중 감소에 초점을 맞춰 규칙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과격한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은 오히려 면역기능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20분가량의 빨리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시작해,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40분 정도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의 구기운동이나, 2~3회의 골프 연습, 또는 수영, 등산, 자전거타기 등이 좋다. 과중한 운동으로 자신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운동의 바탕 위에 자신의 건강 위험인자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음식, 술, 담배, 수면, 업무 등으로 잘못됐던 생활습관을 고쳐나가고,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치료해 나가야 한다. 발병이 단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닌 만큼 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족 주치의를 정해 조그마한 건강 이상신호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주치의에 의한 지속적인 점검만이 오진 예방의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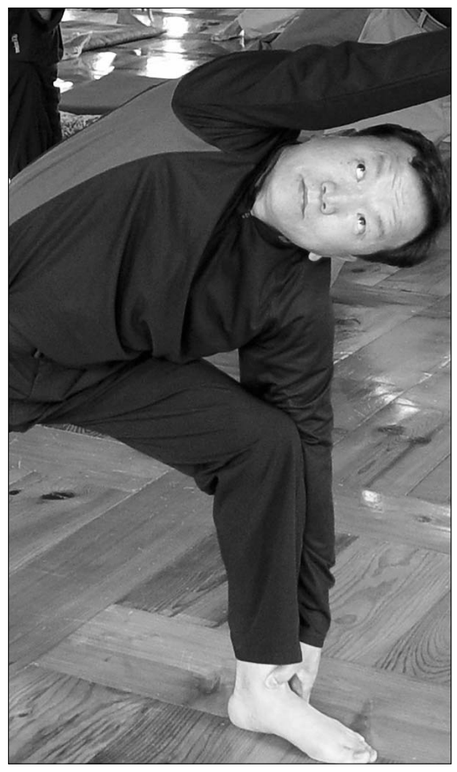
검증되지 않은 신비의 명약 등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건강시장에도 작전종목들이 참으로 많다. 조급성을 이용한 상술이다. 최소한 3년이 지나지 않은 명약은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한 실험동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약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기본에 충실하면서 전문의를 믿고 지시에 따르면서 나에게 맞는 검증된 건강보조품목들을 추천받아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례별로 검증을 마친 약재나 명약은 너무나 많다.

성급한 자가진단을 피해야 한다. 40대 이후가 되면 주위의 많은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나만의 건강정보를 많이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잘못된 의학상식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집단적인 편견이나 무지로 치료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의 업무영역에는 전문성을 고집하면서, 업무보다 더 소중한 건강은 너무나 쉽게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잠재된 질병들이 드러나기 직전 상태인 만성피로에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권태감이 심하다, 목이 자주 붓고 아프다, 담이 잘 든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성욕이 떨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뻐근하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건강검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딘가 큰 병이 있을 것 같다 등이다. 이러한 증상들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즉시 운동을 시작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적절한 운동과 바른 진단만이 예방과 치료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건강을 쉽게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명의와 비방이 건강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병은 몸이 고치는 것이지 약이 고치는 것은 아니다. 보약을 포함한 모든 약은 몸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일 뿐이다. 적절한 보약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너무 보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역대 중국황제들의 평균수명이 35세를 넘지 못했음이 이를 반증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40대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50대 이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보약은 보조제일 뿐이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㊳ 태권도 역사의 진실 3

태권도는 직선적 택견은 둥근 움직임

한국 전통무예는 3박자로 움직입니다. 그에 비해 태권도는 2박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전통무예보다 일본 무예에 가깝습니다. 택견의 발차기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발이 곧게 올라가는데 비해, 태권도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태권도 국기원 이종우 부원장은 태권도의 경기화를 가장 먼저 추진한 사람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경기화해야만 상품성이 있다는 생각에, 다른 도장들이 품새 수련에 매달릴 때 이 부원장은 겨루기를 도입했습니다.

태권도에서 겨루기가 시작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겨루기에서는 주먹보다 발차기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전통 일본 가라테에서는 발차기를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대 태권도학과 양진방 교수는 "가라테는 손동작과 품새를 강조해 겨루기가 없다. 따라서 발차기, 겨루기 등은 현대 태권도와 가라테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겨루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태권도가 가라테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로 태권도와 가라테, 태권도와 택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태권도와 택견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기술이 다르고 직접적인 전수관계(스승과 제자)가 없습니다. 반면, 초기 태권도와 가라테는 기술과 도복이 완전 동일하며, 직접적인 전수관계가 있습니다. 초기 태권도 9대 관장들은 모두 일본 가라테인에게 전수 받은 정통 가라테인들 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종우 부원장의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무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증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태권도는 가라테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직선적이며, 타격으로 인한 일격필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견은 움직임이 원형이며, 타격이 아닌 밀어내거나 쓰러뜨려 제압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두 무술을 놓고 어느 것 하나가 더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술은 그 무술자체보다 수련을 하는 개인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너는 이번 호로 연재를 끝냅니다. 집필해주신 황현수 님과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07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호계신시가지내
• 뒤편 아파트 5천세대 입주 예정인곳, 농서도서관옆
• 3층건물에 2층 ,• 평수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50만원
• 모든시설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0-6553-2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
• 법당 1, 방2, 산신각, 공양실 28평
• 모든 시설 완벽
• 보증금 3,500 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34-55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 총평수 180평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 방4개, 공양실, 화장실2, 지하수
• 주차시설(차량진입좋음)
• 식기 비품일체양도(몸만 오심 됨)
• 가액: 1억 5천만원
010-7152-44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죽전동
• 상가주택 3층건물에 2층
• 도심속 포교지 최적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6616-8025

사찰(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영양군 무창리 117-1번지
• 전925평은 지방도와 계곡 숲이 어우러진국유림 내 앞이 확트인 8도 경사지이며 전기 진입로시설로 종지적합
• 가액: 5천만원 주인직
010-4534-4949

절(별장,전원주택)좋은집안내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백1리432
• 총평수: 1380평 대지150평
• 건평60평, 2층양옥 ,별관15평별도
• 분재원150평(각종분재및 민속품다량)
• 가야산기슭정남향명당,절터
• 별장및연수원,전원주택최적지
• (풍수지리학자께서절터가좋다고함)
• 인터넷(다운에서)전원생활촌치시면 집구경가능
• 가액:6억몽땅(절충후결정)(부동산에서는전화마세요)
011-538-4937
010-9711-331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3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1억 7천만원
043)852-0533

임법당안내
• 위치 : 노원구 공릉동
• 평수 50평,
• 주차장 있음, 방5, 욕실2
• 가액: 1,000만원, 9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085-87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경주 동국대 15분거리
• 총평수 237평, 법당 15평
• 공양간 18평, 요사채 2동
• 가액: 답사후 절충
054)334-669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상가 건물 2층
• 스님, 보살님, 철학인 환영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5757-630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8분)
• 대지 171평, (법당1, 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종무소 각 20평, 건물단청
• 요사채 1,2층 60평 . 방6개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
• 가액: 2억 3천오백(융자1억포함)
• 급한관계로 인연있는분께 절충해드림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포교활동 적지
• 대지 149평
• 법당 20평 단층기와
• 요사채 기와(2동)
• 가액: 4억 7천만원 (개인사정으로 양도)
011-811-5466

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터미널 부근
• 평수: 50평(2층)
•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 산신, 용왕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9519-5657

사찰 및 별장전원주택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논 9500평
• 가액 : 8500만
011-848-2452

암자(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 대지 500평, 정남향 명당터
• 건물 25평, 창고 15평
• 가전제품 시설, 서재, 도서 포함
• 가액: 3억 3천만원
• 내방 절충가능
011-1759-33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
• 평수 : 323평
• 법당 16평, 요사채 46평, 산신각
• 탑, 전망 좋고 운치있는 곳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6천
010-3500-0875

포교원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큰도로변 위치
• 실평수 45평
• 3층건물 중 3층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상담
010-9547-28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340평
• 법당 목조 30평, 산신당 1동
• 요사 2층 건물 1동 각 30평
• 주차가능. 심야전기, 바다보임
• 보증금 2억. 월 67만원
• 전세가능 3억
010-6862-125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천호시장 입구
• 6층중 4층 6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흙탱화
• 방3개, 주방, 세면장, 에어컨 2대, 전기보일러
• 시설비 1000만원
• 가액: 3000만원, 월 15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함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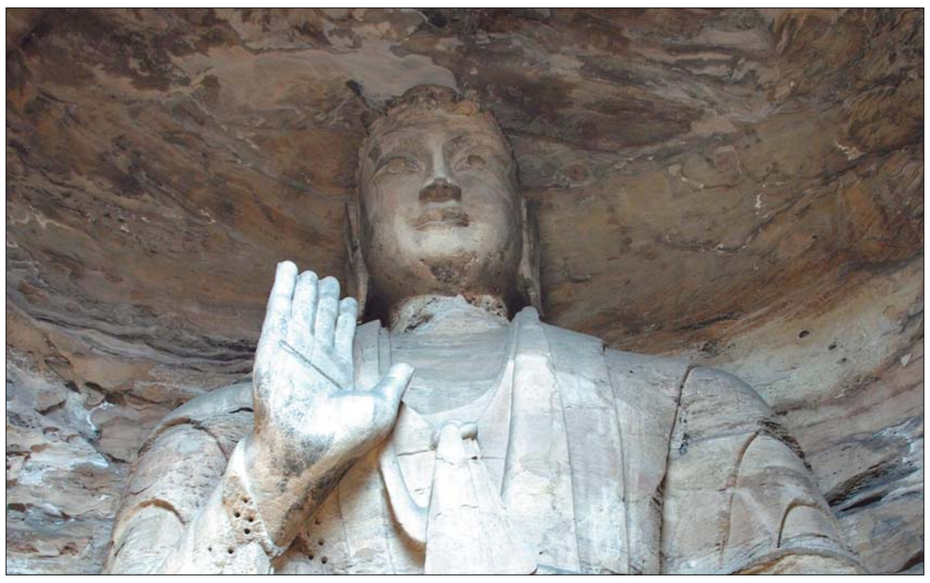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⑩ 운강 2기 석굴

현실에서 이상세계의 꿈 새기다

운강석굴의 담요오굴 중 마지막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6굴은 국가주도의 성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16굴에는 손바닥을 위와 아래로 향하는 시무외여원인(施無畏 與願印)을 한 석가모니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불상이 입고 있는 배에서 길게 내려뜨린 신(紳; 옷을 묶는 띠) 자락은 중국의 천자들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다.

이민족 국가인 북위가 중국화를 위해 복제 개혁을 단행한 것은 486년의 일이다. 최소 20년 앞서 황제를 묘사한 불상에서 중국 복식이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불상이 당시 사회의 흐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16굴 주존불 입상, 운강석굴의 불상 중 최초로 중국 복식을 갖춘 불상이다. 북위 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년 앞서 조성된 이 불상은 중국화에 대한 북위인들의 소망이 반영됐다.

북위는 이후 한화정책(漢化政策)이라고 불리는 중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효문제 즉위 후 471년 경부터 지속적인 한화정책을 실시하는데 태화 10년(486년)에 실시한 황제의 곤면복(袞冕服; 중국황제의 복장) 착용을 시작으로 494년에는 일반인들에게 호복(胡服; 이민족의 복장) 착용을 금지했다.

담요오굴 개착 이후 운강석굴은 465~494년경 두 번째 개착 시기를 맞는다. 이 시기의 운강석굴은 굴 두 개를 나란히 파고 들어간 쌍굴(雙窟) 형식이 대부분이다.

쌍굴 형식은 황제와 태후를 위해 조성한 것이다. 황제는 당시의 황제인 효문제이며, 태후는 그의 할머니였던 풍태후(馮太后)다. 당시 풍태후의 권력이 상당해 두 명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다.

각각 쌍을 이룬 제7 · 8굴, 제9 · 10굴은 특히 안에 위치한 조형에서 담요오굴에서 보여준 박력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 네 굴의 불상은 가늘고 긴 몸매가 특징이다. 옷 소맷자락이 넓고 띠를 두른(포의박대식; 褒衣博帶式)의 특징을 보여주는 등 단순히 크고 많은 장식으로 위압적인 모습을 표현한데서 변화하여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고졸(古拙)한 미소를 띠고 있는 생기 있는 불상의 얼굴은 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옷자락이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겠지만 유목 기마민족인 북위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고 중국식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불상의 얼굴 속에서도 우아한 중국적 문화의 특성을 수용해 그들의 정신세계가 중국적 흐름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쌍굴 형식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이나 유마 · 문수보살을 새긴 감실이 있다. 이러한 조각은 〈법화경〉 '견보탑품'과 〈유마경〉 '문질품'의 내용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려한 채색 사이사이로 비천이 날아다니고, 구원의 상징이자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의자에 앉아서 중생을 맞이하고,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는 비스듬히 마주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문수보살과 유마장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석굴을 보고 있노라면 세계 속에서 이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북위인들의 바람을 읽을 수 있다.

석굴 안에 경전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불국토의 모습을 살피고 현실세계에서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그들의 꿈이 서역에서 넘어온 석굴이란 문화 속에 재구성된 것이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⑤⑤ 직지사에서 만난 가을



1년에 한두 번은 울어야 한다. 숲에 가을이 있듯이. 그날 만난 가을 풍경이 그렇게 말했다.

작년 가을 김천 직지사. 해마다 오고 가는 가을이지만 그토록 선명하고 짙은 풍경은 오랜만이었다. 단풍은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고, 도량을 찾은 이들은 모두 낙엽 위를 걸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산새소리가 계절을 더했다. 아스팔트길에서 걸어온 발자국들은 낙엽 위에서 무너졌고, 모래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얼마나 더 많은 가을이 오고 가야 낙엽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가을을 보내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울 수 있을까. 저녁 범종이 울고, 낙엽 하나가 행자 고무신에 묻어갔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7도 북방장상여등억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북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증명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이 도상도 제 16도나 제 15도, 제 14도와 비슷한 도상이며, 북방의 제불인 염견불, 보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이 아미타불과 아미타경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서방과 마찬가지로 약간 좌향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도상의 구름문양은 각각의 부처님을 좌대와 같이 감싸고 있는 단독의 구름문양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화면의 우측에 있는 부처님의 도상은 좌측면이 잘라진 상태로 표현되고 있어, 책의 삽화의 형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도상은 10번째 목판 원판의 전반부 1/4에서 11번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 1/3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아, 북방세계에 있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등 이와 같으신 항하수의 제불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두루 덮은 혀-부처님 상호의 특징 중 하나로 길고 넓은 혀이며,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표현이다)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 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舍利弗 西方世界 有焰肩佛最勝音佛難沮佛日生佛網明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偏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익을 찬탄하고 북방에 있는 염견불을 비롯한 한이 없는 여러 부처님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북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까지 내세우면서 간곡하게 설법하고 계시는 내용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시는 것이다. 염불에는 입으로 끝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칭명염불과 부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생각해 그 형상에 자기의 마음을 전념하도록 하는 관상염불, 자기 자신과 법신을 관찰해 마음을 일념 되게 하는 실상염불이 있는데,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염불이 바로 칭명염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칭명염불 수행이 아닐까.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7도 북방장상여등억장엄(北方長相汝等億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대행 스님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되돌려 놔야 됩니다

울산의 여러분과 더불어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말은 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철 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너희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떠날 때는 너희 몸뚱이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한 철 걸망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놀다가 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네 탓 내 탓을 다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성질 때문에 집안이 홀딱 망하는 수도 있고 파산이 되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일체 만물만생도 역시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물은 그 안에 만 생명을 넣고 굴림을 굴리면서 리드해 나가는데도 걸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면 '아, 물이 말을 하는구나! 물이 나같이 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도 그냥 길을 가듯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 나무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돌이나 산천초목들도 다 살아 있고 움죽거리고 잘나잘나 화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신세계 50%에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도 물질계의 50%와 더불어 같이 상응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모습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살림살이와 동물과 생물, 일체 만물의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만 다르고 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니 어디 그게 둘이겠습니까? 만물만생이 다 나같이 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도 나도 모두가 나투면서 잘나잘나 화해서 돌아가니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모두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혼자만 높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이 제가끔 높다는 겁니다.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높고 거지는 거지대로 높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제가끔 높으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래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그대로 쉬는 것도 없고 쉬지 않는 것도 없이 여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여래의 집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림 : 최주현

이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의미는 만물만생의 생명, 그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자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 생명의 근본이 있고, 말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달하면서 돌아가니 모두가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없이는 세상에서 창조력을 기를 수도 없고 창조를 해낼 수도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잘못됐든 잘됐든 부딪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아서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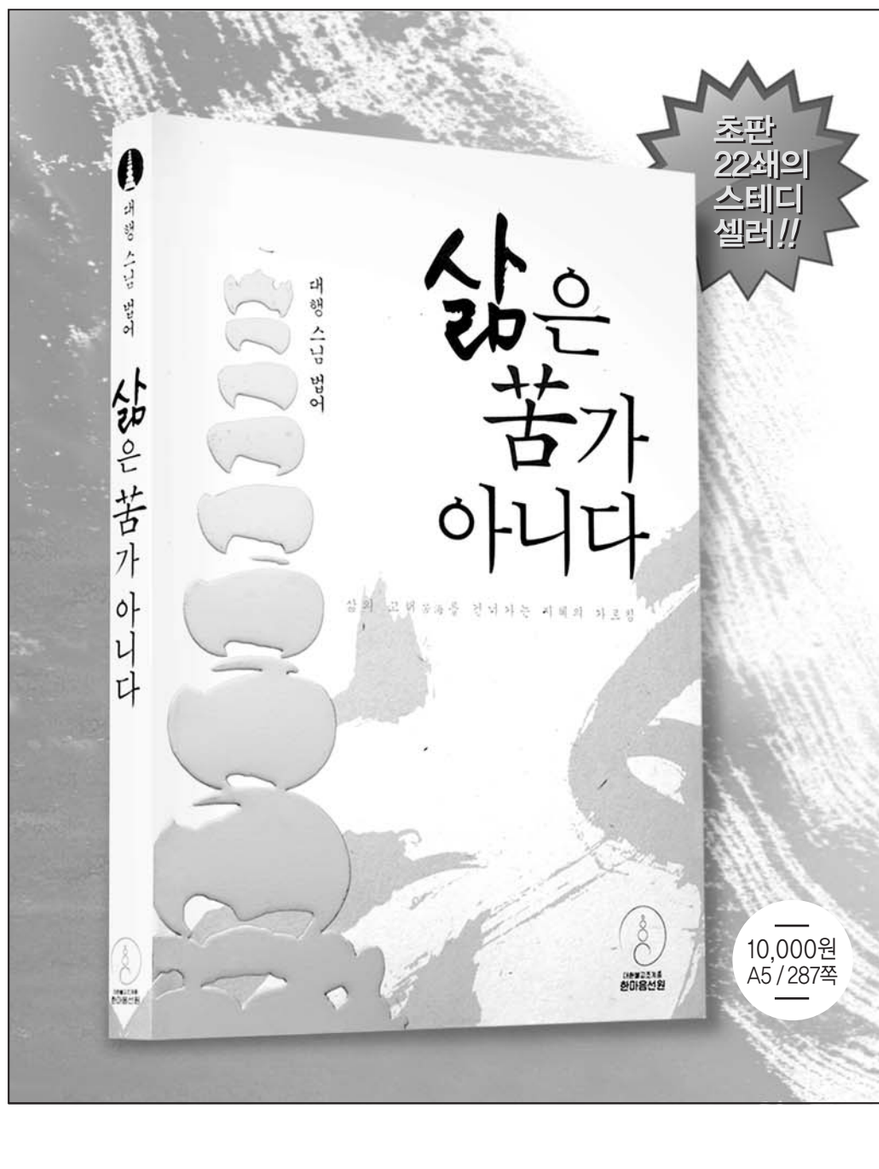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애고든 병고든 천차만별의 문제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밖으로만 찾습니다. 명이 짧다 하면 칠성님한테 빌고, 가난하고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 들었다 하면 약사보살 찾고, 물에서 위험할 듯하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 위험할 듯하면 지신을 찾고…. 여러분, 한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오는 대로 어떻게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빕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나지 않으며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발견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 이렇게밖엔 말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 병고가 오면 '야, 내 깊은 한마음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병고도 나온 거니까 낫게 하는 것도 거기 아닌가.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고 거기 놔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또는 명이 짧다 하면 안에서 칠성이 됩니다. 금방 화해서 칠성 부처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한마디 할까요? 가정에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이 됐다가, 금방 형이 됐다가,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왜 그래?" 하고 그 행동과 말과 뜻이 그대로 남편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도 "아버지!" 하면 금방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대로 나투는 것입니다. 어떠한 애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놓을 때는 자동적으로 산신도 되고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에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약사가 되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놓을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그 한군데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굴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름해서 수레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가 되돌려 놔야 됩니다. 내가 한번 비유를 해 볼까요? 오신통에 숙명통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라고 말해도 됩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입력을

☞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으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심력을 키우세요

☞ 25면에서 계속

해야만이 나오지만 마음의 컴퓨터는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그 업식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오는 대로 주인공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없고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름해서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거기다가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나지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딪침도 있고 화도 나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런 이치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되돌려서 거기다가 놓는다면 새로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 생각 생각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없다면 목석일 것이고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 목석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자기를 수행시킬 수 있는 과정, 바로 인간 수행의 길이라고 봅니다. 망상이기 이전에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요 생각을 못하면 목석이요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놓으란다고 해서 뭐, 재산도 뭣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놓지 않고도 놓을 수 있고, 놓았다면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게 아니니 자긴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영원히 자기 것도 아니요 영원히 붙들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카세트에 노래를 녹음했다가 다시 노래를 녹음하면 그 앞서의 노래가 지워지듯이, 되돌려 놓으면 먼저 것이 지워지면서 입력이 다시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이며 그대로 여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뭣고?' 하고 있는데 뭐긴 뭡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나오기 이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싹이 돼서 화했더라.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려서 씨가 그 안에 있으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수박씨는 현재 자기한테 있으니 바로 수박을 그냥 쪼개서 맛을 보고 씨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뭣고?' 하고서 10년 20년이 가도 도대체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으로 과거 씨를, 내가 나오기 이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다 들어 있으면서도 둘 아니게 공하여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역력히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수십억이 들어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들 아시지요?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것을 왜 주걱으로 그렇게 쳤는지, 무슨 까닭으로 "문수다! 문수다!" 했는지 그 뜻을, 그 뒷면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되돌려 놓으라는 그 뜻도 그와 똑같습니다. 망상이든지 뭐든지, 우리의 마음이, 안에서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딴 데서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 일어나듯 하는 겁니다. 딴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하고 주걱으로 치듯이 놓아야 합니다. 왜냐? 팥죽 방울이 올라오는 게 바로 마음 일어나는 것, 생각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일어나는 것이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팥죽 방울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팥죽 솥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팥죽 솥이라면 바로 팥죽 방울이 망상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 저것도 법, 그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냈으면 법신이요 움죽거리면 바로 화신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건 자기가 뜻을 이루어서 그거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귀감이 되고 여러분한테 법을 전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모습만 보고 이름만 듣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오신통이라는 통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모든 것은 마음에다 되돌려 놓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말로 그 몸뚱이를 잡으려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심력을 키우는 것만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아야 불이 번쩍 들어오듯이, 내 주인공에다가 되돌려 놓으면, 모두가 가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부부, 자식, 부모라고 알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내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야지 일일이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가 엎어지면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지죠?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있어서 나한테서 나온 거라면, 나한테 부닥치는 거라면 나한테다가 되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그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아니 바깥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그게 일어나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귀머거리에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땅에서 걸어가다가 엎어졌으면 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상대를 두고 믿는 것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도 양 무제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당신이 시주를 아무리 했어도 공덕이 없다고요.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지만 죽었으면서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내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고 하지마는 부처님께선 오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신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한 그대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 지금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네 자리 내 자리, 네 거 내 거 하면서 뺏고 싸우고 야단법석들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멀고 가까움도 없으니 이 지구를 훌떡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자유자재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식으로 인해서, 관습으로 인해서 '이거를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안될 거야. 이거는 꼭 될 거야,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마음으로서 탈피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항상 그렇게 노예생활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마음으로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항상 그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또는 산다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스님으로서 입산을 하고 다른 친구는 집에서 살았더래요. 그런데 집에서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입산한 친구 스님을 청해서 "우리 어머니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오." 하고 부탁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휴, 이 세상에 오지나 않았더라면 갈 것도 없을 걸 갖다가 그랬어." 하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오지나 않았으면 갈 것도 없지." 하고 말입니다. 허허허….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찌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고 내일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씀으로써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꼭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업식 말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두 그 무명을 쓰고 나옵니다, 어떤 무명이든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의 무명만 쓰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올 것이고, 개구리같이 살았으면 개구리 무명을 쓰고 나올 것이고, 짐승같이 살았으면 짐승의 무명을 쓰고 나올 것이고….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땅속의 벌레로 무명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도 금 사람이 있고 깡통 사람이 있고 넝마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썼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닥쳐오는 것이고,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올 것입니다. 미래의 오늘! 그래서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러니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천당도 이 자리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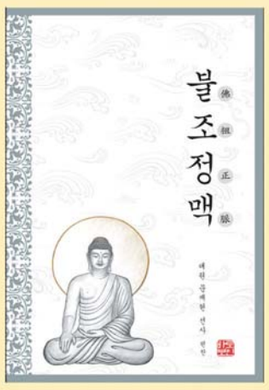
그러나 거기에 더 어렵고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모습을 쓰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짐승의 탈을 써 보십시오. 개 탈을 썼다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내가 사람이다.' 하고 사람의 말을 해도 개가 짖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개 탈을 썼으니까 개로 대접하지 사람으로 대접을 해 줄 수가 없지요. 한 가지 예로 표현을 할 때 말입니다. 그처럼 아무리 사람의 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양이로 태어났거나 독사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의식으로 아무리 말을 한답시고 지저대고 찍찍거려 봤자 그것은 뱀의 소리고 벌레의 소리고 개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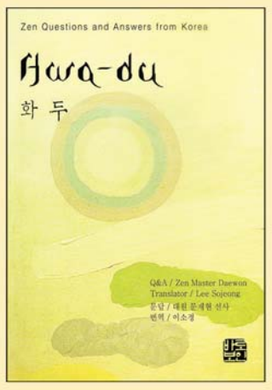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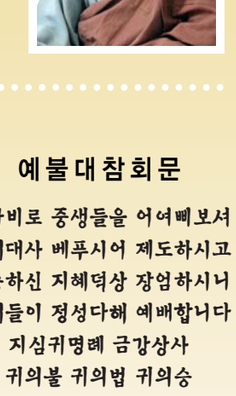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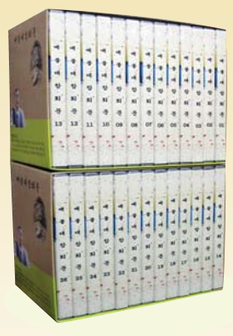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가 격 : 1SET 30만원(발송비 없음)
낱개 2장 1만원(발송비 없음)
구입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봉 "부처님 오심을 찬탄합니다" 축

탄생불 점안식 및 천등공양법회

다보탑,5층석탑, 포대화상 불사회향법회



1인 1등 일만원 접수합니다.

■ 일 시 : 2010년 11월 7일(일) 오전10시
■ 장 소 : 거조암 가는길 팔공산 천 룡 정 사
주지 지 덕 합장

■ 주 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265번지
■ 전 화 : 054)336-0052
010-5153-0052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큰사랑노인병원장

순수의식과 정신건강

가끔 나는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곤 한다. 얼마 전에 본 내용은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성 동물심리학자가 출연한 내용이다. 거기서 그녀는 이상 행동을 보인 개나 말을 만난다. 동물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잠시 침묵한다. 때론 동물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무언가를 되뇌는 모습이다. 이어 동물 주인과 얘기를 나눈다. 동물의 속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저간의 속사정을 알아챈 주인은 공감을 표시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한다. 며칠 지나, 눈에 띄게 달라진 동물의 행동 변화가 주목된다. 시청자들도 충분히 이에 따른 공명 반응을 갖게 된다. 그녀의 뒷말은 대체로 이러하다.

동물은 말로 표현 못하나 주인의 속사정이나 감정까지 알아내는 능력이 사람 못지 않다. 그리고 동물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해와 감성의 능력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느 동물이든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인격성' 같은 게 분명 있다는 전언이다. 그녀의 사실 경험을 통해, 또 객관적 검증을 통해 드러났으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 읽은 책 기억이 또 하나 떠오른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써 일약 세계적 명사가 된 일본인 학자 에모토 마사루의 메시지다. 그의 연구는 가히 충격적이다. 알다시피 생명의식이 없어 보이는 물(水)이라는 물질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는 사랑, 미움 등 여러 감정을 말로 또는 물병위에 글로 써놓고 그 전후의 물 분자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사랑 등 긍정적 감정을 드러내주면 물은 아름답고 신기한 결정체 구조가 된다. 반면 악감정에 노출되면 물분자는 기괴한 모양으로 변하고 만다. 물과 같은 무생물일지라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셈이다. 허나 그 신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은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 Nature>에 투고된 바 있다. 당시 게재된 논문에 대해 편집자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실험이다. 물리학적 근거가 없다"는 코멘트를 말미에 달아 놓기도 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식물의 의식 반응 같은 걸 밝혀 낸 방송보도를 본 생각이 난다. 식물도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스런 보살핌의 손길이 닿으면 마치 의식이 있는 양 생육도 좋아지고 그 열매도 잘 맺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실 재배에서 이렇듯 사람 대하듯 식물을 키우는 이가 있다는 소식을 가끔 아침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한다.

동물은 물론 식물, 심지어 물과 같은 무생물에도 의식이 있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보면, 일체 만물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불가(佛家)의 얘기도 형이상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우리의(인간중심의) 마음 바탕엔 만물 공통의 근원인 그와 같은 '순수의식'이 깔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말한 순수의식이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수준의 의식 즉, 의식 · 전의식 · 무의식이란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런 류의 의식을 떠난, 의식의 바탕이 되는 의식이다. 해서 일컬어 순수의식이라 지칭된 것이다.

인도의 옛 성자였던 마하라지나 마하리쉬,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이들도 이런 의식을 두고 우리의 본래 고향이나 근본 바탕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부연하면, 순수의식은 우주 의식과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에고(ego)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의 희미한 부산물 쯤으로 간주된다. 개체 영혼이라는 것은 이 에고와 순수의식의 중간쯤일 것이다. 순수의식은 빛과 사랑 또는 자비로 넘쳐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늘 침묵에 휩싸여 빛나는 이 순수의식을 참구해 보면, 이 우주가 본래부터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설명은 모든 류의 명상(또는 명상적 치유)에서 공유하고 있다. 나는 회복기의 알콜중독 환자나 우울증 환자를 대할 때 종국에는 이런 의미 관련 명상법을 소개해 준다. 의외로 그 반응이나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다. 정신건강의 증진에는 어떤 치료방식을 따르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제고 없이는 궁극적 해결도 없을 거란 게 내 소견이다. 자살과 우울증 예방 교육을 할 때에 의식의 참다운 변화를 겪게 하는 것이 한 가지 훌륭한 방책이라 믿어야 되지 않을까 본다.



사부대중 칼럼

김은희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참회와 앎이 중요한 까닭

올해 우리나라는 이상기온으로 배추값이 폭등해 전국이 난리이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태풍재난,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칠레 산호세 광부들이 보여준 동료애와 화합에서 알 수 있듯 우리들은 많은 재난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또 다른 큰 감동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몇 달을 암흑 속에서 견디며 극복해 보여준 그들의 결실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다.

나는 희망을 현실에 이루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마다 한해 계획을 세우며 발원을 한다. 올해에는 건강기도와 참회기도를 계획으로 삼아 실천 중이다. 올 한해 동안 참회서원은 일상 속에서 빠지지 않는 나의 화두였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밭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천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농부에 비유해 보자. 먼저 봄에 밭을 갈아 돌멩이를 걷어내어 고르게 땅을 평평하게 해 양질의 밭을 만들어야한다.(如淨良田) 다음으로 씨를 뿌려서 곡식이 생길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如下種子) 물도 뿌려서 곡식을 잘 가꾸어 자라게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거름을 주어서 다 자란 식물을 잘 수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불교인의 기본 자세는 '양질의 밭(如淨良田)'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깨달음의 목표에 근접할 만큼 정진이 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자기반성의 자세가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매순간 자기마음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은 밭을 만드는 비결이라 생각된다.

송나라 자운준식(慈雲遵式, 963~1032) 스님은 <왕생정토결의행원이문(往生淨土決疑行願二門)>에서 일상생활 속 염불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을 다잡아 자연히 항상 모든 악의 생각을 멀리한다. 설령 악을 짓고자 해도 부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사 악에 따라 악업을 짓고자 할 때 마음이 항상 하심하고 부드러워 마치 몸에 향기가 있어서 자연히 다른 냄새가 떠남과 같다. 또한 다시 마음에 미세하게라도 악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안 즉시 곧 부처를 기억한다면 악한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스님은 삶 속에서 부처를 생각해 악한 생각을 멀리하는 것도 일상생활 속의 '염불인'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왕생정토참원의(往生淨土懺願儀)>의 참회문에서 "지금 내가 악을 지으면 3악도에 떨어지니 원컨데 가엾이 여기시어 저의 참회를 받고 무거운 죄가 멸해 모든 악이 사라지고 마침내 사바에 태어날 원인이 영원히 다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참회의 실천을 강조했다.

가을이 무르익는 지금, 내 수행의 결실을 살피고 다시 나를 점검해본다. 매순간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하고 나를 채찍 하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청정해졌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비디오카메라로 찍듯이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기록하고 알고 있다는 어느 큰 스님의 말을 기억하며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조심했다.

마음이란 화가와 같아서 항상 오음(五陰)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금새 악한 습기가 생겨나서 내 정신을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드는 경험들은 누구나 겪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참회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주위에서 내 얼굴이 밝고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돼있을 것 같다. 참회를 하면 알지 못했던 일들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몇 번 씩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된다. 불교에서 무지(無知)가 큰 죄라고 여기는 것도 이 이유에서 이다. 모르면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므로 잘못된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깨닫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면서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겨나는 것이다. '앎'이 중요한 것도 이 까닭이다.

나를 비롯한 불자 모두가 올 한해 세운 목표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그것들이 결실을 이루려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 마음속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 설

10·27법난연구소 설립해야 한다

10 · 27법난은 한국불교사에 치욕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건 발생 후 어언 30년이 흘렀다. 80년 10월27일 새벽 3만2천여 군 · 경이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들이닥쳐 1920명을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연행, 고문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에게 강제로 사표를 쓰게 했고, 종도들의 대의기관인 중앙종회를 해산시킨 후 정화중흥회의를 만들었다. 한 종단을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없이 유린한 것이다.

2007년에 와서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10 · 27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됐던 불교계가 다소나마 억울함을 덜었다. 여기까지 27년이 걸렸다. 법난 진실 규명을 촉구했던 민중불교운동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단체와 성해 스님, 삼보 스님 등 피해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는 없었을 것이다.

3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가 열린다.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세미나를 열고, 연극도 공연한다.

조계사 인근에 10 · 27법난 역사교육관을 건립하는 불사도 추진된다. 그러나 개운치 않다. 10 · 27법난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에 의해, 왜 불교계를 정화의 대상으로 지목했는지, 진행 경과는 어떠했는지, 아직도 공백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법난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주장은 타당하다. "미진한, 애매한, 부족한 자료수집이라는 현실에서의 역사해석, 의미 부여, 교훈과 과제 찾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계율도량은 한국불교 위한 장군죽비

계율근본도량이 설치된다. 계율(戒律) 정신에 따라 사찰을 운영하고 율을 연구, 보급해 생활 속에서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율장연구회 회장 철우 스님과 고령 반룡사 주지 도일 스님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룡사를 계율근본도량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불교의 계율이 흐트러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는 계율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도일 스님은 "불 · 법 · 승 삼보 가운데 승보를 제외한 이보만 있다고 주장한 이도 있을 만큼 율장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계율근본도량이 설치된다니 온 사부대중이 반길 일이다.

현대한국불교사의 여러 분규의 원인은 종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계를 지키지 못한 허물을 드러내어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기 일쑤였다.

계율근본도량이 오로지 계율 정신에 따라 때론 자상하게 타이르고, 때론 장군죽비가 되어 우리 불교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불교에는 일찍이 서릿발 같은 계율전통이 있다. 자장 율사는 재상을 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는 왕명을 받고 "내 차라리 계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고사했다. 우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 수록된 마크 일체 특허출원 상표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KOREA – MYANMAR
FRIENDSHIP INTERCHANGE ASSOCIATION
외교 법인

LEADER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 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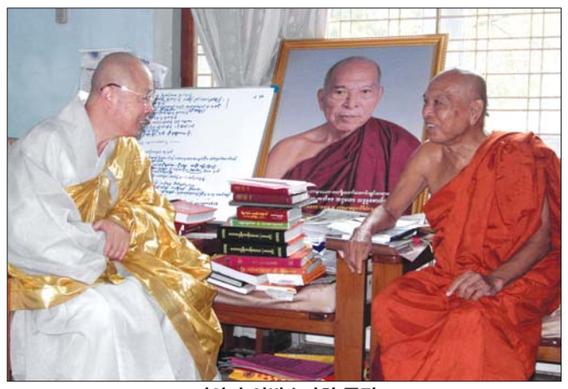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세계촌 곳곳에서 땀 흘려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땀 흘려 봉사해 온 30년의 세월들...

극빈지역 초등학교 설립, 빈약한 사찰 보수지원, 우물파기 운동, 승려 교육자료 지원, 극빈지역 출가의식 지원,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국제붓다사리 박물관 및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문화원 개원(공식승인), 수해지역 복구지원, 학교건립 자선바자회, 이외에도 예술인 상호교류 공연, 교육자재지원, 아웅산묘지 폭파 순국선열 천도재, 비구니 스님 수행처 건립 제공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나눔의 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극빈지역 초등학교 설립 (수카까미 초등학교)


미얀마 연방승가회 종정


문화원 예방 외무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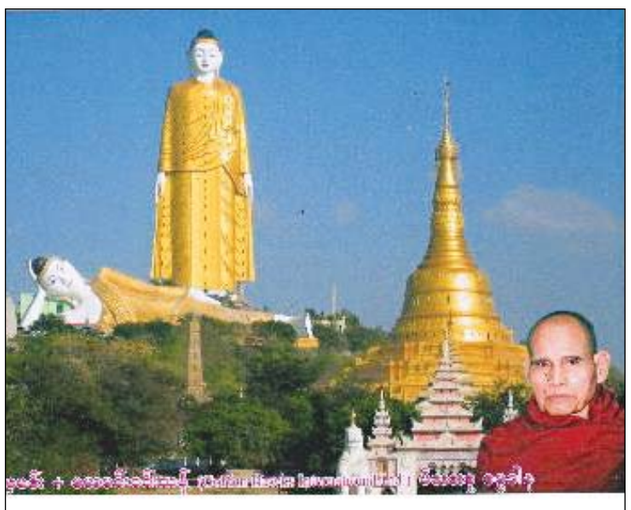

비구니 수행처


국제 붓다사리 박물관


빈글라동 띵간주지역 외 우물파기 운동


신뿌식


우물파기 운동 전개



6층 한국 법당에 대형 후불탱화와
대불 4분을 한국에서 조성하여

12월 9일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 합니다.

코리아 대법당 (140m 대불 6층 코리아 법당)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명예대사 직무실 **대표전화 02)733-5665**

힘들고 고통스런 길고 긴 산고 끝에 드디어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LEADER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